

저자 朴震禧

국역 김상현

해제 김상현

痘瘡經驗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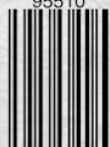
국역

비매품/무료

95510



9 788959 704392



ISBN 978-89-5970-439-2 (EPUB2)

ISBN 978-89-5970-444-6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 두창경험방 痘瘡經驗方	1.1
총론 및 통치방 總論及通治方	1.1.1
두창이 드물게 듣게 하는 법 稀痘方	1.1.1.1
연생제일방 延生第一方	1.1.1.2
척예면두탕 滌穢免痘湯	1.1.1.3
삼두음 三豆飲	1.1.1.4
두창을 변별하는 것 辨痘證	1.1.2
음식 飮食	1.1.3
금기 禁忌	1.1.4
열이 나는 3일 發熱三朝	1.1.5
승마갈근탕 升麻葛根湯	1.1.5.1
삼소음 參蘇飲	1.1.5.2
가미패독산 加味敗毒散	1.1.5.3
홍면산 紅綿散	1.1.5.4
가미육일산 加味六一散	1.1.5.5
박하탕 薄荷湯	1.1.5.6
신해탕 神解湯	1.1.5.7
삼두음 三豆飲	1.1.5.8

두창이 돋는 3일 出痘三朝	1.1.6
화독탕 化毒湯	1.1.6.1
선퇴탕 蟬退湯	1.1.6.2
홍화자탕 紅花子湯	1.1.6.3
오매탕 烏梅湯	1.1.6.4
보원탕 保元湯	1.1.6.5
화독사물탕 化毒四物湯	1.1.6.6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 出痘終日	1.1.7
수양탕(水楊湯)이란 다음과 같다. 水楊湯者,	1.1.7.1
저미고(豬尾膏)란 다음과 같다. 豬尾膏者,	1.1.7.2
여성음 如聖飲	1.1.7.3
가미서각소독음 加味犀角消毒飲	1.1.7.4
두창이 돋을 때 증(證)이 변하는 것을 경험한 사례 出痘時變證經驗	1.1.8
화독탕에 도적산을 더한 것 化毒湯合導赤散	1.1.8.1
부풀어 오르는 3일 起脹三日	1.1.9
신공산 神功散	1.1.9.1
내탁산 內托散	1.1.9.2
찰아산에 용석산을 더한 것 擦牙散合龍石散	1.1.9.3
고름이 잡히는 3일 貫膿三日	1.1.10
해독방풍탕 解毒防風湯	1.1.10.1
딱지가 앓는 3일 收靨三日	1.1.11
목향이중탕 木香理中湯	1.1.11.1
유향산은 乳香散	1.1.11.2

소풍산 消風散	1.1.11.3
소독음 消毒飲	1.1.11.4
사성회천탕 四聖回天湯	1.1.11.5
두창경험방발 痘瘡經驗方跋	1.1.12
† 두창경험방:고사촬요본 痘瘡經驗方:攷事撮要	1.2
삼가 찬바람을 피할 것 謹避風寒	1.2.1
금해야 할 음식 禁忌食物	1.2.2
처음 열이 나는 3일 初熱三日	1.2.3
승마갈근탕 升麻葛根湯	1.2.3.1
신해탕 神解湯	1.2.3.2
두창이 돋는 3일 出痘三日	1.2.4
화독탕 化毒湯	1.2.4.1
가감홍면산 加減紅綿散	1.2.4.2
선퇴탕 蟬退湯	1.2.4.3
월경을 쓰는 법. 取月經法.	1.2.4.4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 出痘終日	1.2.5
패초산 敗草散	1.2.5.1
수양탕 水楊湯	1.2.5.2
부풀어 오르는 3일 起脹三日	1.2.6
가미서각소독음 加味犀角消毒飲	1.2.6.1
보원탕 保元湯	1.2.6.2
고름이 잡히는 3일 貫膿三日	1.2.7
딱지가 앓는 3일 收靨三日	1.2.8

목향이중탕 木香理中湯	1.2.8.1
유향산 乳香散	1.2.8.2
소풍산 消風散	1.2.8.3
소독음 消毒飲	1.2.8.4
사성회천탕 四聖回天湯	1.2.8.5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 反眼之症	1.2.9
연교석고탕(連翹石膏湯)의 방문(方文) 連翹石膏湯方文	1.2.9.1
† 두창경험방:고사신서본 痘瘡經驗方:攷事新書	1.3
삼가 찬바람을 피하고 절대 날것과 찬 것을 금해야 하니, 이 경계를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謹避風寒, 切禁生冷, 終始宜守此戒.	1.3.1
처음 열이 나는 3일 初熱三日	1.3.2
승마갈근탕 升麻葛根湯	1.3.2.1
신해탕 神解湯	1.3.2.2
두창이 돋는 3일 出痘三日	1.3.3
화독탕 化毒湯	1.3.3.1
가감홍면탕 加減紅綿湯	1.3.3.2
선퇴탕 蟬退湯	1.3.3.3
○월경을 쓰는 법. ○取月經法.	1.3.3.4
수양탕 水楊湯	1.3.3.5
여성음 如聖飲	1.3.3.6
가미서각소독음 加味犀角消毒飲	1.3.3.7
부풀어 오르는 3일 起脹三日	1.3.4
신공산 神功散	1.3.4.1
내탁산 內托散	1.3.4.2

보원탕 保元湯	1.3.4.3
고름이 잡히는 3일 貫膿三日	1.3.5
정중탕 定中湯	1.3.5.1
딱지가 앉는 3일 收靨三日	1.3.6
목향이중탕 木香理中湯	1.3.6.1
소풍산 消風散	1.3.6.2
소독음 消毒飲	1.3.6.3
사성회천탕 四聖回天湯	1.3.6.4
연교석고탕 連翹石膏湯	1.3.6.5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痘瘡經驗方 | 두창경험방

總論及通治方 | 총론 및 통치방

夫痘瘡爲病, 胎在腹中, 六八月則已成形, 食母腹中穢液, 入兒五臟. 至十月, 穢液滿胸. 至生時, 兒口中猶有不潔, 產母以手拭淨則無疾病. 俗以黃連甘草水, 下其臍糞之穢. 然母之不潔餘氣, 入於藏中, 遇風寒邪氣, 相搏而成痘疹也.¹ 太古之時, 人物淳, 古未有妄作, 善養其胎, 故元無痘疹之證, 至周末秦初始有之.²

그 두창과 단창병이 이히가 턱중의 이실지 늑칠월이면 임의 얼굴이 이러 어미 복동의 더러운 거슬 머거 이히 오장의 드느니 열설의 니르면 그 더러운 거시 가슴의 그득하얏다가 아히가 나도 그 더러운 거시 입가온대 잇느니 어미가 즉시 손으로 입 안을 쓰서 초초리 하면 병이 업느니 세속이 황련과 감초 달힌 물로 아히 곳 나면서 적적 머거 빛소그 더러운 것 머근 똥을 누이느니 그러도 어미 머근 조출티 아니흔 나쁜 기운이 아히 장부 가온디 머므려 잇다가 풍한과 샹기 상박하를 만나면 두창과 단창이 되느니라. 두창과 단창이란 증이 오힌 태고저그는 인물이 순고하야 아기 된 후의 그 턱를 조심하야 잘 기르는 고로 업더니 좃나라 말세과 진나라 처엄 시절부터 비로소 잇느니라.

무릇 두창(痘瘡)이라는 병이 생기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6-8개월이 되면 이미 형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더러운 물을 먹으면 태아의 오장으로 들어가고, 10개월째에 더러운 물이 가슴에 그득하게 된다. 태어날 때, 태아의 입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는데 산모가 손으로 깨끗하게 닦으면 질병이 없게 된다. 세속에서는 황련과 감초를 달인 물로 배내똥을 나오게 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어머니의 불결한 기운이 장(藏) 속에 들어간 데다 풍한사기(風寒邪氣)를 맞아 서로 치받으면 두진(痘疹)이 된다. 아주 먼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박하여 예로부터 그런 질환이 함부로 생기지 않은 데다 뱃속의 태아를 잘 길러서 원래 두진(痘疹)의 증후가 없었는데, 주(周)나라 말기에서 진(秦)나라 초기에서야 생기기 시작하였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癰疹三證專由胎毒》"夫胎在腹中, 至六七月則已成形, 食母腹中穢液, 入兒五藏. 食至十月, 卽穢液滿胃. 至生時, 兒口中猶有不潔, 產母以手拭淨則無疾病, 俗以黃連、甘草水, 下其臍糞之穢, 此亦母之不潔餘氣, 入兒藏中, 遇風寒邪氣, 相搏而成痘疹也. 《錢乙》"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癰疹三證專由胎毒》"太古無痘疹, 周末秦初, 乃有之. 《入門》" [↩](#)

稀痘方〔두역을 나도 드물게 하는 방문이라〕| 두창이 드물게 돋게 하는 법

取朱砂光明者, 爲末水飛, 新生小兒, 則每五分作三次, 調爛蜜, 溫水送下, 而量兒大小加減用之. 不拘痘出未出, 首尾可服. 密者可稀, 稀者可無, 黑陷者可起, 痘癰者可消. 但性微寒, 不可多服. 或蜜少許, 調朱砂末二分半, 用之爲當.¹

빛물근 두사를 벌업시 기야 슈비햐야 난디 오라디 아닌 아히는 오편으로 세히 논호 와 년흔 꿀의 므라 드스흔 물의 기야 머기되 아히 크며 저그물 헤아려 큰 아히는 비햐야 머기고 어로는 돈으로 머기되 역질이 도드나 아니도다시나 첨엄부터 다흫듯 년햐야 머기면 만히 도다썬 거손 드물고 드른 거손 스러디고 거머써딘 거손 즉시 닐고 다른 터독 종괴 곱튼 것도 즉시 스느니 다만 성이 닐흔 거시니 만히란 쓰디 말라. 혹 두픈 반식 꾸리 므라 머기면 온당햐리라.

빛깔이 좋은 주사를 가지고 가루내어 수비(水飛)한 뒤, 갓 태어난 아이에게 5푼씩 세 번을 졸인 꿀에 섞어 따뜻한 물에 먹이는데,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가감하여 복용시킨다. 두창(痘瘡)이 돋거나 아직 돋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다. 뻣뻣하게 돋은 것을 덜 돋게 하고, 드문드문 돋은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검고 폭 꺼진 것은 돋아 오르게 하고, 두옹(痘癰)을 없어지게 할 수 있다. 다만 성질이 약간 차니 많이 복용하면 안 된다. 혹은 약간의 꿀에 주사 가루 2푼 반을 섞어 복용하는 것도 좋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稀痘方》"服朱砂法 如米細光明朱砂, 水飛爲末, 每五分作三次, 煉蜜調, 量兒大小加減, 溫水送下, 不拘痘出未出, 首尾可服. 密者可稀, 稀者可無, 黑陷者可起, 痘癰者可消. 但性微寒, 不可多服. 《入門》一法, 蜜少許, 調朱砂末一字用. 《得效》" ←

延生第一方〔아히 명 낫씨예 데일 방믄이라〕| 연생제일방

小兒初生, 臍帶脫落後, 取置新瓦上, 用炭火四圍, 燒至烟將盡, 放土地上, 用瓦蓋之類蓋之, 存性, 研爲末. 預將朱砂透明者, 爲極細末, 水飛過. 臍帶若有五分重, 朱砂用二分五釐. 生地黃、當歸身, 濃煎汁一二蜆殼, 調和前兩味, 抹兒上齦間, 及乳母乳頭上. 一日之內用盡, 次日大便遺下污穢濁垢之物, 終身永無瘡疹及諸疾.¹

갓난 아히 빗복 써러던 거슬 새디에 우히 노코 숯불로 스면을 둘러 스로디 니 장초진홀만허거든 싸 우히 노코 딜그릇 갓튼 거스로 김 아니 나게 더퍼 불이 다 새디거든 갓는 굴를 민드라 슈비허야 저울로 드라 오분이어든 슈비허 주사 두분 반과 간디황 당귀신을 각 등분허야 달힌 즈을 가리맛조개로 혼나 돌만 허야서 제디 술온 것과 주사 두 가지 굴를 타 아히 입 웃거흠의도 브르며 유모의 젖꼭지도 불라 허른 스이로써 다 머기면 잇튼날 대변의 더러운 탁한 씨 갓튼 거슬 누워 브릴싸시니 그리흔 후면 동신토록 창딘과 다른 병이 업느니 아돌 혼나홀 나하도 혼나홀 엇고 아돌 열홀 나하도 열홀 어들 싸시니 갓장 묘흔 법이라.

갓난아이의 탯줄이 떨어지면 그것을 새 기왓장 위에 놓고 숯불을 사방에 놓아 연기가 다 나을 때까지 태운 뒤, 이것을 땅에 놓고 도자기 잔 같은 것으로 덮어 약성이 남게 하여 가루로 만든다. 투명한 주사를 매우 곱게 가루내고 수비(水飛)하여 준비해 둔다. 탯줄이 5푼이면 주사를 2푼 5리를 쓴다. 생지황·당귀(몸통)를 진하게 달인 즈을 가막조개 껍질 1-2개 정도 양만큼 준비하여 앞의 두 약과 고르게 섞은 뒤 아이의 입천장과 유모의 젖꼭지에 바른다. 준비한 약을 하루 동안 다 바르면 다음날 대변으로 더럽고 탁한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평생 창진(瘡疹)이나 다른 질병이 없을 것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稀痘方》"延生第一方 小兒初生, 臍帶脫落後, 取置新瓦上, 用炭火四圍, 燒至烟將盡, 放土地上, 用瓦蓋之類蓋之, 存性, 研

爲末. 預將朱砂透明者, 爲極細末, 水飛過, 臍帶若有五分重, 朱砂用二分五釐, 生地黃, 當歸身濃煎汁一二蜆殼, 調和前兩味, 抹兒上顎間, 及乳母乳頭上, 一日之內用盡, 次日大便遺下污穢濁垢之物, 終身永無瘡疹及諸疾, 生一子, 得一子, 十分妙法也. 《醫鑑》" [↩](#)

滌穢免痘湯〔더러운 거슬 시서 브려 두역을 면하는 탕이라〕| 척예면두탕

五六月間, 取絲瓜小小蔓藤絲, 陰乾, 約二兩半重, 收起. 至正月初一日子時, 父母只令一人知, 將前絲瓜藤煎湯, 待溫, 洗兒全身頭面上下, 以去其胎毒. 洗後不生痘也, 雖出亦輕, 只三五顆而已.¹

오뉴월 사이에 수세미와 작은 줄고 작은 손주는 너출실 곳튼니로 물리워 두냥 반만 정히 빠듯다가 정월 초하루날 자시에 부모 썩의 다만 혼나히 아라 그 스과등을 달혀 드스하게 해야 아히 온 몸과 머리 노과 아래 우흘 다 정히 씻써 그 틱독을 업게하면 후에 일절 두창이 나디 아니하느니 비록 날디라도 경해야 다만 세히나 다솟시나 나느니라

오뉴월 사이에 수세미오이의 아주 가는 넝쿨 섬유를 취하여 그들에 말리고, 약 2냥 반 정도를 싸둔다. 정월 초하루 자시(子時)가 되면 부모 중 한 사람만 알게 하고 그 수세미오이 넝쿨 달인 물을 따뜻하게 하여 아이의 온몸, 머리, 얼굴을 씻겨서 그 태독(胎毒)을 없앤다. 씻기고 나면 두창이 생기지 않고, 돌아나더라도 가벼워서 3-5개에 지나지 않는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稀痘方》"滌穢免痘湯 五六月間, 取絲瓜小小蔓藤絲, 陰乾, 約二兩半重, 收起. 至正月初一日子時, 父母只令一人知, 將前絲瓜藤, 煎湯待溫, 洗兒全身頭面上下, 以去其胎毒, 洗後不生痘也. 如出亦輕, 只三五顆而已. 《醫鑑》" ←

三豆飲〔삼두음이라〕| 삼두음

赤小豆、黑豆、菉豆 各一升, 甘草 五錢. 右水煮熟, 逐日飲汁, 喫豆任意服. 已染則輕解, 未染者服之, 過七日, 永不出.¹

불근 찢 거른 콩 녹두 각 한되 감초 다섯돈을 물 넉곱 되에 반되게 달혀 그 즙을 튜일 먹고 그 건디를 임의로 머그면 임의 어드니는 경하야 풀리고 임의 엇디 안이니는 먹기를 오래하면 영히 나지 아니하느니라.

적소두、흑두、녹두 각 1되, 감초 5돈. 이상을 물에 삶아 날마다 그 즙을 마시고 콩은 마음대로 먹게 한다. 이미 전염된 경우에는 가볍게 풀릴 것이고, 아직 전염되지 않은 경우 7일 이상 복용하면 영원히 돌아나지 않을 것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預防法》"三豆飲 赤小豆、黑豆、菉豆 各一升, 甘草 五錢. 右水煮熟, 逐日飲汁, 喫豆任意服. 已染則輕解, 未染者服之, 過七日, 永不出. 《得效》" [↩](#)

辨痘證〔두역증을 분별하는 거시라.〕| 두창을 변별하는 것

傷寒、傷食、瘡疹證, 皆相似. 痘瘡則腮赤燥, 多噴嚏, 悸動, 昏倦, 四肢冷, 目胞赤, 呵欠, 煩悶, 乍涼乍熱, 咳嗽, 驚搐, 多睡. ○痘瘡證, 大抵與傷寒相似, 發熱煩燥, 臉赤脣紅, 身痛頭疼, 乍寒乍熱, 噴嚏呵欠, 喘嗽痰涎, 嘔吐. 或爲目竄口噤, 驚搐如風之證, 或口舌咽喉肚腹疼痛, 或煩躁¹狂悶, 昏睡譫語, 或自汗, 或下痢, 或發熱, 或不發熱, 證候多端, 卒未易辨, 必須以耳冷尻冷驗之. 蓋瘡疹屬陽, 腎臟無證, 其耳與尻屬腎, 故腎之所部獨冷. 又不若耳後紅脈赤縷, 爲之眞也. ○痘疹證, 以耳冷尻冷足下冷, 及耳後有紅縷赤脈, 驗之. 然須見心胸間, 細點如粟起, 則爲眞也.²

두창증이 상한 상식증과 서로 곱트되 다만 두창증은 흑 눈을 틱쓰고 입을 다물고 놀나 설기를 경풍증 곱트니도 잇고 흑 구설과 인후과 두복을 다 저려 아프고 흑 번조하야 밋친 듯하며 혼곤하야 조올며 군말하고 흑 절로서 씹도 나며 흑 니질 설사도 하며 흑 발열도 하며 흑 발열 아닌느기도 이시며 증이 다단하야 졸현히 수이 분변하기 어려오되 다만 귀도 차고 미더골도 차고 발바당이 차고 귀 뒤희 실긋튼 불근 먹이 이실 썩시니 글로도 시험하고 또 가슴 사이에 불근 덩이 좁쌀 7티 도다시면 그거시 진짓 썩시라.

상한(傷寒), 상식(傷食)과 창진(瘡疹)(: 두창)의 증상은 모두 비슷하다. 다만 두창(痘瘡)은 뺨이 벌겋고 건조하며 재채기를 많이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정신이 혼미하고 나른하며 사지가 차갑고 눈꺼풀이 붉어지며 하품을 하고 가슴에 번열이 오르면서 답답하며 추웠다 더웠다 하고 기침을 하며 발작성 경련이 일어나고 잠이 많아진다. ○ 두창(痘瘡)의 증상은 대개 상한(傷寒)과 비슷한데, 열이 나고 번조(煩躁)가 있으며 뺨이 벌겋고 입술이 붉어지며 몸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추웠다 더웠다 하고 재채기, 하품을 하며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며 가래가 끓고 구토(嘔吐)를 한다. 간혹 풍증(風證)처럼 눈을 치켜뜨고 입을 악다무는 발작성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입, 혀, 목구멍, 배가 아프기도 하며, 번조(煩躁)가 일어나고 미칠 듯이 답답해하며 정신을 잃고 헛소리

를 하기도 하며, 저절로 땀이 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며, 열이 나거나 열이 나지 않는 등 증후가 많아서 끝내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귀와 콩무늬가 찬 것으로 검증해야 한다. 대체로 창진(瘡疹)은 양(陽)에 속하고 신장(腎臟)과 관련된 증상은 없는데 귀와 콩무늬가 신(腎)에 속하기 때문에 신(腎)에 해당되는 부위만 유독 차가운 것이다. 또한 귀 뒤에 붉은 실같은 핏줄을 가지고 진짜로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 두진(痘疹)의 증상은 귀·콩무늬·발바닥이 차갑고 귀 뒤에 붉은 실같은 핏줄이 있는 것으로 검증한다. 하지만 반드시 가슴에 작은 점이 좁쌀같이 돋은 것을 확인하면 진짜라고 판단해야 한다.

痘瘡初熱三日, 類傷寒初證. ○ 自初熱至報痘, 類傷寒六經證. ○ 六日以後, 謂之雜證. ○ 報痘以至收靨, 謂之常證. ○ 異常, 謂之變證. ○ 水痘癰疹, 謂之類證. ○ 不治, 謂之懷³證. ○ 餘毒, 謂之瘥證.⁴

두창(痘瘡) 초기에 열이 나는 3일 동안은 상한(傷寒)의 초기 증상과 비슷하다. ○ 초기에 열이 날 때부터 두창이 돌아날 때 까지는 상한(傷寒) 육경(六經)의 증상과 비슷하다. ○ 6일이 지나서 나타나는 증상을 잡증(雜證)이라 한다. ○ 두창이 돌아나서 딱지가 질 때 까지 나타나는 증상을 상증(常證)이라 한다. ○ 상증(常證)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변증(變證)이라고 한다. ○ 수두(水痘)나 반진(癰疹)을 유증(類證)이라 한다. ○ 치료하지 못하는 증상을 괴증(壞症)이라 한다. ○ 아직 두창(痘瘡) 독이 남아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차증(瘥證)이라 한다.

凡痘瘡治法, 或發, 或瀉, 或解肌, 或化毒, 涼血清肺, 調其藏府, 平其飲食, 謹其禁忌, 嚴其攝養, 適其寒溫. 使出無不快之經, 成無不痂之潰, 既愈之後, 不致遺毒, 流汗虛腠, 目疾翳膜, 瘡癰癰瘤, 喉閉噎腫, 潮熱汗泄. 此治法之大略也. ○ 痘瘡發於肌肉, 陽明胃氣主之. 脾土一溫, 胃氣隨暢, 決無陷伏之患. ○ 諸熱不可驟去, 宜輕解之. 盖痘瘡無熱, 則不能起發, 比之種豆, 值天時暄暖則易生. ○ 凡見出遲發慢者, 根窠欠紅活者, 便當憂慮調治, 切勿袖手待斃. 瘡疹, 惟用溫平藥治之, 不可妄下, 及妄攻發, 受風冷. ○ 瘡疹, 始終未有他證, 不可下, 當用平和藥, 頻與乳食, 不受風冷, 可也. ○ 溫

平者, 非熱劑, 如荊芥、薄荷、防風、惡實、甘草之類. 活人書鼠粘子湯, 潔古解毒防風湯, 選而用之. ○惡實、連翹、山楂、甘草, 乃痘瘡終始必用之藥也. 首尾俱不可妄下, 但用溫涼之劑, 兼而濟之, 解毒和中安表而已. ○有大熱者, 當利小便, 宜導赤散、四苓散, 有小熱者, 當解毒, 宜消毒飲、四聖散.⁵

무릇 두창(痘瘡)을 치료하는 방법은 발한(發汗)하거나 사하(瀉下)하거나 해기(解肌)하거나 독(毒)을 풀어 주는데, 혈(血)을 식히고 폐(肺)를 청숙(淸肅)하게 하며, 장부(臟腑)를 고르게 하고 음식을 바르게 하며, 금기(禁忌)를 삼가고 섭양(攝養)을 엄격히 하며, 온도를 적절하게 한다. 두창이 돌아날 때는 빠르게 온도록 하고 한참 왕성할 때는 딱지가 지지 않아 문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미 나은 뒤에도 독(毒)이 남아서 땀이 줄줄 흘러 주리(膝理)를 허(虛)하게 하거나 눈병으로 예막(翳膜)이 생기거나 창(瘡)、절(癬)、옹(癰)、유(瘤)가 생기거나, 목구멍이 막히고 붓거나, 열이 주기적으로 오르면서 땀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치료법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두창(痘瘡)은 기육(肌肉)에서 생기니 양명(陽明)인 위(胃)의 기(氣)가 주관한다. 비토(脾土)가 일단 따뜻해지면 위기(胃氣)도 따라서 퍼지므로 결코 함복(陷伏)되는 우환이 없을 것이다. ○모든 열은 갑자기 없애면 안 되고 마땅히 가볍게 풀어줘야 한다. 대개 두창(痘瘡)에 열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날 수 없는데, 비유컨대 콩을 심고서 날씨가 따뜻해야 싹이 쉽게 나는 것과 같다. ○보통 두창(痘瘡)이 더디게 돈고 느리게 퍼지는 경우나 뿌리 쪽에 붉은 생기가 부족한 경우는 마땅히 주의 깊게 조치해야 하고 절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뒤흔는 안 된다. 창진(瘡疹)은 오직 따뜻하고 화평한 성질의 약으로 치료해야 하지, 함부로 공하(攻下)하거나 함부로 발산하여 찬 기운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창진(瘡疹)에 계속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하(攻下)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화평한 약을 써야 하며, 젖이나 음식을 자주 주어 찬 기운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뜻하고 화평한 성질의 약이란 뜨거운 성질의 약이 아니라 형개(荊芥)、박하(薄荷)、방풍(防風)、우방자(牛蒡子)⁶、감초(甘草) 같은 종류이다. 《활인서(活人書)》의 서점자탕(鼠粘子湯)이나 장결고(張潔古)의 해독방풍탕(解毒

防風湯) 중에 골라서 쓴다. ○ 우방자(牛蒡子)·연교(連翹)·산사(山楂)·감초(甘草)는 두창(痘瘡)의 전주기에서 반드시 써야하는 약이다. 시종일관 함부로 공하(攻下)해서는 안 되고, 단지 따뜻하고 서늘한 성질의 약을 함께 써서 치료 하되 독기(毒氣)를 풀고 중기(中氣)를 화평하게 하며 체표의 기(氣)를 안정시키기만 할 따름이다. ○ 열이 심하면 소변을 잘 보게 해야 하니 도적산(導赤散)·사령산(四苓散)을 쓰고, 열이 조금만 있으면 독기(毒氣)를 풀어야 하니 소독음(消毒飲)·사성산(四聖散)을 쓴다.

此以上二節, 論其證情而已, 別無大段緊關之事, 故不爲諺解.

이상의 두 단락은 두창 증상의 정황을 언급했을 뿐 대단하고 중요한 내용은 특별히 없으므로 언해(諺解)하지 않았다.

人家父母溺於慈愛, 任其所欲, 長其驕傲, 及患此疾, 飲食起居, 皆失宜, 又不能費令服藥, 終至不救者有之, 惜哉. 神之有無, 雖不可知, 盖想心本虛靈而今乃挾火, 故見其所不見, 聞其所不聞. 女巫籍以爲言, 國俗之信巫, 實由於此設. 若有神, 無論輕重, 皆可明言外間事, 而重者或不知, 輕者或有知, 何也. 世或有不設神床, 而好經痘疫者, 或各設床卓於房內, 以至衣服錦繡紉紉寶貨, 無不畢陳, 而終至死者, 亦有之. 又有甚焉者, 皆聽巫說, 冬月浴冷, 日夜祈禱, 而不得神助, 終失調攝, 小則爲終身之疾, 大則因病喪神. 至今痘兒行素, 一家不食肉, 終至病兒胃虛, 而致死者, 亦多. 此不可不甚也.

사람이 조식 소랑하기를 넘무 과히 하야 상시에 제하고저 하는대로 조차 일의를 너 무 바다 기르다가 혹 녀질의 다드라 음식과 기거를 제하고저 하는대로 두어 도섭 하는 도리를 일흐되 능히 제어하야 약을 머기디 못하야 못춤내 구티 못하는 니가 만 하니 브디 아히를 상시에 잘 달래여 잘 ㄱ러쳐 약을 먹게 할 써시니라. ○역질이 귀 신이 심업스믈 비록 가히 아덕 못홀 거시나 대개 싱각하니 사람의 ㅁ음이 본디 허령 혼디 이제 열을 썩시므로 그 보디 못하는 바를 보며 그 듯디 못하는 먹술 드는 거시 녀시어늘 무너드리 빙자하야 니르되 역신의 하는 일이라 하니 세상이 무당 밋는 거 시 진실로 그 열의 썩여 하는 말로 말미암음이라. 만일 신령이 이실작시면 병의 경하

며 등흔을 의논티 말고 밧것터셔 흐는 이를 붉기 다 알 새시여늘 병 등흔 자는 원아 디 못하고 경흔 재야 혹 아는 일이 이시니 이거시 반드시 열의 말일시 덕실하고 세상이 원손상 아니하고도 도히 흐느니도 잇고 혹 손상을 방안히 오로 두로 버리고 의복 비단 보화를 오로 버려느고 무궁히 비려도 종시히 죽느니가 이시니 무당을 너무 밧 디 말고 증을 싣와 약을 잘흐느니만 못하고 이에서 더 심흐니 이시니 온갖 일을 다 무당의 말을 미더 겨울 치위에도 녁슈의 모욕하고 듀야로 비다가 귀신의 도움을 얻 디 못하고 밧춤내 그 요섭흐는 도리를 일허 저근족 종신토록 병이 들고 큰족 인하여 병드려 몸을 밧츠니 부디 병개 아라 홀 새시니라.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너무 과하여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하고 교만하게 기르다가 이러한 역질(疫疾)을 앓게 되면 음식과 기거가 모두 절도에 맞지 않게 되고 능히 제어하여 약을 먹이지 못하는데, 끝내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안타깝구나. 귀신의 있고 없음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대개 생각해보자면 사람의 마음이 본디 허령(虛靈)한데 이제 화를 끼게 되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 무녀들이 빙자하여 말하는데 세상이 무당을 믿는 것은 진실로 이렇게 늘어놓는 말 때문이라. 만약 귀신이 있다면 (병의) 경중을 논할 것 없이 밖에서의 일을 다 알 것인데, 병이 중한 자는 혹 알지 못하고 가벼운 자는 혹 알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세상에는 신상(神床)을 세우지 않고도 두역(痘疫)을 잘 넘긴 사람이 있고, 방 안에 상탁을 설치한 것부터 의복·비단·보화에 이르기까지 무궁히 벌여놓더라도 끝내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또 병이 심한 자가 무당의 말을 듣고 겨울철에 찬 물로 목욕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였으나 귀신의 도움을 얻지 못해 끝내 조섭하지 못하니, 작게는 종신토록 병이 들고 크게는 그로인해 죽게 된다. 지금도 두역(痘疫)을 앓는 아이는 고기나 생선이 없이 밥을 먹고 온 집안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 끝내 병든 아이가 위(胃)가 허하여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

凡痘熱盛，故自不思魚肉，而女巫以爲僧尼之神，舉家素饌，至於老病父母，皆廢滋味。而甚者，病兒雖索魚肉，輒問於女巫，則必曰痘神故欲戲之，與喫則必危矣。痘家惶懼，不敢與小許魚肉，使氣血益虛，而變證雜出，以至難救，習俗之誤人也，如是。

夫余觀一人, 有獨子患痘, 初不至危險, 而其家有饒生肉者, 不敢自喫, 禱薦于神床之下, 日久溫房, 以致腐敗惡臭不可近. 余謂主人曰, 君家信巫俗忌, 雖不得不從, 而舉家行素, 尚或可也, 但乳母素食, 則病兒必傷矣. 主人微笑曰, 非不知君言之爲是, 而奈婦人輩論議太峻, 何哉. 請姑徐徐. 果於落痂之後, 血氣愈益虛, 似睡非睡, 不省吮乳, 數日自盡, 惜哉. 此特舉一人而言, 痘家之所宜深戒也.

물잇 역질이 열이 성하므로 자연히 어육을 싱가디 아니하는 거술 무당이 날로되 중 손님이라 하니 온집이 다 소하고 늙고 병든 어버이를 다 고기 음식을 폐하고 심흔 집은 병든 아히가 비록 어육을 달라하야도 무당의 무로면 니르디 역질 신령이 짐짓히 이치노라 그러하니 먹이면 반드시 위티하리라 니르매 황겁하야 일절 고기를 머기디 아니하야 기혈이 날로 허하야 변증이 잡출하야 구키 어려운 디경의 니르니 속기로 사람 소기는 핵가 이러툃 हु디라. 한 사람이 다만 독지 역질하느니 이서 처음은 그리 심치 아니하더니 그 집의 마줌 싱고기 주는 사람이 이서 감히 먹디 못하야 손상의 노화 비렷더니 날이 오래고 구들이 더워 그 고기 석어 사오나온내가 차마 맛디 못하거 놀 주인드려 니로디 무당을 밋기는 속기로 비록 마디 못홀 거시오 소하기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다만 젓먹이는 어미가 소톨하면 병든 조식이 상하리라. 주인이 웃고 니로디 그디 말리 올흔 줄을 아로디 녀편네 의논이 극키 어려오니 아직 날회라 하더니 과연 덕지 빠러딘 후의 조오는 듯 자는 듯 씨는 듯 하야 젓 썰기를 씨듯디 못하야 두 어날만의 죽으니 어이 앗갑디 아니하리오. 역질하느 집이 이를 슬퍼 맛당히 겁피 경계를 썸시니라.

무릇 두창(痘瘡)은 열이 성하므로 자연스레 생선, 고기를 찾지 않는데, 무녀가 이를 중귀신(僧尼之神)이라 여겨 온 집안이 채소류만 먹고 늙고 병든 어버이마저 모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병든 아이가 생선이 나 고기를 찾아도 무녀에게 물어보는데, 오로지 두창신이 놀리려는 것이므로 먹이면 위험하다고만 얘기한다. 두창 환자가 있는 집은 두려워하며 감히 생선이나 고기를 조금도 주지 않아서 기혈(氣血)을 더욱 허하게 하고 전변(轉變)된 증상이 뒤섞여 나오게 하여 구제하기 어렵게 되는데, 세속의 관습이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이와 같다. 무릇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독자(獨子)가 두창을 앓

있는데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았다. 그 집에 생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히 먹지 못한 채 신상(神床)에 놓고 제사만 지냈더니, 따뜻한 방에 오래 두었기에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썩어서 악취가 났다. 내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대의 집안이 무당을 믿어서 세속의 금기를 비록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온 집안이 채식을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모(乳母)가 채식을 하면 병든 아이가 반드시 상할 것입니다." 주인이 약간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인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어찌 하리오? 청컨대 좀 천천히 합시다." 과연 딱지가 떨어진 뒤에 혈기가 더욱 허해져서 자는 듯 안자는 듯 하다가 젖을 빨지 못하고 며칠 뒤에 죽었으니, 안타깝지 아니한가? 이는 특별히 한 사람을 들어 말한 것인데, 두창 환자가 있는 집안이라면 마땅히 깊게 경계해야 할 바이다.

1. 원간본과 중간본에 모두 '燥'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辨痘證》"傷寒、傷食、瘡疹, 證皆相似. ○傷寒, 則增寒壯熱, 口中氣熱, 呵欠, 煩悶項急. ○傷食, 則口熱, 口中醋氣, 爛瓣不消, 腹中疼痛. ○瘡疹, 則腮赤燥, 多噴嚏, 悸動, 昏倦, 四肢冷. ○昏睡喜嚏悸者, 將發瘡疹也. ○瘡疹候者, 面燥腮赤, 目胞亦赤, 呵欠煩悶, 乍涼乍熱, 咳嗽噴嚏, 足稍冷, 夜臥驚悸, 多睡. 《錢乙》○發癰證, 呵欠噴嚏, 睡中急驚, 耳尖冷, 眼澁. 《錢乙》○痘瘡, 大抵與傷寒相似, 發熱煩躁, 臉赤脣紅, 身痛頭疼, 乍寒乍熱, 噴嚏呵欠, 喘嗽痰涎. 始發之時, 有因感傷風寒而得, 有因時氣傳染而得, 有因傷食發熱嘔吐而得, 有因跌撲驚恐畜血而得. 或爲目竄口噤, 驚搐如風之證, 或口舌咽喉肚腹疼痛, 或煩躁狂悶, 昏睡譫語, 或自汗, 或下利, 或發熱, 或不發熱, 證候多端, 卒未易辨, 必須以耳冷尻冷驗之. 蓋瘡疹屬陽, 腎藏無證, 其耳與尻俱屬腎, 故腎之所部獨冷. 又不若視其耳後, 有紅脈赤縷, 爲之眞也. 《正傳》○痘疹證, 以耳冷尻冷足下冷, 及耳後有紅縷赤脈, 驗之. 然須見心胸間, 細點如粟起, 則爲眞也. 《得效》" ←

3. 《東醫寶鑑》에는 '壞'로 되어있고, 중간본에는 '小'을 '土'로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 懷證보다 壞證이 문맥상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해석하였다. ←

4.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初熱三日, 類傷寒初證. ○ 自初熱至報痘, 類傷寒六經證. ○ 六日以後, 謂之雜證. ○ 報痘次至收靨, 謂之常證. ○ 異常, 謂之變證. ○ 水痘癍疹, 謂之類證. ○ 不治, 謂之壞證. ○ 餘毒, 謂之瘰證. 《入門》" ←

5.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治法》"凡痘瘡治法, 或發, 或瀉, 或解肌, 或化毒, 涼血清肺, 調其藏府, 平其飲食, 謹其禁忌, 嚴其攝養, 適其寒溫, 使出無不快之經, 成無不痂之潰, 既愈之後, 不致遺毒, 流汗虛腠, 目疾翳膜, 瘡癰癰瘤, 喉閉咽腫, 潮熱汗泄. 此治法之大略也. 《海藏》○ 痘瘡發於肌肉, 陽明胃氣主之. 脾土一溫, 胃氣隨暢, 決無陷伏之患. ○ 諸熱不可驟去, 宜輕解之. 盖痘瘡無熱, 則不能起發, 比之種豆, 值天時暄暖則易生. 《直指》○ 凡見出遲發慢者, 根窠欠紅活者, 便當憂慮調治, 切勿袖手待斃. 《正傳》○ 瘡疹, 惟用溫平藥治之, 不可妄下, 及妄攻發, 受風冷. ○ 瘡疹, 始終未有他證, 不可下, 當用平和藥, 頻與乳食, 不受風冷, 可也. 《錢氏》○ 溫平者, 非熱劑, 如荊芥、薄荷、防風、惡實、甘草之類. 活人書鼠粘子湯、潔古解毒防風湯, 選而用之〔方見下〕. 《海藏》○ 惡實、連翹、山楂、甘草, 乃痘瘡終始必用之藥也. 《丹心》○ 首尾俱不可妄下, 但用溫涼之劑, 兼而濟之, 解毒和中安表而已. 《正傳》○ 有大熱者, 當利小便, 宜導赤散、四苓散, 有小熱者, 當解毒, 宜消毒飲、四聖散〔四方見下〕. 《錢氏》" ←

6. 두창경험방 내에는 우방자(牛蒡子)가 이명인 악실(惡實)이나 서점자(鼠粘子)로 쓰여 있는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방자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

飲食 | 음식

痘以脾胃爲主, 自始至終, 以能食爲順, 而淡食爲佳. 菉豆粥、赤豆粥、黑豆、雄猪肉(山猪尤佳)、石首魚、廣魚、鰻魚、薯蕷、海松子、胡桃、煨栗、蔓菁、蘿菔、苽菹、軟白飯、糯米粥(泄瀉可食)、蕎麥麪(起脹可食)、母酒粥、雪糕、砂糖¹

두창이 비위로 웃뜸 삼는 증이니 처음부터 맛도롭 음식 잘 먹는 거시 극키 순하니 담히 먹는 거시 더욱 도하니라. 녹두죽 적두죽 숯도탕고기(산데 고기가 더 도하니라) 조기 광어 전복 싱복 마 잣 호도 구은 밤 땃무우 씻무우 외짐치 연흔흰밥 찹쌀죽 귀 오리 7 7 모주죽 백설고 사당

두창(痘瘡)은 비위(脾胃)의 상태를 가장 중요시하는 병이니, 시종일관 잘 먹는 것을 순증(順證)으로 여기고 담백하게 먹는 것이 더욱 좋다. 녹두죽, 팥죽, 검은콩, 수태지고기(멧돼지가 더욱 좋다), 조기, 광어, 전복, 마, 잣, 호두, 군밤, 순무, 무, 오이절임, 부드러운 흰밥, 찹쌀죽(설사할 때 먹으면 좋다), 메밀가루(두창이 부풀어 오를 때 먹으면 좋다), 모주죽, 백설기, 설탕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飲食》"痘以脾胃爲主, 自始至終, 以能食爲順. 又曰, 淡食爲佳.", "痘疹宜食物 宜食菉豆。赤小痘。黑豆。雄猪肉(山猪尤佳)。石首魚。廣魚。鰻魚。薯蕷。海松子。葡萄。栗子(煨之佳)。蔓菁。蘿菔。苽菹。軟白飯。糯米粥(泄瀉可食)。蕎麥麪(起脹可食)。母酒(起脹可食)。雪糕。砂糖. 《俗方》" [↩](#)

禁忌 | 금기

謹避風寒¹, 切忌生冷, 終始謹守此戒. 又忌生梨、红柿、西茱、臘雪水、棗子、乾柿、沈水、柑子、柚子、橘²、蔥、蒜、魚、羊肉、豬肝、飴糖、鷄鵝鴨卵、醋酸、鹹、辛辣、韭、薤、生薑、香臭、惡臭. 凡燒煮油炒烟臭, 滅燭滅燈之臭, 一切不可近. 又忌房中淫慾、燒頭髮羽毛之臭、梳頭. 且禁外人僧尼巫覡, 勿入門庭, 要令內外安靜. 又忌去糞穢通溝渠生惡臭. 未發而觸, 則毒氣入心, 悶亂而死. 已發而觸, 則瘡痛如割, 以至黑爛, 切宜深戒. 父母行房、及婦人月候、醉酒、硫黃、葷穢、腥臊之臭, 一切禁之.³

금기 삼가 풍한을 피하고 일절 싱냉을 금기호디 종시히 삼가 이 경계를 덕히라. 또 금기는 비 홍시 슈박 납설슈 대초 건시 담은 물 감조 유조 굴 파 만을 물고기 양위고 기 도퇴 간 옛 닭의 알 거위알 올희 알 초 쇠것 쓴것 쓴것⁴ 미온것 부치 졸 싱강 향내 사오나온 내 일절 금기하며, 물잇 소로는 내 굽지는 내 기름의 초히는 내 내뎃 초 쓰는 내 등잔불 쓰는 내를 일절히 갓가이 말고, 방둥 음욕과 머리털과 깃과 터럭 소로는 내과 머리 빗기를 금하고 또 밧사람과 종거스와 무당을 일절히 문명의 드리디 말고 중요로이 니외를 안정케 하고 또 대변 처 브리기와 식균을 처 더러운 내를 내디 말라.

삼가 찬바람을 피하고 절대 날것과 찬 것을 금해야 하니, 이 경계를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피해야 한다. 생 배, 홍시, 수박, 납설수(臘雪水), 대추, 꽃감, 오래 담아둔 물, 홍귤(柑子), 유자, 굴, 파, 마늘, 생선, 양고기, 돼지 간, 옛, 계란, 거위알, 오리알, 신 식초, 짠 것, 매운 것, 부추, 염교, 생강, 향기, 나쁜 냄새. 일반적으로 태우거나 굽거나 기름에 볶을 때 나는 연기의 냄새와 촛불이나 등불이 꺼질 때 나는 냄새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욕(淫慾), 머리카락, 깃털, 터럭이 타는 냄새, 머리를 빗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인, 승려, 무당을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외를 안정토록 해야 한다. 또한 더러운 똥을 치우고 도

량을 정비하면서 악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아직 두창이 돋아나지 않았을 때 이상의 것들에 노출되면 독기(毒氣)가 심(心)으로 들어가 가슴이 답답하여 죽게 되고, 두창이 돋았을 때 노출되면 환부가 칼로 베는 듯이 아프고 검게 문드러질 것이니, 깊이 경계해야 한다. 부모의 성교, 월경하는 부인, 술 취한 사람, 유향, 냄새나고 더러운 것, 비린내와 누린내는 모두 금해야 한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保護》"痘瘡, 當謹避風寒" ←

2. 원간본의 글자는 '橘'로 보이고 중간본에는 확실히 '橘'로 되어있으며 두 판본의 언해에는 '귤'이라 표기되어 있다. ←

3. 《東醫寶鑑、雜病篇、小兒、飲食》"痘瘡, 忌食生冷、肥膩、鹽鹹、茶、醋、酒、葱、蒜、魚、羊肉、猪肝血、柿、棗、飴糖. 特忌雞鵝鴨卵烹食, 令兒目盲. 《入門》○勿食酸辣五辛〔葱蒜薑韭薤〕、有毒之物, 恐熱毒熏肝, 生眼中翳障. 《綱目》", 《東醫寶鑑、雜病篇、小兒、禁忌》"○痘瘡, 切忌諸般臭穢, 煎炒油烟, 父母行房, 梳頭等觸犯. 未發而觸, 則毒氣入心, 悶亂而死. 已發而觸, 則瘡痛如割, 以至黑爛, 切宜深戒. 《得效》○痘瘡, 勿親近狐臭漏腋、房中淫慾、及婦人月候、醉酒、葷穢、硫黃、蚊藥、一切腥臊、燒頭髮等氣. 《綱目》○痘瘡, 最怕穢惡之氣, 切忌外人及僧道看經往來. 盖人之氣, 聞香則行, 聞臭則止故也." ←

4. '쓴 것'에 해당하는 원문이 없다. ←

發熱三朝 | 열이 나는 3일

〔痘瘡欲出之證, 呵欠, 嘔嚏, 耳尖冷, 睡中急驚, 卒暴壯熱, 肌膚繃急.¹⁾〕

〔두창이 돋으려 할 때의 증상은, 하품하고 재채기하며 귀 끝이 차갑고 자다가 갑자기 놀라며 갑자기 심하게 열이 오르고 살갗이 땅긴다.〕

發熱之時, 似傷寒, 未辨疑似之間, 即用升麻葛根湯. 兼有咳嗽, 用參蘇飲, 兼有驚證, 用加味敗毒散解表.²⁾

역질 아닌 아기가 처엄으로 역질하는 증이 상한과 꺾티야 분변티 못흘 제 즉제 승마갈근탕을 쓰고 겹혀야 깃춤이 잇거든 숨소음을 쓰고 놀나는 증이 경풍 꺾새든 가미패독산을 쓰라.

열이 오르는 시기에는 증상이 상한(傷寒)과 비슷한데, 판별되지 않고 긴가민가할 때에는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쓴다. 여기에 기침까지 할 경우에는 삼소음(參蘇飲)을 쓰고, 경증(驚證)이 나타나면 가미패독산(加味敗毒散)으로 표(表)를 풀어준다.

熱盛發驚搐, 爲吉條, 用紅綿散煎水, 調加味六一散, 表之. 如痰涎壅盛者, 薄荷湯化下抱龍丸,³⁾ 牛抱亦當. 小兒不肯服藥, 以金銀花、忍冬藤茶, 勸呷發汗, 而終不如湯藥之爲愈也.

혹 열이 성혀야 놀라고 떠는 증은 7장 길혀니 홍면산 달힌 물의 가미육일산을 타 머기면 발표혀야 요코 담이 만히 성혀거든 박하 달힌 물의 포롱환을 타 머기라. 우황포롱환도 요혀니라. 어린 아기가 약을 즐겨 먹지 못혀거든 금은화차나 잉동차나 권혀야 머겨 발표를 혀려니와 뭇춤내 탕약을 머기느니만 꺾디 못혀니라.

열이 치성하여 놀라고 경련이 일어나면 좋은 징조이니, 홍면산(紅綿散)을 달인 물에 가미육일산(加味六一散)을 타서 발표(發表)한다. 만약 담연(痰涎)이 꼭 막혀있는 경우에는 박하 달인 물에 포롱환(抱龍丸)을 타서 먹이는데, 우황

포룡환(牛黃抱龍丸)도 좋다. 어린 아이가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 금은화나 인동등 차를 마시게 하여 발한(發汗)시키는데, 결국 탕약으로 치유하느니만 못하다.

此時, 或發驚搐, 窒塞目竄, 切勿把持, 任其所爲.

입때에 혹 놀라 떠는 증이 나서 덜식히고 눈을 우흐로 티뜨는 증이 이실디라도 일절히 잡디 말고 그 흐는 대로 두라.

이때, 놀라고 경련이 일어나서 숨이 막히고 눈을 치켜뜨게 되더라도 절대 붙잡지 말고 그렇게 하는 대로 뒹야 한다.

如此, 則急用牛黃抱龍丸、瀉青丸, 亦妙.

이러튼시 놀라고 덜식히는 때에 급피 우황포룡환 사청환 쓰미 또한 묘하니라.

이럴 때에 급히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이나 사청환(瀉青丸)을 써도 효과가 좋다.

此時, 或吐, 或瀉, 或吐瀉並作, 自此至出痘終日, 證雖苦劇, 皆不妨.

입때에 혹 토하거나 혹 설사를 하거나 혹 토하기과 설사와 흡식 나도 출두종일스키는 다 방해롭디 아니하니라.

이때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번갈아 한다면, 이때부터 두창(痘瘡)이 돋는 마지막까지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모두 해가 되지 않는다.

發熱, 欲出痘時, 或作腰痛者, 將必黑陷, 急用神解湯, 出汗, 以止痛爲度, 免出腎經之證.⁴ 壯者, 必多腰痛.

발열하야 두역이 나고져 흘 새에 허리 알르니가 이시니 허리 알키를 마디 아니하면 반드시 흑함하야 구티 못하느니 급피 신회탕을 써 섬을 내여 알티 아니커로 도수를 삼아 만히 머켜 신경 두창이 나디 말게하라. 조란 아히과 어른이 뉴로 더 동하니라.

열이 나면서 두창(痘瘡)이 돋으려 할 때 허리가 아픈 사람은 장차 환부가 검게
푹 꺼질 것이니, 급히 신해탕(神解湯)을 써서 땀을 내는데 통증이 멎을 때까지
하여 신경(腎經)의 증상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⁵ 두창 환자 중 어른에
게는 거의 대부분 요통이 나타난다.

此時, 或發熱引飲, 切勿與冷水, 或金銀花茶, 或糯米煎水, 或三豆飲, 皆可任服.

입때에 혹 열하야 인음을 흐거든 일절히 냉슈을 주지 말고 금은화차나 미 달힌 물이
나 삼두음이나 다 임의로 머기라.

이때 혹시 열이 나면서 물을 마시려 하면 절대 찬물을 주면 안 되는데, 금은화
차나 찹쌀 끓인 물이나 삼두음(三豆飲)은 모두 먹일 수 있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痘疹欲出證○呵欠○噴嚏○耳
尖冷○眼澁○睡中急驚○卒暴壯熱○肌膚繃急"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發熱似傷寒, 未辨疑似間, 且與升
麻葛根湯、參蘇飲〔二方并見寒門〕、加味敗毒散解表. 《丹心》" ←

3.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熱盛發驚搐, 爲吉候, 用紅綿散,
調加味六一散, 表之. 痰涎壅盛者, 薄荷湯, 化下抱龍丸〔方見上〕." ←

4.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發熱, 欲出痘, 作腰痛者, 急服神
解湯出汗, 以痛止爲度, 免出腎經之痘." ←

5. '腎經之證'이 신해탕(神解湯)의 方文과 《東醫寶鑑》에는 '腎經之痘'로 되어
있다. 의미는 통하기 때문에 원문에 따라 번역하였다. ←

升麻葛根湯 승마갈근탕 | 승마갈근탕

乾葛 二錢, 升麻、白芍藥、甘草 各一錢. 加荊芥穗、鼠粘子炒研、山查肉 各一錢.

건갈 두근 승마 백작약 감초 각 한 돈과 형개슈 서점즈 초연 산사육 각 한 돈을 가입하라.

건갈 2돈, 승마, 백작약, 감초 각 1돈. 여기에 형개수, 우방자(볶아서 간 것), 산사육 각 1돈을 더한다.

壯者, 以乾葛 三錢, 升麻、白芍藥 各二錢, 甘草 一錢, 用之.

조란 아히과 어른은 건갈 서 돈 승마 백작약 각 두 돈 감초 한 돈

어른은 건갈 3돈, 승마, 백작약 각 2돈, 감초 1돈으로 쓴다.

入葱白三莖、水一升三合, 煎至七合, 溫服. 連用三貼.¹

물 되 서흡의 파 흰 줄기 세흠 녀허 칠흡되게 달혀 세 복만 머기라.

총백 세 줄기와 물 1되 3흡을 넣고 물이 7흡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따뜻하게 먹는다. 연달아 세 첩을 복용한다.

¹. 《東醫寶鑑·雜病篇·寒(下)·感寒及四時傷寒》"升麻葛根湯 治溫病, 及時令感冒. 葛根 二錢, 白芍藥、升麻、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薑三葱二, 煎服. 《局方》" [↩](#)

參蘇飲 삼소음 | 삼소음

乾葛、前胡 各二錢, 半夏、陳皮、赤茯苓、桔梗、枳殼、蘇葉 各一錢, 人參、甘草 各五分.

건갈 전호 각 두 돈 반하 단피 적복령 길경 지각 소엽 각 한 돈 인삼 감초 각 오 분

건갈、전호 각 2돈, 반하、진피、적복령、길경、지각、소엽 각 1돈, 인삼、
감초 각 5푼.

加山查肉、鼠粘子炒研 各一錢. 入薑三、葱白三莖、水一升三合, 煎至七合, 溫服.
連用三貼.¹

가의 산사육 서섬즈초연 각 일전 싱강 세 편 총백 세 줄기 녀허 물 혼되 서흡의 칠흡
되게 달혀 드스게 하여 머그되 세 텃만 쓰라.

여기에 산사육、우방자(볶아서 간 것) 각 1돈을 더한다. 생강 세 쪽、총백 세
줄기、물 1되 3흡을 넣고 물이 7흡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따뜻하게 먹는다. 연
달아 세 첩을 복용한다.

¹. 《東醫寶鑑·雜病篇·寒(上)·傷寒表證》"參蘇飲 治感傷風寒, 頭痛, 發熱,
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 潮熱. 人參、紫蘇葉、前胡、半夏、乾葛、赤
茯苓 各一錢, 陳皮、桔梗、枳殼、甘草 各七分半. 右剉, 作一貼, 入薑 三片,
棗 二枚, 水煎服. 《易簡》" ←

加味敗毒散 가미패독산 | 가미패독산

柴胡、前胡、羌活、獨活、防風、荊芥、薄荷、枳殼、桔梗、川芎、天麻、地骨皮 各三分.

식호 전호 강활 독활 방풍 현개¹ 박하 기각 길경 천궁 천마 다골피 각서폰 가입 하고

시호、전호、강활、독활、방풍、형개、박하、지각、길경、천궁、천마、
지골피 각 3푼.

加紫草茸、蟬退、蘇葉、麻黃、葱白 煎服, 發表汗之. 本方除參苓, 恐助大也.²

조초용 설퇴 소엽 마황 총백을 가입호되 병세를 보와가며 분수를 가감하라.

여기에 자초용、설퇴、소엽、마황、총백을 더해 달여 먹어서 체표로 땀을 낸
다. 본방에서 인삼, 복령을 뺀 것은 화(火)를 조장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³

¹. 중간본에는 '형개'로 쓰여 있다. ←

².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加味敗毒散 柴胡、前胡、羌活、獨活、防風、荊芥、薄荷、枳殼、桔梗、川芎、天麻、地骨皮 各三分. 右剉, 作一貼, 宜加紫草、蟬殼、紫蘇、麻黃、葱白煎服, 表汗之. 本方, 除參苓, 恐助火也. 《醫鑑》" ←

³. '恐助大也'가 《東醫寶鑑》에는 '恐助火也'로 되어있다. '大'로 해석하는 경우 뜻이 통하지 않아 《東醫寶鑑》에 따라 번역하였다. ←

紅綿散 홍면산 | 홍면산

全蝎炒、麻黄、荊芥穗、天麻、甘草 各五分.

전갈초 마황 형가슈 턴마 감초 각 오 분

전갈(볶은 것)、마황、형개수、천마、감초 각 5푼.

更加薄荷、紫草茸、蟬殼, 一名加減紅綿散. 水煎服.¹

또 박하 조초 설퇴를 가입하여 물 한 되의 반 되게 달혀 두스게 하여 머기라.

여기에 박하、자초용、선각을 더하면 일명 가감홍면산(加減紅綿散)이다. 물에 달여 먹는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紅綿散 全蝎、麻黄、荊芥穗、天麻、甘草 各五分. 右剉, 作一貼, 更加薄荷、紫草、蟬殼, 水煎服. 《醫鑑》" [↩](#)

加味六一散 가미육일산 | 가미육일산

〔治熱毒太盛, 狂言煩渴, 及痘瘡紅紫黑陷.〕

열한 독이 넘우 성하야 미친 말도 하며 번갈하야 인음도 하며 두창이 흥조하며 흑함
하는 거술 다 고티느니라.

〔열독(熱毒)이 매우 치성하여 미친 소리를 하고 번열이 오르면서 갈증이 나는
것과 두창이 홍자색(紅紫色)이나 검은 색으로 변하여 움푹 꺼지는 것을 치료
한다.〕

滑石 六兩(水飛), 甘草末 六錢, 朱砂(水飛) 三錢, 龍腦 三分(另研).

활석을 슈비하야 옛날 감초 7로 옛돈 주사 슈비하야 서돈 농노 7로 서픈

활석 6냥(수비한 것), 감초 가루 6돈, 주사(수비한 것) 3돈, 용뇌 3푼(따로 갈
아둔다).

右和勻, 春秋, 以燈心煎湯調下, 夏月, 新汲水調下. 三五歲兒, 每服一錢, 十歲兒, 服
二錢. 又於發熱之初, 用加味敗毒散煎水調下, 能解毒稀痘出. 痘紅紫者, 亦效.¹

한디 화균하야 춘추여든 등심² 달힌 물의 타 머기고 하월이여든 새로 기른 정화슈의
타 머기되 세 술 다섯 술의 아히는 한 돈씩 머기고 열술의 아히는 두 돈씩 머기라. 발
열할 처엄의 가미패독산 달힌 물의 능히 독을 풀고 돛는 거시 드므느니라. 두역이 빚
치 막이 덧새 붙으면 이거시 독이니 그런 디 더욱 효험이 잇느니라.

이상을 고르게 섞어 봄가을에는 등심 달인 물로 복용하고 여름에는 새로 길어
온 물로 복용한다. 3-5세 정도의 아이는 한 돈씩 복용하고 10세 정도의 아이는
두 돈씩 복용한다. 또한 열이 나는 초기에 가미패독산을 달인 물로 복용하면
독기(毒氣)를 풀어 두창 돋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두창이 홍자색(紅紫色)을 띠
는 경우에도 효가가 있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加味六一散 治熱毒太盛, 狂言煩渴, 及痘瘡紅紫黑陷. 滑石 六兩(研水飛), 甘草(細末) 六錢, 辰砂(水飛) 三錢, 片腦 三分(另研別入). 右和勻, 春秋以燈心煎湯調下, 夏月以新汲水調下, 三五歲兒服一錢, 十歲服二錢. 發熱之初, 用加味敗毒散調下, 能解毒稀痘, 出痘紅紫者, 亦效. 《醫鑑》" [↩](#)

2. 중간본에는 '등심'으로 쓰여 있다. [↩](#)

薄荷湯 박하탕이란 거슨 | 박하탕

是薄荷三四葉, 煎水也.

박하 서너 잎풀 달힌 물이라.

이는 박하 잎 3-4개를 물에 달인 것이다.

神解湯 신히탕은 | 신해탕

〔治發熱欲出痘而腰痛者.〕

발열 해야 두창이 나고져 흠제 허리 알른 거슬 고티는 거시라.

〔열이 나면서 두창이 돋으려는데 허리가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 一錢半, 乾葛 一錢, 麻黃、白茯苓、升麻、防風 各八分, 甘草 五分.

시호 1돈 반, 건갈 1돈, 마황, 백복령, 승마, 방풍 각 팔 분, 감초 오분

시호 1돈 반, 건갈 1돈, 마황, 백복령, 승마, 방풍 각 8푼, 감초 5푼.

水煎服, 溫覆出汗. 不汗再進, 以出汗爲度. 免出腎經之痘, 此法甚奇.¹

물 혼되에 여흠되게 달혀 먹고 덥게 덥고 땀을 내되 땀이 나디 아니헝거든 땀이 나도
록 여러 복 머겨 땀 나기를 혼을 헝라.

물에 달여 먹으면서 따뜻하게 덮어 땀을 낸다. 땀이 나지 않으면 땀이 날 때까지 다시 먹인다. 신경(腎經)의 두창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데 이 방법이 매우 뛰어나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發熱三朝》"神解湯 治發熱, 欲出痘而腰痛者. 柴胡 一錢半, 乾葛 一錢, 麻黃、白茯苓、升麻、防風 各八分, 甘草 五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溫覆出汗, 不汗再進一服, 免出腎經之痘, 此法甚奇. 《醫鑑》" ←

三豆飲 삼두음은 | 삼두음

赤小豆、黑豆、菉豆 各一升, 或各一合, 甘草 五錢.

불긋 찢 거른콩 녹두 각 한 되 혹은 각 한 홑 감초 닳든 혹은 오피

적소두、흑두、녹두 각 한 되, 혹은 각 1홑, 감초 5돈.

右水煮熟, 逐日飲汁, 喫豆任意服. 已染則輕解, 未染者服之, 過七日, 永不出.¹

물의 달혀 숭늉 먹듯 튜일 그 즙을 임으로 머그면 두창을 시작하나는 경하고 아니 시작하나는 영영 아니하고 두창의 독을 열어야 논디 머기면 더 요하나라.

이상을 물에 삶아 날마다 그 즙을 마시고 콩은 마음대로 먹게 한다. 이미 전염된 경우에는 가볍게 풀릴 것이고, 아직 전염되지 않은 경우 7일 이상 복용하면 영원히 돌아나지 않을 것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預防法》"三豆飲 赤小豆、黑豆、菉豆 各一升, 甘草 五錢. 右水煮熟, 逐日飲汁, 喫豆任意服. 已染則輕解, 未染者服之, 過七日, 永不出. 《得效》" ←

出痘三朝 | 두창이 돋는 3일

始痛, 一日即發者極重, 二日發者亦重, 三日而出者例也. 或有時時遊戲而四五日, 或六七日乃出者, 是勿藥之類也.¹

처음으로 알한다 흥큰만의 나늬니는 극기 둥하고 이틀만의 나늬니도 쏘흔 둥하고 삼일만의 나늬니는 네소오, 혹 알흐락 말락 때때 놀고 나흘 닛새만의나 혹 엿새 닛웬 만이 나늬니는 약 아니햏야도 돛늬니라.

알기 시작하여 하루 만에 돌아나는 경우는 극히 위중하고 이틀 만에 돌아나는 경우도 위중하며 사흘 만에 돌아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간혹 때때로 잘 놀다가 4-5일 만이나 6-7일 만에 돌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此時, 吐瀉, 皆不足憂也. 初見顯點, 急用化毒湯.

입때에 토햏며 샏햏기는 다 근심티 아닐 새시라. 처음으로 현현히 돛는 거시 뵈거든 즉시 화독탕을 쓰라.

이때,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모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뚜렷하게 돛기 시작하면 급히 화독탕(化毒湯)을 써야 한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出痘三朝》"發熱, 一日即出痘者太重, 二日即出痘者亦重, 微微發熱, 三日後乃出痘者爲輕, 四五日身涼乃見痘者尤輕, 自出痘一日, 至二三日方齊. 凡痘出至足, 謂之出齊. 《醫鑑》" <↩>

化毒湯 화독탕 | 화독탕

紫草茸、升麻、甘草 各一錢。加白芍藥 一錢, 山查肉 七分, 蟬殼去頭足翅 五分, 糯米 百粒. 同煎, 連用五六貼, 日再服, 極妙.¹

조초용 승마 감초 각 한 돈, 가의 백작약 한 돈, 산사 육선틈를 머리 발 날개 세히 브리고, 오분 나미 백 님을 녀허 한가지로 달허 년허여 다솟 여섯 텡을 쓰되 허른 두 복식 먹으미 7장 묘허니라.

자초용·승마·감초 각 1돈. 여기에 백작약 1돈, 산사육 7푼, 선틈(머리, 다리, 날개를 떼 것) 5푼, 찹쌀 100알을 더한다. 이상을 함께 달여서 연달아 5-6첩을 쓰는데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한다. 효능이 매우 좋다.

此時, 急以乾臙脂, 調於白蜜, 塗眼眶口唇鼻孔耳孔等處, 以防痘出, 而必頻頻塗之, 每令留着, 方可得效.² 俗用砂鉢臙脂, 和朱砂, 調白蜜用之, 亦得有效云.

입때에 급피 건연지를 흰 꿀의 므라 눈 아래웃시웁과 코구멍 입시웁 귀쑤크 다 불라 써 두역 나기를 마그되 반드시 조로 불라 므양 저젓게 허여야 그 효험을 얻느니라. 혹 사발연지에 주사를 타 꿀의 므라 브르니 쏘흔 효험이 잇드라 허나 못츨내 건연지 만 못허니라.

이때에 건연지를 꿀에 개어 눈가, 입술, 콧구멍, 귓구멍 등에 발라 두창이 돌는 것을 막는데, 반드시 자주 발라서 항상 묻어있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 민간에 서는 사발연지에 주사를 섞어 꿀에 개어 쓰는데, 이 또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痘出太多毒盛, 急用連翹升麻湯, 以化毒湯之材, 加入用之, 可也. 連翹升麻湯, 卽升麻葛根湯, 加連翹一錢, 是也.³

두역 돏기를 거르기 만히 허야 독이 성허거든 급피 연효승마탕을 쓰되 화독탕의 가 입허야 쓰는 거시 묘허니라. 연효승마탕은 승마갈근탕의 연효 혼돈 가입흔 거시라.

두창이 아주 많이 돌아 독기(毒氣)가 치성하거든 급히 연교승마탕(連翹升麻湯)을 쓰고, 화독탕(化毒湯)에 가미하여 써도 된다. 연교승마탕은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에 연교 한 돈을 더한 것이다.

痘出太多, 則熱毒, 恐入眼爲害, 以鼠粘子, 不拘多少, 極細末, 調以井華水, 作餅厚, 貼額門, 以防眼患. 乾則易之, 終始貼付.⁴

두역이 만히 도드면 열이 성하야 눈의 드러 해되기 쉬오니 두역 도드면서 즉시 서점조를 7리 돈드라 정화슈의 7리 즐겨 썩갓티 하야 쉬송고 붓터 7리거든 7리 붓티기를 7리하야 하면 눈의 독이 드디 아니하느니라.

두창이 아주 많이 돌는 것은 열독(熱毒)이 심한 것인데 (열독이) 눈으로 들어가 병이 될 지도 모르니, 우방자를 양에 관계없이 곱게 가루내고 정화수에 섞어서 두껍게 떡처럼 만든 뒤 솟구멍에 붙여 눈에 병이 드는 것을 예방한다. 마르면 바꿔주면서 계속 붙여둔다.

此時, 或發驚搐窒塞者, 此則逆證也.⁵ 急用加減紅錦散數貼, 以救之. 加減紅綿散方, 見上發熱條.

입때에 혹 놀라 썰고 덜식하느 자는 이 역증이니 급피 가감홍면산 두어 텃을 써 구하라. 가감홍면산 방문은 우 발열도의 잇느니라.

이때, 혹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이 막힐 듯한 경우는 역증(逆證)이다. 급히 가감홍면산을 여러 첩 써서 구제한다. 가감홍면산 처방은 위의 '열이 나는 3일(發熱三朝)' 부분에 나온다.

此時, 腹痛者, 痘自腸胃出故也. 用蟬退湯卽止.⁶

입때에 혹 비늘 알른 거슨 두영⁷이 당위를 조차 나느 연괴니 설퇴탕을 쓰면 즉시 그치느니라.⁸

이때 배가 아픈 것은 두창이 장위(腸胃)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설퇴탕을 쓰면 증상이 바로 멎는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出痘三朝》"化毒湯 治痘出不快, 且令稀少. 紫草茸 一錢, 升麻、甘草 各五分. 右剉, 作一貼, 入糯米五十粒, 同煎服, 神效. 《得效》"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護眼》"臙脂膏 乾臙脂蜜調, 塗兩眼眶, 則痘不入眼. 《丹心》" ←
3. 《東醫寶鑑、雜病篇、小兒、出痘三朝》"連翹升麻湯 治瘡疹一發, 便密如蠶種, 或如糠粃, 毒盛者, 卽升麻葛根湯〔方見寒門〕, 加連翹一味也. 《正傳》" ←
4.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護眼》"○痘出太盛, 恐入眼爲害, 宜消毒飲〔方見上〕, 加酒炒芩連、桑白皮、草龍膽煎服, 外塗臙脂膏.", "一方○痘初出, 鼠粘子爲末, 水調, 貼顙門上, 則痘不入眼. 《蕭氏》" ←
5.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驚搐》"○先驚後痘者, 輕, 先痘後驚者, 逆. 《入門》" ←
6.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腰腹痛》"○痘疹必先腹痛. 盖痘子先自腸胃中出, 然後發於外", "○痘疹出不透, 腹痛甚, 或黑陷, 宜蟬退湯. 《得效》" ←
7. 중간본에는 '두역'으로 쓰여 있다. ←
8.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蟬退湯 | 선퇴탕

蟬退 二十一箇, 甘草 一錢半. 水煎服, 或爲末, 白湯調下. 腹痛立止而出透, 神效.¹

선퇴 스물 하나, 감초 한 돈 반을 물의 달혀 머기고 혹 7㉮ 돈드라 물근 미음의 타 머
기면 비 알키 즉시 굿치고 도든 거시 더 내픽고 신희호느니라.

선퇴 21개, 감초 1돈 반. 이상을 물에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끓인 물에 타 먹
는다. 배가 아픈 증상이 바로 멎고 두창이 돋아나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

此時, 若或大渴, 求飲不已, 用紅花子湯・烏梅湯.²

입때에 혹 크게 갈ㅎ야 물 먹기를 마디 아니ㅎ거든 홍화조탕과 오미탕을 머기라.³

이때, 갈증이 심하게 나서 물을 끊임없이 찾는다면 홍화자탕(紅花子湯)과 오
매탕(烏梅湯)을 쓴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腰腹痛》"蟬退湯 蟬殼 二十一箇, 甘草 一錢半. 右剉, 水煎服, 或爲末, 每一錢, 白湯調下, 腹痛立止而出透, 神效. 《得效》"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煩渴》"○痘渴, 宜紅花子湯, 加鼠
粘子煎服, 雖口中如烟起, 卽解. 切不可用棗湯. 若大渴者, 定中湯〔方見上〕,
和砂糖服, 立止. 《回春》○痘瘡煩渴, 乃毒火炎上也. 宜烏梅湯、甘草湯." ←

3.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紅花子湯 홍화자탕은 | 홍화자탕

卽紅花子 一合, 水煎服之.¹

다만 홍화씨 한 홑이니 물의 달혀 머키고

홍화자 한 홑이니, 물에 달여 먹는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煩渴》"紅花子湯 治痘渴, 及痘不快出. 紅花子一合, 水煎服之. 《正傳》" [↩](#)

烏梅湯 오미탕은 | 오매탕

卽烏梅 三箇, 棗豆、赤豆、黑小豆¹ 各一合, 水煎任意服之.²

오미 서 돈의 녹두 적소두 흑두 각 한 홉씩이니 그도 물의 달혀 임의로 머기라.

오매 3개와 녹두、적소두、흑두 각 1돈씩이니, 물에 달여서 마음대로 먹는다.

自此不計熱之多少, 如有熱候, 糯米煎水, 濃洗月經, 連續用之宜當.

입때로부터 열의 만흠져그물 헤디 말고 만일 열휘 잇싸든 찹쌀 달힌 물의 월경을 딴
캐 내여 년속혀야 머기미 의당헝니라.

이때부터는 열이 많건 적건 따지지 말고 열이 있기만 하면 찹쌀 달인 물에 월
경혈(月經血)을 진하게 우려내어 연달아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此時, 痘色淡白虛軟, 則恐其氣血具虛也. 化毒湯中, 更加人參、當歸酒洗 各一錢,
用之宜當.

인때³에 두창 도든 빗치 묶고 희여 허하고 연하면 그 괴운과 혈이 다 허한 일이니 화
독탕의 인삼과 쥬세 당귀 각 한 돈씩 가입혀야 쓰라.

이때, 두창의 색이 희멀겁고 속이 비어 무르면 아마 기혈(氣血)이 모두 허한 경
우일 것이다. 화독탕(化毒湯)에 다시 인삼、당귀(술에 씻은 것) 각 1돈씩을 넣
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

此時, 痘粒欲出未出, 隱暎於皮膚之間, 而其或顯出者, 色亦淡白, 痛勢不止, 則用保
元湯.

입때에 두역 도든 거시 날듯말듯혀야 가죽과 살 사이에 빗치여 쾌히 나디 아니하고
혹 난 것도 빗치 담혀야 희웁스러하고 알키를 그치디 아니하면 이는 허한 디 독이 씨
여 나디 못헝미니 보원탕을 쓰라.⁴

이때, 두창 알갱이가 돋을 듯 말 듯 해서 피부 사이에 은은하게 비치고 혹시 드러나더라도 색이 희멀거며 통증이 그치지 않는다면 보원탕(保元湯)을 쓴다.

1. 언해에 따르면 적소두, 흑두로 풀이하고 있다. 언해에 따라 해석하였다.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煩渴》"烏梅湯 治同上. 黑豆、菉豆 各一合, 烏梅 三箇. 右水煎服之. 《入門》" ←

3. 중간본에는 '입뺨'라고 쓰여 있다. ←

4.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保元湯 ○ 보원탕은 | 보원탕

人參 二錢, 嫩黃芪、甘草 各一錢.

인삼 두 돈, 황기 감초 각 한 돈이니

인삼 2돈, 황기(어린 것) · 감초 각 1돈.

加紫草茸、升麻、白芍藥酒炒 各一錢, 山查肉 七分, 蟬退 五分, 糯米 百粒, 生薑 一片, 同煎, 連用四五貼, 日再服, 快透痛止. 此方甚妙, 累試輒效.¹

조초용 승마 백작약 주초 각 한 돈, 산사육 칠분, 선퇴 오분, 나미 백립, 싱강 한 편 가
입혀야 달혀 년혀야 스오텝을 쓰되 흐르 두복식 머기면 빗최던 거시 쾌히 다 나고 알
는 거시 그치느니 이 방문이 심히 묘하니 이런 증의 쓰적마다 효험이 만히더라.

조초용 · 승마 ·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각 1돈, 산사육 7푼, 선퇴 5푼, 찹쌀
100알, 생강 1조각을 더하여 함께 달인 뒤, 연달아 4-5첩을 하루 두 번씩 복용
하면 두창이 시원하게 돋고 통증이 멎는다. 이 처방은 효과가 매우 좋은데 여
러 차례 시험할 때마다 항상 효과가 있었다.

此時, 豆色鮮紅近紫, 則此其血虛有毒, 化毒湯合四物湯用之.

인때²에 역질 도든 비치 검블그면 혈이 허흔디 독이 씨여 그러하니 화독탕의 스물탕
을 합혀야 쓰라.³

이때, 두창의 색이 선홍색을 띠면서 자줏빛에 가까우면 혈이 허한데다 독기(毒
氣)가 있는 것이니, 화독탕(化毒湯)에 사물탕(四物湯)을 합하여 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通治》"保元湯 人參 二錢, 嫩黃芪、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 一片, 水煎服. 《醫鑑》" ←

2. 중간본에는 '입땀'라고 쓰여 있다. ↩

3.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 化毒四物湯 ◦ 화독스물탕 | 화독사물탕

紫草茸、乾地黃酒炒、當歸、川芎、白芍藥酒炒 各一錢, 升麻、甘草 各五分, 入糯米 百粒, 水一升二合, 煎至半, 溫服.

조초용 간지황 주초 당귀 천궁 백작약 주초 각 한 돈, 승마 감초 각 오븐, 나미 백납을
녀허 물 되 두홑의 반 되게 달혀 머기라.

자초용, 건지황(술에 축여 볶은 것), 당귀, 천궁,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각 1돈, 승마, 감초 각 5푼에 찹쌀 100알을 넣고, 물 1되 2홑이 절반이 될 때 까
지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出痘終日 |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

此時, 或有痒證, 以木麥末, 糝於痒處, 以手按磨即止. 不效, 用敗草散, 又不效, 以滑石末¹, 調於蜜水, 以鷄羽塗之即止.² 然終不如水楊湯之奇功.³

입때에 혹 가려운 증이 잇거든 모밀 골를 곱려온 고디 만히 세코 손으로 진득진득 누르면 즉시 그치느니 효험이 업거든 패초산을 써 또 효험이 업거든 활석 골를 꿀물의 탁 닭의 깃초로 디거 조로 브르면 즉시 그치거니와 모춤내 슈양탕의 괴톡흔 공만 굿디 못흐니라.⁴

이때, 가려운 증상이 있거든 메밀가루를 가려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주무르면 가려움이 멎는다. 효과가 없으면 패초산(敗草散)을 쓰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활석 가루를 꿀물에 개어 닭 깃털로 바르면 가려움이 멎는다. 하지만 절대 수양탕(水楊湯)만큼 뛰어난 효과가 있지는 않다.

○敗草散, 卽多年蓋屋, 勿論郊草穀草, 受日月霜露風雨而極爲腐爛者, 取以爲末, 糝於痒處, 用手按磨.⁵

○패초산이라 하는 거슨 무근 집닌 거시 니새나 딴피나 헤디 말고 오래 우설과 브람과 이슬 만히 마자 마제 서거 물론 거시야 효험이 잇느니라.

패초산이란 오래 묵은 초가집 지붕이 들풀이든 짚풀이든 관계없이 오랫동안 이슬과 서리, 비바람을 맞아 매우 썩어 문드러진 것으로서, 이것을 가루내어 가려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주무른다.

且凡痘瘡, 或爪破, 或潰爛流血流汁者, 以敗草散, 皆糝之, 因以作痂差愈. 盖敗草感天地陰陽之氣, 故善解瘡毒, 亦易收斂矣.⁶

범 역철 도든 거슬 글거 손톱의 히야디거나 혹 절로 허러서 피도 흐르며 좁도 나느디를 다 패초산으로 브르면 인하야 덕지지어 흐리느니 대개 패최란 거시 텃디음양 괴운을 뽀여는 고로 창독 풀기를 잘하고 쏘흔 슈렴흐기를 수이 흐느니라.

또 대부분의 두창이 손톱으로 긁거나 헐어서 피나 진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모두 패초산을 뿌리면 그로 인해 딱지가 지고 낫는다. 대개 패초(敗草)는 천지음양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부스럼의 독기를 잘 풀고 쉽게 수렴시키기도 한다.

1. 원간본과 중간본에 모두 '未'로 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을 참조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痒痛》"痘痒難任, 宜糝敗草散〔方見下〕, 蕎麥粉, 亦好. 《綱目》", "又蜜水調滑石末, 雞羽潤瘡上, 亦止." <

3. 《東醫寶鑑、雜病篇、小兒、欲法》"痘瘡, 因氣血虛弱, 或爲風寒所剋, 不能起脹, 成漿質膿, 或枯燥陷伏, 俱宜水楊湯浴之. 《入門》",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痒痛》"痘痒, 通用蟬退湯, 痒甚, 水楊湯浴之〔方見上〕." <

4.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5.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斑爛》"多年盖屋上爛草, 曬乾細末, 糝之. 若渾身瘡爛, 則攤於席上, 令坐臥其上. 此草經霜雪雨露, 感天地陰陽之氣, 善解瘡毒. 《入門》" <

6.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斑爛》"此草經霜雪雨露, 感天地陰陽之氣, 善解瘡毒." <

水楊湯者, 슈양탕이라 하는 거슨 | 수양탕(水楊湯)이란 다음과 같다.

取溪邊大葉赤枝之楊剉之, 以大旱不斷之長流水, 猛煮, 六七沸然後, 出其水氣極熱, 用紬巾頻頻淋洗面顏, 或添湯, 久久洗之, 痒痛之處, 以紬巾蘸水, 乘熱頻頻按之, 則痒證自除. 是故必以兩器相替, 溫熱於火上, 日夜數十次, 多多益善矣. 此藥能引出毒氣, 故頂陷者皆起, 或黑陷處, 則用綿絮量其大小, 漬以此水, 乘熱貼之, 則焦黑者, 皆濕爛, 毒不入裏. 且速成就, 如其倒靨之類, 尤有奇效, 毋論輕重, 皆可用之. 春夏用葉, 秋冬用枝. 陷者自起, 痒者自止, 外治之法, 無過於此. 夏月如浴之, 先用保元湯宜, 冬月則恐觸風寒, 只洗面上與瘡爛處可也.¹

시내 7의 넓 넓고 가지 불근 버들이니 써흐러 큰 그물의도 못르디 아니하는 당뉴슈로 막이 달혀 쓸는 한김을 낸 후의 썩썩시 덥게 해야 면뎡 슈건의 즘숙 못쳐 온갖출 조조 싹기되 그 물이 모조라거든 더온 슈양탕을 텨해야 가며 싹기면 극한 효험이 있느니라. 그런고로 브디 두 그릇으로 서로 불 우히 노화 더여 밤낮업시 싹기늘 스므나믄 번 식 하면 만히 호도록 더욱 호하니라. 이 약이 능히 독기를 써 내는 고로 니마히 썩터던 것도 다 닐고 만일 혹 거머해야 썩던 고디여든 헛소옴으로 그 거머썩던 곳 대쇼를 헤야려 손바당터로 썩을 문드라 더온 슈양탕으로 즘복져서 조조 그라 붓티면 몰라 거머던 거시 다 불워 독기가 안호로 드디 아니하고 쏘흔 성취하기를 썰리 호느니 혹 갓구로 되는 뉴는 더욱 괴특한 효험이 있느니 경등을 헤디 말고 다 쓸 거시니라. 춘하의 넓플 쓰고 추동의는 가지를 쓰라. 그럽던 거시 스스로 지하고 썩디던 거시 스스로 니느니 밧그로 다스리는 약은 이에 디난 거시 입느니라. 녀름의 모욕을 감기려 호거든 문져 보원탕을 쓰미 가호니라. 겨웁은 풍훈이나 쏘일가 두려오니 다만 면상과 창난 한 곳만 시스미 가호니라.

시냇가의 잎이 크고 가지가 붉은 버드나무를 꺾어두고 심한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늘 흐르는 물을 길러 버드나무를 강한 불에 예닐곱 번 끓인 뒤에 그 물을 뜨거운 채로 명주 수건에 적셔 얼굴을 자주 씻거나 달인 물을 더 부어 오랫동안 씻어주고, 가렵고 아픈 부위는 명주 수건을 그 물에 담가서 뜨거울 때 자주 문질러주면 가려움증이 저절로 사그라든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릇 두 개를 바꿔가며 불 위에 달인 물을 데워두면서 씻기기를 밤낮으로 수십 번씩 해야 하며, 자주 할수록 좋다. 이 약은 독기(毒氣)를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두창의 꼬트머리가 꼭 꺼진 것도 다 부풀어 오르고, 혹시 검게 꼭 꺼진 부위라도 솜 적당량에 이 물을 적셔 뜨거운 채로 붙여두면 검게 말라붙은 것이 모두 축축하게 헐어서 독기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효과가 빨라서 딱지가 지지 않는 부류에는 더욱 효과가 좋으니, 병세의 경중에 관계없이 다 쓰는 것이 좋다. 봄, 여름에는 잎을 쓰고 가을, 겨울에는 가지를 쓴다. 꼭 꺼진 것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증상이 저절로 멎으니, 외용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름철에 이 물로 목욕을 할 경우에는 먼저 보원탕(保元湯)을 쓰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맞을까 우려되므로 얼굴과 부스럼이 있는 부위만 씻는 것이 좋다.

此時, 必有咽痛者, 猪尾膏少少連用, 極好. 若痛不可忍, 用如聖飲, 如痘出甚密, 則用加味犀角消毒飲, 因以解毒可也. 雖然此乃出痘終日暇也, 尙用化毒湯, 則似不暇及他, 明日用之甚善. 而猪尾膏則不拘此際.²

입새에 반드시 목알는 증이 이실 거시니 데미고를 적적 쓰는 거시 극기 요코 만일 알키를 촉아 견디디 못하거든 여성음을 쓰라. 혹 두창이 뚫기를 심히 만히 도닷새던 가미서각쇼독음을 머겨 써 그 독을 풀미 가하니라. 비록 그러하나 입새는 출두종일이니 오리려 화독탕을 쓸 거시니 겨를하야 다른 약의 밋디 못할 거시니 탐일로 기돌려 쓰미 요하리니와 데미고 굵튼거슨 역의 걸리씨디 아니할 새시니 념하야 적적 써도 요하리라.

이때, 반드시 목구멍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저미고(猪尾膏)를 조금씩 연달아 쓰면 효과가 매우 좋다. 만약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여성산(如聖散)을 쓰고, 두창이 심하게 뻥뻥이 돋은 경우에는 가미서각소독음(味犀角消毒飲)을 써서 독기(毒氣)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비록 그렇더라도 이때는 두창이 돋는 마지막 시기라서 오히려 화독탕(化毒湯)을 쓸 것이니,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不暇及他〕'는 상황과 같으므로 이상의 약들은 다음 날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저미고(猪尾膏)는 이러한 경우에 구애받지 않고 쓴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欲法》"楊柳五斤, 春冬用枝, 夏秋用葉, 洗淨搗碎, 取長流水一大釜, 煎六七沸, 去渣, 將三分之一注盆中. 先用保元湯〔方見上〕, 加川芎、桂皮、糯米煎服, 乃乘熱洗浴, 良久, 以油紙撚點燈照之, 纍纍然有起勢, 陷處有圓暈紅絲, 此漿影也. 漿必滿足. 如不滿, 又如前浴. 弱者只浴頭面手足, 勿浴背. 如燈照而無起勢, 則必添湯久浴, 使透徹肌肉, 疏通內外, 令毒氣隨煖氣而發也. 此藥升提, 開豁萬竅, 枯者轉潤, 白者轉紅, 陷伏者自起矣. 冬寒, 則溫房內浴之. 《入門》", 《東醫寶鑑、雜病篇、小兒、起脹三朝》"起體時, 漿滯不行, 頂陷不起, 或風寒所剋, 俱宜水楊湯浴之〔方見下〕. 《入門》"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咽喉痛》"痘出咽喉痛, 宜消毒飲〔方見上〕、如聖飲. 《得效》", "痘毒入藏府, 咽喉閉塞, 宜用猪尾膏〔方見下〕. 《入門》", "痘生於口舌, 瘡爛, 不能吮乳, 宜加味犀角消毒飲〔方見上〕. 《得效》" ←

猪尾膏者, 데미고는 | 저미고(猪尾膏)란 다음과 같다.

未破陰小小雄猪, 用索縛之, 以利刀裂尾尖寸餘, 以手舉其體, 以器承其血. 而若掉尾, 則其血散洒不能多得, 故以指扶其尾, 方其怒吼之時, 血不滴下, 舉之頗久, 怒弛聲絕然後, 徐徐小小點滴矣. 和以龍腦碎磨, 作丸小豆大, 溫淡酒磨服, 或用紫草煎水. 而觀其證勢輕重, 或一二丸, 或三四丸, 或五六丸, 量宜用之, 而惟氣虛者, 不宜多用, 蓋龍腦散氣太甚故也. 或不作丸, 取其凝血, 以金銀花茶, 或紫草煎水, 調均, 再入龍腦末一錢, 或五分, 隨證輕重, 量宜加減用之. 蓋猪尾無一時休息, 取振掉發揚之意也.¹

흘레아닌 샷기 수돗글 그노호로 돈돈이 미고 드는 칼로 그 꼬리 굿톨 훈치 남죽이 씹이고 손으로 그 몸을 들고 그릇소로 그 피를 받되 혹 꼬리를 흔들면 그 피 훑쓸혀 밧디 못흐니 손으로 그 꼬리를 붓드려 소리 지르는 때에는 피가 나디 아니헝다가 그 장 오래게야 성이 굿치고 소리 쓴춘 후에야 점점 적적 뿔뿔거든 농노살을 빠 환을 지오되 쫓마콤 문드라 드손 물근 술의 그라 먹거나 혹 조초 달힌 물의 따서 머그되 그 증세 경증을 보와가며 혹 한 환 두 환식 혹 세 환 네 환식 혹 다섯 여섯 환식도 쓰려니와 괴운 허흔 아히는 만히 쓰기 맛당티 아니헝디라. 농뇌 괴운 헤티기를 그장 심흐미니라. 혹 환을 짓디 말고 그 어린 피에 금은화차를 트거나 조초 달힌 물을 타서 훌훌히 흐 후의 농노글를 흐 돈이나 혹 오피이나 증세 경증을 보와가며 타서 드스게 해야 머겨도 죠헝니라.

거세하지 않은 새끼 수돼지를 새끼줄로 묶어놓고 날카로운 칼로 꼬리 끝을 1촌 가량 가른 뒤 손으로 몸통을 들고 그릇에 피를 받는다. 만약 꼬리를 흔들면 그 피가 훌뿌려져 많이 모이지 못하므로 손가락으로 그 꼬리를 붙들어서 성내고 소리 지를 때에는 피를 떨어뜨리지 않다가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성이 누그러지고 소리를 그친 뒤에 천천히 조금씩 피를 떨어뜨린다. 잘게 간 용뇌를 섞어서 팔알 만한 크기로 환을 만든 뒤 묽은 술을 데워서 환을 갈아 타 먹거나 자초(紫草) 달인 물에 복용한다. 그 증세의 경증을 살펴 한두 알 혹은 서너 알 혹은

대여섯 알정도 헤아려서 쓰는데, 오직 기(氣)가 허한 경우에는 많이 쓰지 말아야 하니 대개 용뇌가 기를 심하게 흡어버리기 때문이다. 혹은 환으로 만들지 않고 그 뭉친 피를 가지고 금은화차나 자초 달인 물에 골고루 섞은 뒤 다시 용뇌 가루 1돈에서 5푼 정도를 넣는데 증세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하여 쓴다. 대개 돼지 꼬리는 한시도 쉬지 않으니 흔들고 펼쳐 흘날리는 의미를 취상한 것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黑陷》"猪尾膏 治痘瘡, 陷伏倒靨不起發, 或毒氣入裏, 黑陷危惡者. 龍腦一錢, 刺取小豬尾尖血, 和丸小豆大, 淡酒或紫草飲化下. 熱盛則新汲水化下, 神驗. 盖猪尾無一時休息, 取振掉發揚之意也. 《活人》" [↩](#)

如聖飲 여성음 | 여성음

麥門冬、桔梗 各一錢, 鼠粘子炒研、甘草 各五分, 竹葉 三片. 水煎, 連用二三貼, 年長者, 材料貼數, 皆倍之.¹

맥문동 길경 각 한 돈 서점조 초연 감초 각 오분 독엽 세편 물의 달혀 년하야 두세 텡을 쓰되 나히 조란 아히는 지노과 텡수를 다 비히하라.

맥문동、길경 각 1돈, 우방자(볶아서 간 것)、감초 각 5푼, 죽엽 3조각. 이상을 물에 달여 연달아 두세 텡을 쓰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재료와 텡 수를 모두 배로 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咽喉痛》"如聖飲 麥門冬、桔梗 各一錢, 鼠粘子、甘草 各五分. 右剉, 入竹葉三片, 同水煎服. 《得效》" ←

加味犀角消毒飲 가미서각소독음 | 가미서각소독음

鼠粘子炒研 二錢, 甘草 一錢, 防風、升麻 各七分, 荊芥穗、麥門冬、桔梗、犀角屑 各五分. 加芩連並炒、連翹 各七分, 用之.

서점조 초연 두 돈 감초 한 돈 방풍 승마 각 칠분 형개수 맥문동 길경 서각설 각 오분
가황금 황련 다 초하고 년효 각 칠분 물의 달혀 머기라.

우방자(볶아서 간 것) 2돈, 감초 1돈, 방풍·승마 각 7푼, 형개수·맥문동·길경·서각가루 각 5푼. 여기에 황금·황련(모두 볶은 것)·연교 각 7푼을 더하여 쓴다.

犀角, 最怕火氣, 臨服調下極好, 而兒輩本不肯服藥, 則尤難調服, 同煎亦得.¹

대개 서각이 불김을 두려우는 거시니 약 머글제 타 머그면 도혀련마는 아히가 약 먹기를 즐겨 아니하니 타 먹기 더 어려오니 한 가지로 달혀 머겨도 도혀니라.

서각은 화기(火氣)를 가장 두려워하니 복용할 때 타서 먹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이들은 본래 약을 먹기 싫어하므로 타서 먹이기가 더욱 어려우니 같이 달여서 먹여도 된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解毒》"加味犀角消毒飲 治痘疹, 毒氣壅遏, 未能勻透, 及口舌生瘡, 不能吮乳. 鼠粘子 一錢二分, 甘草 五分, 防風、升麻 各三分, 荊芥穗、麥門冬、犀角(屑)、桔梗 各二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丹心》" ←

出痘時變證經驗〔두역 도돌 새에 변증이 등출제 경험한 거시라〕| 두창이 돋을 때 증(證)이 변하는 것을 경험한 사례

有七世男兒患痘，面如一片臙脂色，而痘顆隱暎於皮膚之間，或青或黑，亦不碍指。目睛上竄，咬牙太甚，無一時暫止，氣促喘急，喉間痰響，如引鉅聲。舉家蒼黃，莫保晷刻，固請醫者，願施藥治，則默視良久起而走之。余意以爲痘不碍指者，不快出也，形色青黑，目竄咬牙，皆由熱極也。用化毒湯合導赤散，亦有甘草，故代以酒芩一錢，急煎，灌下一貼卽甦。蓋化毒湯全治不快出，而導赤散滲熱於小便故也。

닐곱살의 소나히 역질하느니 이시되 늦치 한 조각 연지 쓰스 듯하고 역질 도돌 거시 분명티 안여 가족과 술 사이에 비춰여 혹 플르며 혹 거머 손의 거티디 아니하며 눈청을 우흐로 틱뚱고 니굴기를 극키 심히 하야 한 때듯 그칠 사이 업고 숨이 천급하야 혈혈하고 목안히 담소리 톱켜는 소리 곱트니 집안 사람이 창황하야 한 때를 보전티 못홀가 하야 의원을 청하야 약 머겨 다스릴 줄를 원한대 보기를 이욕히 하다가 드라 나거날 내 뵈티 헤오디 역질도돌 거시 손의 거티디 아니믄 꽤히 나디 못하미오 플르며 검고 눈을 틱쓰고 니를 7는 거손 열 극하야 그러하거날 화독탕의 도적산을 합하고 두 반문의 다 감춰 잇는 고로 한나홀 싸히고 수리 초흔 황금 혼돈으로 디입하야 급피 달혀 한 복을 브으니 즉시 사니라.

7세 남자아이가 두창을 앓는데, 얼굴이 한 조각 연지처럼 색을 띠는데 두창 돋은 것은 분명치 않게 피부 사이에 비추어서 푸른 듯 검은 듯 하며 손에 걸리지도 않았다. 눈동자는 위로 치켜뜨고 이갈이를 매우 심하게 하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숨이 가쁘고 혈떡거리며 목구멍에 가래 끓는 소리가 톱켜는 소리 같았다. 온 집안사람들이 창황하여 한 시각도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겨 의원을 불러서 약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였는데, 의원이 조용히 한참을 보다가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다. 내가 생각하기에 두창 돋은 것이 손에 걸리지 않음은 잘 둔지

않은 것이고, 색이 푸른 듯 검은 듯 하고 눈을 치켜뜨며 이를 가는 것은 모두 열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화독탕(化毒湯)에 도적산(導赤散)을 합하여 쓰는데, 두 처방에 감초가 다 있기 때문에 한 쪽 처방의 감초를 빼고 대신에 술로 볶은 황금(黃芩) 한 돈을 더 넣어 급히 달인 뒤 한 첵을 먹이니 곧 살아났다. 대개 화독탕은 잘 돋지 않은 것을 모두 치료하고, 도적산은 소변으로 열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化毒湯合導赤散 화독탕합도적산 | 화독탕에 도적산을 더한 것

紫草茸、乾地黃、木通 各一錢, 升麻、甘草 各五分. 加黃芩酒炒 一錢, 入糯米 五十粒, 同煎.

조초용 간지황 목통 각 한 돈 승마 감초 각 오분. 가황금 주초 한 돈 나미 흰밥풀 녀허 한디 달혀 머기니라.

자초용, 건지황, 목통 각 1돈, 승마, 감초 각 5푼. 여기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 1돈을 더하고 찹쌀 50알을 넣어 함께 달인다.

有一婦人, 年近三十而患痘, 痘不快出, 目竄, 氣喘, 喉痰, 用事四體不動, 爲一臥屍, 令人不忍正視. 急授化毒湯一貼, 卽甦. 問其所以然, 則皆不省, 但覺溫水自喉中流下至臍, 而恰似烟霧捲上天開日朗而已, 須更起坐喫飯, 因以全生.

한 부인이 나히 설흔 나믄의 역질흐느니 이셔 역질이 꽤히 나디 아니흐고 눈의 틱쓰고 기운이 천촉흐고 목의 담이 막켜 온 몸을 움즈기디 못햐야 한 주검이 되여시니 사람이 차마 바로 못 볼려라. 급피 화독탕 한 복을 머기니 즉시 씨거늘 엇디햐야 그러흐던 줄를 무로니 다 아디 못흐고 다만 더온 물이 목굼그로 드러 비복?지 흘러가는 줄만 알고 씨드르니 맞치 니과 안개 겹고 하늘이 열려 희가 물그니 곳다 니르코 이윅흐니 니러 안자 밥 먹고 인햐야 사라나니라.

한 부인이 서른 즈음에 두창을 앓았는데, 두창이 시원하게 돋지 않고 눈은 치켜뜨며 숨이 가쁘고 목구멍에 가래가 끼며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주검처럼 누워있으니 사람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급히 화독탕(化毒湯) 한 첵을 주었더니 바로 깨어났다. 그렇게 된 연유를 물었더니, 다 알지 못하겠는데 단

지 따뜻한 물이 목구멍으로 흘러 배꼽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뿌연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열려 해가 환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하고선 곧 일어나 앉아 밥을 먹고 완전히 나았다.

有十七歲男子, 家有痘疾, 將必染痛, 備藥以待之矣. 數日果痛, 證勢一如痘疾, 故臨證用藥, 而三四日後, 顯證如粟米起脹, 亦如期而不至肌滿. 八九日, 或自消, 或作痂而落, 厥後以痘後餘證, 數月調治而愈. 厥家以爲已經痘疫, 畧無疑慮, 自後七八朔, 忽病重而腰痛甚劇, 數日之後, 面與身上多有紅點. 不以爲疑, 而試邀余, 審察則此果眞痘也. 盖世或有再行大痘者, 而形色及證候決非他病. 故欲只用化毒湯, 則腰痛極凶, 必當用神解湯, 以汗洽爲度, 方可全生, 而欲用神解湯, 以解腰痛, 則汗亦痘出後大忌也. 反覆思惟, 莫如合而用之, 故神解湯本方中, 升麻、甘草 各用一錢, 加紫草茸、白芍 各一錢, 山查肉 七分, 蟬退 五分, 糯米 百粒, 煎用數貼. 雖似解表而不至於大汗, 仍止腰痛, 又令快出, 終無黑陷之患, 而以至全生.

열날곱의 스나히 집안히 역질이 이시니 장초 반드시 저도 허리라 허야 약물을 7초와 디령 허야 기도로더니 수일 후의 과연 알하 증세맞치 역질긋튼 고로 증을 쏘와 약을 써 삼스일 후의 뵈는 증이 맞치 좁술긋트야 붓기도 마치 역질과 긋티 호디 그리 크게 솔지게 붓든 아니호디 여드래 아흐래만의 혹 스스로 슬고 혹 덕지지어 써러디니 그 후의 역질후여증으로 수월을 도티 허야 허리니 그 집도 역질을 디낸가 허야 쥬곰도 의려하는 일이 업더니 칠팔삭 후의 훌련히 상한을 둥히 허야 허리 알키를 심히고 극키 허더니 두어날 후의 뇨과 몸의 불근 덤이 만히 도다시니 의심튼 아니호디 시험허야 청허거늘 그 증을 보니 과연 진짓 역질이러라. 다만 화독탕을 뽐 거시로디 허리 알는 증이 극키 흥하니 브디 신히탕을 써 썸을 험험피 내어야 가히 살 거시로디 썸 만히 내는 거시 쏘흔 역질 도든 후의는 극흔 금기매 달리 못허야 신히탕 본방의 승마 감초 각 8 돈으로 도도고 2초용 빅자약 각 8 돈 산사육 칠분 설텍 오분 나미 빅 넘을 가입허야 듀 텡을 쓰니 비록 히표하는 듯하나 그리 썸이 만히 아니 나되 허리 알키 긋치고 쏘 듯기를 쾌히 허야 2츄내 흑함하는 환이 업서 극키 순히 허니라.

17세 남자의 집에 두창이 돌았는데 장차 유행할 것이라고 여겨 약을 갖추고 기다렸다. 며칠 뒤에 과연 병을 앓았는데 증세가 한결같이 두창과 같아서 증상에 따라 약을 썼고, 3-4일 뒤에 드러난 증상은 좁쌀 같은 것이 부풀어 올랐는데 그 또한 두창의 시기별 증상대로였지만 완전히 부풀어 오르지 않는었다. 8-9일째에는 저절로 없어지거나 딱지가 지고 떨어졌으며, 그 뒤에 두창의 후유증을 몇 달 조치하여 나았다. 그 집안은 이미 두창을 겪었다고 여겨서 대략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7-8개월 뒤에 갑자기 병이 위중하고 요통이 극심하더니 며칠 뒤에 얼굴과 몸에 붉은 점이 많이 돋았다. 두창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시험삼아 나를 불렀는데, 내가 살펴보니 과연 진짜 두창이었다. 대개 두창을 두 번 앓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다 색과 증후가 결코 다른 병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화독탕을 쓰려는데, 화독탕(化毒湯)만 쓰자니 요통이 매우 심해서 신해탕(神解湯)을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써야만 완전히 나을 것이고, 신해탕을 써서 요통을 치료하자니 땀을 내는 방법은 두창이 돋은 뒤에는 아주 금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생각해도 합방하여 쓰는 것만 못하였기 때문에 신해탕 본방에서 승마·감초를 각 1돈씩 쓰고, 여기에 자초용·백작약 각 1돈, 산사육 7푼, 선퇴 5푼, 찹쌀 100알을 더한 뒤 달여서 여러 첩 복용케 하였다. 비록 표(表)를 푸는 듯 하지만 땀이 많이 날 지경은 아니면서 요통이 멎었고 두창도 시원하게 뜰게 하여 마침내 검게 폭 꺼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완전히 나았다.

起脹三日〔붓는사흘이라〕| 부풀어 오르는 3일

自出痘第四日也. 證順者, 已自昨日始有脹意, 先出者先起, 以次漸起, 凡痘之虛實, 毒之深淺, 全在此關.¹ 若稠密勢重, 急用神功散數貼.

역질 도든 날로부터 나흘재니 역질이 순한 자는 볼서 어제부터 붓는 괴운이 이셔 몬져 도든 거슨 몬져 닐어 차례로 점점 나느니 역질의 허하며 싯흙과 독이 깃프며 옛트미오로 입새에 이시니 만일 도든 거시 만코 세 둥흐거든 급피 싯공산 두어 텃을 뿌라.

두창이 돌아난 때에서 4일째이다. 증상이 순한 경우에는 이미 전 날부터 부풀어 오르는 기미가 있는데 먼저 돌아난 것은 먼저 부풀고 차례대로 점차 부풀어 오르니, 두창의 허실과 독기(毒氣)의 깊고 얇음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만약 두창이 뻑뻑하게 돌아서 증세가 위중한 경우라면 급히 싯공산(神功散)을 여러 첩 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起脹三朝》"起脹三朝, 毒盡浮於表. 盖痘出三日後, 當潮起脹, 先出者先起, 後出者後起, 至五六日, 毒氣盡發於表, 觀痘虛實, 變毒淺深, 全在此關." <

神功散 신공산 | 신공산

人參、黃芪蜜水炒、白芍藥酒炒、乾地黃酒洗、紫草、紅花、鼠粘子炒研 各一錢, 前胡、甘草 各五分. 加黃芩、黃連並酒炒、連翹 各七分. 或痘粒淡黑, 更加官桂 七分.¹ ○ 若證險, 用此神功散數貼後, 繼用內托散.

인삼 황기 밀슈초 간디황 조초 백작약 주세 서점조〔초연〕 홍화 각 한 돈 전호 감초 각 오분 황금 황련(병주초) 년호 각 칠분 가입하고 흑역질 도돈 거시 희미히 거른 괴운이 잇새든 다시 관계 칠분을 가입하라. ○ 흑증이 험해야 허한디 독이 잇새든 아 신공산 두어 텡 쓴 후에 니어 니탁산을 쓰라.²

인삼、황기(꿀물에 축여 볶은 것)、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건지황(술에 씻은 것)、자초、홍화、우방자(볶아서 간 것) 각 1돈, 전호、감초 각 5푼. 여기에 황금、황련(모두 술에 축여 볶은 것)、연교 각 7푼을 더한다. 만약 두창 알갱이가 엷게 검은색을 띠면 여기에 관계 7푼을 더한다. ○ 만약 증상이 위태로운 경우라면 이 신공산을 여러 첩 쓴 뒤에 이어서 내탁산(內托散)을 쓴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解毒》에 신공산(神功散)이 나오지만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처방이다. <

2.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內托散 니탁산 | 내탁산

黃芪蜜¹水炒、人參、當歸、川芎、厚朴〔薑炒〕、防風、桔梗、白芷、甘草 各一錢、木香 五分、官桂 三分。加²黃芩、黃連並酒炒、連翹 各一錢。若或淡白灰黑陷伏, 更加丁香 五分, 宜當。³

황기(밀슈초) 인삼 당귀 천궁 후박(강초) 방풍 길경 박지 감초 각 한 돈 목향 오분 관계 삼분 또 황금 황련(병주초) 년효 각 한 돈을 가입하라. 혹 몹고 희서 지빛초로 거므스러해야 써디는 듯 허거든 다시 덩향 다섯 닢을 더 가입하라.

황기(꿀물에 축여 볶은 것)、인삼、당귀、천궁、후박(생강 즙에 축여 볶은 것)、방풍、길경、백지、감초 각 1돈, 목향 5푼, 관계 3푼. 여기에 황금、황련(모두 술에 축여 볶은 것)、연교 각 1돈을 더한다. 만약 희멀겁고 잿빛처럼 거무스름하며 폭 꺼진 경우에는 여기에 정향 5푼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此時, 困頓委憊, 啼號不安者, 例證也.

이 괴탕홀 새에 곤허야 몸을 브리고 울며 보채고 편안티 아니허야 허는 거슨 네스증이라.

이때, 정신이 곤핍하고 몸이 고달프며 울면서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증상이다.

若煩渴, 用紅花子湯、烏梅湯. 二方見上出痘條.

만일 입므르고 갈허거든 홍화자탕과 오미탕을 쓰라. 이 두 방문은 이 유희 출두도를 보라.

만약 번열이 오르고 갈증이 있으면 홍화자탕(紅花子湯)과 오매탕(烏梅湯)을 쓴다. 두 처방은 위의 '두창이 돌는 3일(出痘三朝)'에 나온다.

咽痛不可忍, 口舌生瘡, 不能吮乳, 用加味犀角消毒飲. 方見上出痘條.

이 붓는 새에 목이 알파 건디디 못하야 하며 입과 혀 허러 능히 전줄 썩디 못하거든
가미서각소독음을 쓰라. 방문은 우 출두도를 보라.

목구멍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입과 혀가 헐어서 젖을 빨지 못하면 가
미서각소독음(加味犀角消毒飲)을 쓴다. 처방은 위의 '두창이 돋는 3일(出痘
三朝)'에 나온다.

若不起脹虛者, 用保元湯. 方見上出痘條. 加白芍藥(酒炒)、當歸、白茯苓 各一錢,
肉桂 五分.

이 괴탕할 새에 붓기를 잘못하고 허하니어든 보원탕을 쓰라. 방문은 우희 출두도를
보라. 가 빅자약 주초 당귀 빅복녕 각 한 돈 육계 오분 가입하야 쓰라.

만약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허한 경우에는 보원탕(保元湯)을 쓴다. 처방은 위
의 '두창이 돋는 3일(出痘三朝)'에 나온다. 그 처방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백복령 각 1돈, 육계 5푼을 더한다.

此時, 若泄瀉則大危, 急用保元湯. 方見上出痘條. 加白芍藥(酒炒)、白茯苓、白朮
、乾薑炒黑、肉桂 各七分, 臨服犀角屑 五分, 調下.

입새에 만일 설사긋하면 극키 위티로오니 급피 보원탕을 쓰되 이 방문은 우 출두도
를 보라. 빅자약(주초) 빅복녕 빅출 건강 초흑 육계 각 칠분 가입하고 머글 새에 서
각 7푼 오분을 따 쓰라.

이때, 설사를 하면 매우 위험하니 급히 보원탕(保元湯)을 쓴다. 처방은 위의
'두창이 돋는 3일(出痘三朝)'에 나온다. 그 처방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백복령、백출、건강(거무스름하게 볶은 것)、육계 각 7푼을 더하고, 복용
할 때 서각 가루 5푼을 타서 먹는다.

有十七歲男子, 當初取汗太多, 虛則可想, 而至此有泄瀉, 自曉至朝凡七度. 其家叔
父以爲痘毒太多, 而至此欲用消毒飲. 而余意則以爲毒雖多, 而氣虛則無以成就, 況
方書止瀉之藥, 無過於加入保元湯云爾. 則曰此兒自初不順, 果是命也, 論議掣肘.

而不忍其將死, 力言其可, 遂用保元湯加白茯苓、白芍藥炒、白朮土炒 各一錢, 肉桂 七分, 犀角屑 五分, 二貼, 則泄瀉即止. 厥後數日, 當膿之時, 壯熱始發, 自午後寒戰, 厚覆衣衾, 而不能自定. 斯須之後, 自言熱極, 日照雙窓而猶以爲昏乞燃燭, 至三四更後, 熱氣稍降, 始進粥飲. 如是凡累日, 以日限論之, 則已過收靨之期, 而形色淡白, 痘顆皮薄, 粘着衣衾, 一身流汁少, 或搖動則痛楚之聲, 不忍聞之. 試披衾視之, 則渾體赤爛流汁淋漓, 如獐去皮者. 然而適見其兄避痘遠出者, 抵書於本家曰, 若用消毒之劑, 則必不至此而向也, 泄瀉時, 用保元湯, 人參爲主材, 想必助熱之致也云. 故醫術不敢行, 自是袖手退坐, 十數日矣. 其在家救病之兄來言曰, 觀君用藥可謂知痘者也. 病弟則方在萬分地頭, 而長兄在外不知而言, 何足介懷耶. 此兒則謂之已死而不復可論矣, 若或有如此痘者, 則當用何樣可乎. 余答曰, 管見則欲加用保元湯耳. 對曰, 前用保元湯數貼之滓尚在, 合煎用之如何. 余答曰, 君家之病, 吾不敢擔當用藥, 而其外證則當自治矣. 其時又有疳瘡, 上脣已腐至於齒齦露出, 急用擦牙散合龍石散付之, 身上瘡爛處, 則以敗草散十數斗, 埋沒一身, 一夜之間, 盡爲成痂, 瘡爛之處, 亦自生肌. 保元湯二貼之滓, 合煎用之, 則證勢大減. 翌日又來告有效, 卽令精劑一貼服之, 則前者所患一時盡除, 以此得全.

열날곱슬 머근 스나히 역질 허느니 이서 처엄의 썸내기를 만히 허여시니 그 허허기를 가히 심각홀디라. 이 괴탕홀 때에 니르러 설샤를 호디 새베부터 아츰까지 날곱뵈을 누니 그 집 의논은 독이 만하 이러트 허따 허야 쇼독음을 쓰고져 호디 내 뵈은 독이 비록 만홀디라도 괴운 곳 허허면 역질이 성취를 못홀 썸시니 방서의 두창 설샤 고티기는 가입보원탕의 디나니 업스니 쓰라흐니 그 집이 니로디 이 아히 병이 처엄부터 순티 아니흐니 명이라 허야 의논을 덩티 못허거늘 츠마 그 장춘 주글 쏘을 보디 못허야 심베 드토와 보원탕의 빅복녕 빅자약 초 빅틀 토초 각 한 돈 육계 칠분 서각 설 오분을 녀허 두 텃을 쓰니 설샤는 즉시 그쳐써니 그 후 두어날 관롱홀 때를 당허야 장열이 니러나 오후부터 치워 썸러 옷과 니블을 두터이 더프되 능히 덩티 못허야 스스로 니로디 열허야라 하고 허가 창 의 비취여시되 오히려 어두오니 초블을 써달라 허더니 삼스경 후의 니르러 열괴운이 점점 느려 비로소 죽물을 머그니 이러트 허기를 여러 날이 되니 날 수으로 헤면 불셔 슈압디경이로디 비치 묶거 희고 부른 거시

겉질이 열워 오지 보디티 진이 흐르고 잠깐 움즈기면 알른 소리를 차마 듣디 못흘러라. 니불을 들서 보니 온몸이 벌거르고 좇물러 진이 흘러 노로 겉질 벗기니 곱더라. 마춤 그 형이 역질 피접가니 잇써니 본집의 편지를 하야시되 당초의 소독하는 약을 쓰던들 이러티 아니할 거슬 더즈음씩 설사를 썩에 보원탕을 쓰니 반드시 조열한 연괴라 하야시매 의논과 소견이 달라 약을 못벗더니 집의셔 병 구안하던 형이 와 니로되 아이 병이 만분디두의 이시니 외요 잇는 동심이 아디 못하고 니른 말리니 글란 녀말고 이 아히 병은 임의 죽게 되야시니 다시 의논티 아니하려니와 만일 혹 이러 툃흔 역질이 이실 작시면 무슨 약을 써야 고티리 하야닐 내 니로디 내 소견은 보원탕을 더 쓰리라 하니 니로디 전의 쓰던 보원탕 두 텃지가 이시니 그를 합하야 달혀 머기미 엇더하고 하야닐 내 니로디 집 병환은 내 담당하야 약을 쓰디 못하려니와 아무리커나 다스려 보다가 못하야도 이제 또 감창으로 옷 입시울이 다 서거 닛무음이 드러나시니 급피 찰아산의 농석산을 합하야 조조 브르고 온몸 창난흔 곳은 패초산을 여라른 말이나 하야 몸을 게 무더두니 흐른밤 사이에 다 덕지짓고 감창이 점점 술히 내사라 증세가 반이나 감하거늘 보원탕을 년하야 쓰니 증세가 다 하려 사라나니라.

두창을 앓는 17세 남자에게 애초에 땀을 너무 많이 내어서 그가 허한 줄을 충분히 알 만 한데,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이르러 설사를 하는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곱 번을 뉘다. 그 집안의 숙부가 이를 두창 독이 매우 심한 것으로 여겨서 이때에 이르러 소독음(消毒飲)을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 뜻은 비록 독이 심하다고 여길지라도 기(氣)가 허하면 두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하물며 방서(方書)에서조차 두창에 수반되는 설사를 멎게 하는 약이 보원탕(保元湯)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집안에서 이 아이의 병이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하니 결국 제 운명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아이가 장차 죽을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한 뒤, 보원탕에 백복령(白茯苓)·백작약(白芍藥)(볶은 것)·백출(白朮)(흙에 볶은 것) 각 한 돈, 육계(肉桂) 7푼, 서각(犀角) 가루 5푼을 더하여 두 첵을 썼더니 설사가 곧 멈추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 고름이 생기는 시기에 심한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후부터는 추위에 떨어 옷과 이불을 두껍게

덮어줘도 그칠 줄 몰랐다. 잠깐 뒤에 스스로 열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면서 햇
 별이 창을 비추는데도 오히려 어둡다며 촛불을 켜라 하더니 3-4경(更)(새벽)
 이 지난 즈음에야 열기가 점차 내려서 비로소 죽을 먹었다. 이러하기를 여러
 날이 지나니 날 수로 세어보면 이미 딱지가 지는 시기가 지났어야 하는데, 속
 에 차 있는 물의 빛이 옅고 돌아 오른 곳의 껍질이 얇아서 옷에 붙고 온 몸에 진
 물이 흐르며 혹여나 움직이기라도 하면 아파하는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할 지경
 이었다. 이불을 들쳐보니 온 몸이 벌겋고 문드러지며 진물이 흐른 것이 마치
 노루의 껍질을 벗긴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두역(痘疫)을 피해 멀리 나가있던
 그 형이 본가에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만약 소독(消毒)하는 약을 썼다면 반드
 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설사할 때 보원탕을 썼으니 인삼(人參)이 주된
 약재가 되어 반드시 열을 조장하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술을 감히
 행할 수 없어 이때부터 손을 놓고 물러나 십 수 일이 지났다. 그 집에서 병을 구
 제하던 형이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약을 쓴 것을 보니 가히 두창에 대해 잘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든 아우는 지금 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데 멀리 나가있는 맏형이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니 어찌 마음에 둘만한 말이겠
 습니까? 이 아이는 이미 죽은 몸이라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만약
 에 이러한 두질(痘疾)을 앓는 자가 있다면 어떤 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답하기를, 보견대 보원탕을 더 쓰고자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전에 썼던 보원탕을 달이고 남은 약재 찌꺼기가 있으니 그것을 합하여 달여
 먹이면 어떠합니까?" 내가 답하여 말하기를, 그대 집안의 병은 내가 감히 말아
 서 약을 쓸 수 없지만 그렇게 쓴다면 다른 증상들은 저절로 치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 또 감창(疔瘡)을 앓아서 윗입술이 이미 문드러져 이와 잇몸이 드
 러나는 데에 이르니 급히 찰아산(擦牙散)에 용석산(龍石散)을 합하여 바르고,
 몸에 상처나고 문드러진 곳은 패초산(敗草散) 십 수 말로써 온 몸을 문어두니
 하룻밤 사이에 모두 딱지가 졌고, 입술이 문드러진 곳 또한 저절로 살이 돋았
 다. 보원탕 두 첩의 약 찌꺼기를 합쳐 달여서 쓰니 증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
 음날 환자의 형이 또 와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와 온전한 약(보원탕) 한 첩을
 먹게 하였으니, 전에 앓던 병이 모두 사라져서 살아나게 되었다.

1. 원간본과 중간본에 모두 '密'로 쓰여 있으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
2. 원간본과 중간본에 모두 '如'로 쓰여 있으나 언해를 참조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
3. 《東醫寶鑑、雜病篇、小兒、起脹三朝》"內托散 活血均氣, 調胃補虛, 內托瘡毒, 使之盡出, 令易收易靨, 卽癰疽門十宣散, 加白芍藥一味也. 《精義》○ 若紅紫黑陷, 屬熱毒者, 去桂, 加紫草、紅花、黃芩. 若淡白灰黑陷伏, 屬虛寒者, 加丁香. 當貫膿而不貫膿者, 倍參、芪、當歸煎熟, 入人乳, 好酒溫服. 《醫鑑》"
↩

擦牙散合龍石散¹ 찰아산합농석산 | 찰아산에 용석산을 더한 것

白梅肉燒存性、白礬枯 各二錢半, 人中白煨 五錢, 寒水石 三兩, 朱砂 二錢半, 龍腦 二分.

백매육 소존성 백번고 각 두 돈 반 인등백 하 닷돈 한슈석 성냥 주사 두 돈 반 농노 두 분.

백매육(약성이 남을 정도로 태운 것)·백반고 각 2돈 반, 인등백(불에 달군 것) 5돈, 한수석 3냥, 주사 2돈 반, 용뇌 2푼.

右爲末, 先以韭菜根與雀舌濃煎水, 洗淨出血後, 糝付日三四五次. 爛至喉中者, 以竹筒吹入. 雖牙齒爛落, 口舌穿破, 付藥則皆愈. 但鼻梁發紅點者, 不可治. 此方乃大劑, 當其病急之時, 卒難劑, 用或三分之一, 五分之一, 分作用之宜當.

이룰 오로 7ㄱ 문드라 문져 부치불히과 작설을 훈디 농난케 달혀 그 물로 입 헌디를 조히 시스되 피나도록 씻고 약을 ㅎㄱ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조로 ㅅㄱ고 목구멍까지 드리러러새든 대통의 약을 다마 조조 불라. 비록 니가 다 서거 썩러디고 입시울이 굵기 뿌러려실디라도 다 ㄸㄱ니라. 다만 콧몰릭 불근 덤이 뵈면 고티디 못ㅎㄱ니라. 이 약이 원제로는 병이 급흔제 다 짓기 어려오니 혹 삼분지일이나 오분지일이나 논 화 지어 ㅅㄱ도 ㄸㅎ니라.

이상을 가루낸 다음 먼저 부추뿌리와 작설차를 진하게 달인 물로 헌 데를 피가 날 정도로 씻어낸 뒤에 하루에 3-5차례 가루낸 약을 바른다. 목구멍까지 문드러진 경우는 대나무관으로 약을 불어 넣는다. 치아가 문드러져 떨어지고 입과 혀에 구멍이 날 정도로 헐더라도 약을 바르면 다 낫는다. 다만 콧마루에 붉은 점이 있는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이 처방은 용량이 많아서 병이 급할 때 갑자기 조제하기 어려우니 3분의 1이나 5분의 1로 양을 나누어 만드는 것이 좋다.

此時, 以水楊湯, 日夜頻頻淋洗可也.

입때에 슈양탕으로 나지나 밤이나 즈로 씻는 거시 도하니라.

이 때 수양탕(水楊湯)으로 밤낮으로 자주 씻어주면 좋다.

此時, 痘色全白者, 由氣虛也. 用保元湯數貼, 以紅活爲度. 方見上, 加當歸、白茯苓、白芍藥(酒炒) 各一錢, 官桂 七分, 入薑 一片, 糯米 百粒, 同煎.

입때에 역질 빗치 오로 흰 거슨 기운이 허하미니 보원탕 두어 텀을 써 빗치 붉고 멧 쇠럽시로 혼을 하라. 방문은 우흘 보라. 당귀 백복령 백작약(쥬초) 각 혼 돈 관계 칠 분 성강 혼 편 나미 빅닙을 가입하야 쓰라.

이 때 두창의 색이 완전히 흰 것은 기(氣)가 허하기 때문이다. 보원탕(保元湯) 여러 첩을 두창의 색이 붉고 생기가 돌 때까지 쓴다. 처방은 위에 나오는데, 여기에 당귀, 백복령,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각 1돈, 관계 7푼을 더하고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넣어서 함께 달인다.

此時, 痘色紅紫者, 用保元湯, 加木香、當歸、川芎 各七分.²

입때에 역질 빗치 넘으 불그니어든 보원탕의 목향 당귀 천궁 각 칠분을 가입하야 쓰라.

이 때 두창의 색이 자줏빛을 띠면 보원탕(保元湯)에 목향, 당귀, 천궁 각 7푼씩을 더하여 쓴다.

此時, 痘色太紅近紫者, 由熱也. 用四物湯, 加黃芩(酒炒) 一錢, 紫草、紅花 各七分. 本方即, 乾地黃(酒炒)、白芍藥(酒炒)、當歸、川芎 各一錢也.

입때에 역질 빗치 넘우 불거 검붉기에 다드른 거슨 열로 그러하니 스물탕의 황금(쥬초) 혼 돈 초초 홍화 각 칠분을 가입하야 쓰라. 본탕은 간디황(쥬초) 백작약(쥬초) 당귀 천궁 각 혼 돈이라.

이 때 두창의 색이 너무 붉어 자색(紫色)에 가까운 것은 열 때문이다. 사물탕(四物湯)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 1돈, 자초·홍화 각 7푼씩을 더하여 쓴다. 사물탕 본 처방은 건지황(술에 축여 볶은 것)·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천궁 각 1돈씩이다.

此時, 發痒, 考諸上出痘終日條用藥.

입때에 7려온 증이 잇새든 우희 출두종일도를 상고하야 약을 쓰라.

이 때 가려움증이 있으면 위의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出痘終日)'을 참고하여 약을 쓴다.

此時, 若痛楚不可忍, 則白芍細末 每一錢, 淡酒調下, 以黃土細末, 滲於痛處可也.

입때에 만일 역질 도든디 알키를 심히 건디디 못하게 알커든 백작약을 7늘게 7르 몬드라 묶고 물만흔 술의 혼 돈식 타 머기고 황토를 7는 7르 몬드라 알론 고디 싸 하면 돛느니라.

이 때 만약 통증이 심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백작약을 곱게 가루내어 약한 술에 1돈씩 타서 먹고 황토를 곱게 가루내어 아픈 부위에 뿌리면 좋다.

1. 《東醫寶鑑·外形篇·口舌·口舌瘡糝付藥》"龍石散 治口舌生瘡, 咽噤腫塞. 寒水石 三兩, 朱砂 二錢半, 片腦 二分. 右爲末, 糝患處, 日三五次."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通治》"保元湯 五六日, 氣盈血弱, 色昏紅紫, 宜加木香、當歸、川芎." ↩

貫膿三日 | 고름이 잡히는 3일

〔七日面顏浮氣益加, 此則例也. 而八日浮氣稍減, 亦能開眼, 喉痛亦少愈也.〕

〔(두창이 돋은 지) 7일째가 되면 얼굴의 부기가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8일째에 부기가 점차 줄어들면 눈을 뜰 수도 있고 목구멍이 아픈 증상 또한 조금 줄어든다.〕

自出痘至六七日, 乃貫膿之初, 而凡痘順者, 必先期一日而成就, 故第六日痘顆色白, 已有向膿之漸. 蓋貫膿之時, 脾胃主之, 土色發於外而黃也. 漿行疱裏肌滿色黃, 或蒼蠟色, 或黃綠色者吉. 若色淡者虛也, 急用保元湯加白茯苓、白芍藥〔炒〕各一錢, 乾薑七分, 肉桂五分, 糯米五十粒, 連用四貼, 日再服可也.

출두로부터 엿새 날워면 관농흔는 처엄 날이니 그 두역이 순흔 자는 반드시 홀리나 전긔햐 성취흔는 고로 역질 도단디 엿셋만이면 빗치 희우스러햐 불셔 곰기는 점이 잇느니 대개 관롱홀 때에는 비위 주흙으로 비위 빗치 밧씩 밧햐 누루러 장즙 이 부른 소긔 햏햐 술지고 빗치 누르고 혹 프른 밀빋 ㅈ트며 혹 누루러 프르러흔 자는 길햏거니와 만일 혹 빗치 몹고 장즙이 저근자는 햏햐 그러햏니 급피 보원탕 의 빅자약(쥬쵸) 빅복녕 각 햏 돈 건강 칠븐 육계 오븐 나미 원 납을 가입햏야 년햏 야 네대얏 복이나 쓰되 햏로 두 복식 머기미 가햏니라.

두창이 돋은 지 6-7일째면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때인데, 두창의 증세가 가벼운 경우는 반드시 하루 먼저 이루어지므로 6일째에 두창의 색이 하얗게 되어 이미 곱으려 하는 중이다. 대개 고름이 잡히는 때에는 비위(脾胃)가 주관을 하므로 토(土)의 색이 나타나서 누렇게 된다. 진물이 수포 속에 있으면서 살이 부풀어 올라 누런빛을 띠는데 푸른 밀랍색을 띠거나 황록색을 띠면 예후가 좋다. 색이 붉은 경우는 허증(虛證)이니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백복령·백작약〔볶은 것〕각 1돈, 건강 7푼, 육계 5푼, 찹쌀 50알을 더하여 쓰되 연달아 네 첵을 하루 두 번씩 먹이면 좋다.

此時, 或吐, 或瀉, 或吐瀉並作, 大危也, 急用定中湯.¹ 其方, 卽眞正黃色土不雜砂石者, 一塊如拳大, 置諸砂椀中, 以百沸湯, 方其沸時, 瀉之於椀中土塊上. 豫備厚紙及蓋子, 置于椀傍, 急急以紙覆之, 仍舉蓋子合定, 勿泄其氣. 良久之後, 待其椀中之水稍稍向冷, 適中可飲之, 除去蓋與紙, 泄出兩酒盞許, 入水飛石雄黃末一錢, 水飛朱砂末五分, 和砂糖屑, 服之. 不效, 二服三服, 必效矣.² 所謂酒盞者, 俗所謂接盞, 今之燒酒盞也. 蓋此時脾胃主之, 而敗證如此則禍不旋踵, 宜急治之.

입때에 혹 토하거나 혹 사하거나 혹 토새 흙식나거나 하면 극키 위턱하니 급피 덩등탕을 쓰라. 그 방문은 진짓 정누론 비치 흙이 모래 석씨디 아니하니로 주먹만 한 덩이를 큰 사발 안희 노코 빅비탕을 막 쓸흘저긔 사발 가운데 흙덩이 우희 싯터 부으되 듯거온 죠히과 두에를 사발 겹터 듯다가 급급피 죠히로 덮고 그 우희 두에를 돈돈 덮퍼 그 괴운을 내디 말기를 7장 이육이 혼 후의 사발 가운데 물이 점점 식기를 기두려 덩등이 머검죽이 되거든 두에와 죠히를 벗기고 그 물을 두 잔만 쏘다쳐 슈비흔 석웅황 7근 혼 돈 슈비흔 주사 7근 오븐과 사당 7근를 타 머커 효험이 업거든 두 복세 복만 먹이면 반드시 듯느니라. 대개 입때에 비위 괴운이 요화야 흘 거술 사은나온 증이 이러톈 하면 죽시 가머디 아닐거시니 맛당이 급피 다스릴디라.

이 때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함께 하거나 할 경우는 매우 위험하니 급히 정중탕(定中湯)을 쓴다. 그 처방은 다음과 같다. 섯노란 흙에 모래나 돌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주먹만 한 덩어리를 사발 안에 넣고 끓는 물이 팔팔 끓을 때 사발 속의 흙덩어리에 붓는다. 두꺼운 종지와 뚜껑을 사발 근처에 준비해 뒀다가 빨리 종지로 덮고 뚜껑을 덮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 사발 속의 물이 점점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만한 정도가 되면 뚜껑과 종지를 벗기고 물을 술잔(酒盞)으로 두 번 정도 따라서 수비(水飛)한 석웅황 가루 1돈, 수비한 주사 가루 5푼과 섯탕가루를 넣고 먹는다. 효과가 없을 경우 두세 번 먹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술잔은 민간에서 접잔(接盞)이라 부르는 것으로 지금의 소주잔에 해당한다. 대개 이때는 비위(脾胃)가 주관하는 시기인데 안 좋은 증후가 이정도이면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니 급히 치료해야 한다.

此時, 宜以銀鍼刺之, 橫貫痘顆, 則汁自流出極妙極妙. 蓋痘氣外泄, 故稍知人事之兒, 則請益刺破, 而然亦不可一時盡刺者, 恐其泄之太過而氣爲之虛也, 一日三時刺破可也. 然擇其肌脹充滿者刺之, 刺後漿水即滿, 故一處數三刺, 漿水將自盡矣. 無銀則竹鍼亦可. 漿水即濃汁也.

입때에 맛당히 관롱하니를 굴하야 은침으로 7로써여주면 장즙이 스스로 흘러나니 극키 묘하니라. 대개 두창 곰긴 괴운이 밧그로 나매 준디마다 7장 식현하매 저기 인스 아는 아히는 청하야 더 썩라 하나 그러하나 흠때에 다 썩디 못홀 거시니 그 썩기를 넘우하면 괴운이 허홀가 저허호미니 흐르 세 빼식 주어 썩는 거시 가하니 브디 미요 탕하여 곰기니를 굴하야 썩 후의 장즙이 즉시 도로 못는 고로 한 곳을 두세 번 주면 장즙이 스스로 진하느니라. 은침이 업거든 대침이라도 가하니라.

이때에는 은침(銀鍼)으로 찔러서 두창을 옆으로 꺾뚫으면 진물(漿水)이 저절로 흘러나오니 효과가 매우 좋다. 대개 두창의 독기(毒氣)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차 의식을 되찾아가는 아이라면 더욱 은침으로 찔러 터뜨려야 하지만, 또 한 번에 다 찌를 수 없는 까닭은 독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지나쳐서 기(氣)가 허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니, 하루에 세 번 정도 찔러서 터뜨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살이 부풀어 오르고 진물이 가득 찬 것을 골라 찔러야 하고 찌른 뒤에 진물이 바로 차오르기 때문에 한 곳을 두세 번 찔러야만 진물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은침이 없으면 대나무침(竹鍼)을 써도 좋다. 진물(漿水)은 수포 속의 짙은 즙(濃汁)을 말한다.

此時, 必發痒證, 頻以水楊湯乘熱, 點洗可也. 或有痒甚不可忍, 一一爪破者, 後必癰痕, 以細巾裹手指, 就其痒處按之. 甚緊則或有顆粒自破汁出者, 亦不妨矣.

입때에 반드시 7려온 증이 나느니 조조 슈양탕으로 많이 덥게하야 슈건의 무터 놀러 씻기면 묘하니라. 혹 7려기 심하야 차마 견디디 못하야 손뎌으로 뜯더 헌디는 후의 반드시 허무리 되느니 7는 슈건으로 손가락의 가마 7려온 고돌 진득진득 누르면 7려온 곳도 낫고 혹 터더 즙이 날 디라도 방해롭디 아니하니라.

이때는 반드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수양탕(水楊湯)을 뜨겁게 하여 그것으로 가려운 곳을 자주 눌러서 씻어주면 좋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가려워 하나하나 손톱으로 뜯은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흉이 지는데, 고운 수건으로 손가락을 감싸서 그 가려운 곳을 눌러준다. 매우 부풀면 두창 돋은 것이 저절로 터져 진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또한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此時, 熱候必盛, 連用月經, 間用猪尾膏, 以降熱可也.

입때에 열화가 반드시 만홀 거시니 년하야 월경을 쓰고 스이스이 데미고를 써 열을 내리오미 가하니라.

이때는 열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월경수(月經水)를 연달아 쓰고 중간 중간에 저미고(猪尾膏)를 써서 열을 내리는 것이 좋다.

此時, 氣血大振, 毒漿充滿,³ 故頭平頂陷者皆起, 而稠密⁴ 證險者, 雖不盡起, 亦無大段所妨.

입때에 기혈이 오로모 화독헌 즙이 7독하얏는고로 역질 곳티 편하고 새던 거시 다 날거니와 만히 듯고 증이 험헌 자는 비록 다 니디 아니하야도 비치 도하면 대단히 방해로운 일이 업느니라.

이때는 기혈(氣血)이 크게 일어나 독기를 품은 진물이 가득차기 때문에 두창 끝이 밋밋하거나 폭 꺼진 것이 모두 돌아 오르지만, 두창이 촘촘하게 나고 증세가 심한 경우는 다 돌아 오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此時, 瘰⁵ 瘡飛痘之類, 則不待日限, 而已自焦乾色黑成痂.

입때에 좌창 비두 뉴는 일흔을 기도로디 아니하야서 임의 스스로 몰라 비치 거머 덕 지짓느니라.

이때에 좌창(瘰癧)이나 비두(飛痘)⁶와 같은 종류는 기한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저절로 말라서 검은빛을 띠고 딱지가 진다.

此時, 毒盛熱劇, 氣弱聲啞者, 宜用解毒防風湯數貼可也.⁷

입때에 독이 성하야 열이 극하고 괴운이 약하야 소리가 병어리? 툇 자는 맛당히 히
독방풍탕 두어 텃을 써 독을 헤티미 가하니라.

이때 독기(毒氣)가 치성하여 열이 극렬하고 기(氣)가 약하여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독방풍탕(解毒防風湯)을 여러첩 쓰는 것이 좋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貫膿三朝》"胃病則不能貫膿成就, 或致吐瀉陷伏, 宜用定中湯〔方見下〕. 《回春》",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嘔吐》"吐瀉并作, 宜用定中湯. 《回春》"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嘔吐》"定中湯 收斂胃氣, 止吐瀉, 神妙. 取真正黃色土不雜沙石者一塊, 置塊內, 以百沸湯泡之, 以蓋合定, 候溫. 右用兩酒盞, 和水飛朱砂末五分, 水飛雄黃末一錢, 少加砂糖, 溫服. 二服立止. 《回春》" ←

3. 《東醫寶鑑、雜病篇、小兒、貫膿三朝》"氣血大振, 毒漿已滿, 將欲收斂之時也." ←

4. 원간본과 중간본에 모두 '蜜'로 쓰여 있으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

5. 痘: 疔+剗 ※원문 ←

6. 《東醫寶鑑、雜病篇、小兒、出痘三朝》"頭面上, 忽生三五箇, 或只一箇, 高大紫黑, 儼似疔痘者, 名曰飛痘, 此最輕. 或只此一痘, 再不生痘. 《入門》" ←

7. 《東醫寶鑑、雜病篇、小兒、貫膿三朝》"痘七日後, 壯熱毒盛, 氣弱聲啞, 宜用解毒防風湯〔方見上〕." ←

解毒防風湯 히독방풍탕 | 해독방풍탕

防風 一錢, 地骨皮、黃芪、白芍藥、枳殼、荊芥穗、鼠粘子(微炒) 各五分.¹ 加麥門冬、桔梗 各一錢, 連翹 七分, 木香 五分.

방풍 한 돈 디골피 황기 백작약 지각 형개수 셔점즈(미초) 각 오분. 가입 맥문동 길경 각 한 돈 년효 칠분 목향 오분이니라.

방풍 1돈, 지골피, 황기, 백작약, 지각, 형개수, 우방자(약간 볶은 것) 각 5푼. 여기에 맥문동, 길경 각 1돈, 연교 7푼, 목향 5푼을 더한다.

此時, 忽成黑痢, 氣促悶亂, 而錯認爲收壓, 不會動念, 以至難救者, 往往有之, 不可不詳審處置也.

입때에 홀연히 거른 덕지 짓고 괴운이 천축하고 민망하야 어즈러워 하는 거슬 그릇 슈압하는가 하야 일죽 동념 아니하얏다가 구티 못하는 재 왕왕의 이시니 가히 조서히 슬퍼 처치를 아니티 못할 거시라.

이때 갑자기 검게 딱지가 지고 숨이 가쁘며 가슴이 답답하여 어지러운 것을 딱지가 앉는 시기로 착각하여 미리 신경 쓰지 않다가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세히 살펴서 처치를 해야 한다.

古方有曰, 此時, 九竅, 慎宜封閉, 飲食藥餌, 極忌寒涼疏散之物, 若滿脾胃, 則清氣下陷, 不能貫臍,² 此說誠是. 雖然, 余觀痘疫多至數千人, 而必於此時, 熱盛者居多, 每以月經間用, 以豬尾膏量宜連用, 而輒見其效. 無乃病情與古有異而然耶. 若膠守此說, 而不用寒涼之藥, 則熱何由降而病何由痊乎. 惟其熱盛而變證隨出, 不日而死, 及其證變, 而已至於無可奈何之地然後, 雖有百倉扁, 亦何以投藥責效乎. 誠可慨然也, 亦不可不詳審變通也.

고방이 니로디 이 관농홀 때에는 구구를 삼가 맛당히 붓페 하고 음식과 약물룰 한냥 하고와 담흔 거술 극키 금기하라. 만일 춘 기운이 비위에 돕니 물근 기운이 하함하야 능히 관농을 못하느리 하여시니 이 말이 진실로 옳커니와 비록 그러하나 내 역질고 티기를 수천 사람이나 호디 반드시 이 관농하느 때면 열이 성하느니 가만하매 만약 월경을 스이스이 쓰고 데미고를 적적 년하야 쓰니 그 허험보느니가 만하니 일로 볼 작시면 병정이 네과 달라 그러하가. 만일 이 말을 붓디키고 한냥하 약을 쓰디 아니하면 열이 었디 말미암아 느리며 병이 었디 말미암아 헝리이오. 다만 열이 성하야 병증 이 날이 못디 못하야서 죽느니가 만하니 그 증이 변하야 홀일 업슨 디경의 간후의논 비록 창편박시 이셔도 잇디약을 써 효험을 칙하리요. 진실로 애도로니 또한 가히 조서히 슸퍼 변통티 아니티 못홀 거시니라.

옛 방서(方書)에서 '이때에는(고름이 잡힐 때에는) 구구(九竅)를 잘 틀어막고 음식과 약을 쓸 때 한량(寒涼)하고 담백한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데, 만약 비위(脾胃)를 상하면 맑은 기운이 아래로 꺼져서 고름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진실로 옳다.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두창 환자를 많이 보아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반드시 이때가 되면 열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월경수(月經水)를 간간히 쓰고 저미고(猪尾膏)를 적절히 이어서 쓰니 항상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병정(病情)이 옛날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말을 고수하여 한량한 약을 쓰지 않으면 열을 어떻게 내리고 병을 어떻게 낮게 하겠는가? 다만 열이 심하여 병증(病證)이 변하여 나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니, 병증이 변하여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에는 창공(倉公)과 편작(扁鵲)이 백 명 있다한들 어떻게 약을 써서 효과를 보겠는가? 진실로 애처로우니 또한 자세히 살피서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다.

有一士人, 年三十餘而患痘者, 當此貫膿收靨之交, 熱勢極熾. 其族人來問於余, 答以攻火莫如水治, 多用月經以快爲度可也. 厥家親屬有曰, 月經本不載古方, 而況某也本昧醫術, 何以知九竅慎宜封閉切忌寒藥之方乎, 又安知七日後當補之法乎. 因勸用六君子湯, 發熱裸身躍出, 而使人拘執, 終不用一點涼藥, 以至於不救, 惜哉惜哉. 凡痘家以此爲戒可也.

흔 선비 옛사람이 역질¹하느니 이서 관롱 슈압²하느니 소이를 당하야 열기 극키 청하느니 그 권당의 사람이 와 못거늘 불티기는 물로 다스릴만 곳디 못하느니 월경을 만히 코케 토록 쓰미 율타하네 그 집 권당이 니로디 월경이란 거슨 본디 고방의 업슨 거시요 아모는 본디 의술을 모로니 엇디 구규 봉폐³하기를 삼가며 낭약을 일절 금기⁴하느니 방문을 어이 알며 또 엇디 역질도든 칠일 후면 낭약을 쓰디 아니하고 맛당이 보하느니 법을 알리요 하고 인하야 육군자탕⁵을 권하야 쓰니 열이 니러나 몸을 벗고 뺨여내드르니 사람으로 하여곰 붓드려 자밧고 뭉춤내 혼 덤 낭약을 쓰디 아니하야써 구티 못하느니 역질하느니 집이 일로써 경계를 사밧미 가하니라.

30세 정도 되는 선비가 두창을 알았는데, 고름이 잡히고 딱지가 앉는 즈음에 열이 매우 치성하게 올랐다. 그 집안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었는데, 화(火)를 치는 것은 물로 다스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월경수(月經水)를 상쾌해질 정도로 많이 쓰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 그 집안의 어떤 친척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월경수는 원래 옛 방서(方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고, 더욱이 내가 원래 의술을 모르는데도 어떻게 구규(九竅)를 틀어막아야 하고 찬 약을 절대 금해야 한다는 방법을 알겠으며 또한 두창이 돋은 지 7일 뒤에는 마땅히 보(補)해야 하는 법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로 인해 육군자탕(六君子湯)을 억지로 쓰자 환자가 열이 나고 알몸으로 뒹쳐나가는데, 사람들에게 붙잡도록 해서 끝내 찬 약을 조금도 쓰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게 됐으니 애석하다. 대체로 두창 환자가 있는 집안은 이러한 사례를 규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出痘三朝》"解毒防風湯 凡痘出速且密, 或七日後, 壯熱毒盛, 氣弱聲啞, 此藥主之. 防風 一錢, 地骨皮、黃芪、白芍藥、枳殼、荊芥穗、鼠粘子 各五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易老》" [↩](#)

2. 《東醫寶鑑·雜病篇·小兒·貫膿三朝》"貫膿時, 九竅慎宜封閉, 飲食藥餌, 極忌寒涼疏散之物. 若傷脾胃, 則清氣下陷, 不能貫膿也. 《入門》" [↩](#)

收靨三日 | 딱지가 앉는 3일

自出痘至第九日十日, 稍稍焦黑成痂時也.

역질 듯기로부터 아흐래열흘의 니르면 점점 물라 거머더 지짓는 때라.

두창이 돋은 지 9일, 10일째는 두창이 점점 마르고 검어져 딱지가 생기는 시기이다.

此時, 必有大熱, 盖自出痘至第八日午後, 或至九日十日, 或煩熱, 或氣促喘急, 或悶亂, 或引飲異常, 隨其輕重而遲速不同, 火熱內熾, 則一也. 必豫備糯米飲、月經、猪尾膏等藥, 隨量痛飲, 惟以爽快爲度可也. 若不降, 此熱則輾轉生別證, 終不能救, 不可不慎也. 或有證勢輕者, 不必生熱, 雖然, 發熱者, 十常八九, 其不發熱者, 幸矣.

이 슈압할 때에 반드시 대열이 잇느니 대개 역질난 날로부터 여드래만의나 혹 알흐래 열흘의 니르러 혹 번열하며 혹 기운이 올라 천급하며 혹 민망하여 어즈러워하며 혹 갈하여 인음하기를 상히셔 달리힐 거시니 그 열의 경하며 중함을 쏘와 더디며 색르미 다르디 아니하나 화열이 안호로 달기는 험가지니 반드시 나미 음월경과 테미고 등 약을 미리 출려 두엇다가 먹는데로 만히 머겨 기운이 상쾌하기로 험험미 가험니라. 만일 이 열을 느리오디 못하면 던던하여 별증이 나셔 ㅁ춤내 구티 못힐 거시니 가히 삼가디 아니티 못힐 거시라. 증세 경한 자는 혹 열이 나디 아니험느니라 잇싸니와 비록 그러하나 열이 나는 자는 열히 여덟 아홉이나 험고 열이 아니나는 자는 드므니라.

이때 반드시 열이 심하게 나는데, 대개 두창이 돋은 지 8일째 되는 날 오후나 9, 10일째 되는 날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오르거나 호흡이 가쁘고 혈떡이거나 가슴이 갑갑하고 어지럽거나 평소와 다르게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니, 열의 경중(輕重)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가 같지 않지만 화열(火熱)이 속에서 치성하기는 매 한 가지이다. 반드시 찹쌀미음·월경수(月經水)·저미고(猪尾膏) 등의 약을 미리 갖추어서 증세에 따라 먹이되 상쾌해질 때까지 먹이는 것

이 좋다. 만약 열을 내리지 않으면 이 열이 변해 다른 병증(病證)이 생겨 끝내
구제하지 못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반드시
열이 나지 않기도 하는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열이 나는 경우가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이고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다행일 것이다.

此時, 必有臂脚手足之痛, 盖面部既已成就, 故手足方欲肌脹成膿, 而浮氣益加之致
也. 元非別證而人家以爲憂, 不知故也.

입때에 팔과 다리와 손과 발 알른 증이 이시니 대개 느치 임의 거문 딱지 짓는고로
손과 발이 부야흐로 脹하야 곰기고져 호매 붓는 기운이 더하미오 본디 별증이 아닌
거술 역질하는 집이 일로써 근심하니 이 연고를 아디 못호미라.

이때 반드시 팔다리와 손발이 아픈 증상이 있는데, 대개 얼굴에는 이미 딱지가
앉았기 때문에 손발은 이제 막 부어오르고 끓으려 해서 붓기가 더 심해진 것이
다. 원래 특별한 증상이 아닌데 두창을 앓는 환자의 집안에서 근심하니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此時, 或有白睛之上紅絲散漫, 中有凸出之狀者, 痘出而然也. 仍爲翳膜, 犯於黑睛
而成白點, 氣血既復之後, 雖有勿藥之喜, 而豈可信其自愈而不急治乎. 鼠粘子作細
末, 和於井華水, 作餅, 貼付額門上, 日再易.¹ 連用三豆飲, 以差爲度.

이 슈압하는 때에 눈 흰조의 우이 불근실 7촌 거시 두로 펴디고 가온대로 도라나미
는 거손 역질이 나서 그러하는 거시니 인하야 예막이 되여 거문 조의에도 범하야 흰
덤이 되얏싸가 기혈 소복하 후면 자연히 하릴 적도 잇거니와 엇디 그 스스로 하리기
를 밋고 급피 디스리디 아니하리오. 셔점조를 7는 곶를 몬드라 정화슈의 빠서 존 썩
터로 몬드라 섯구무 우히 붓터 므르가든 즈니르 7라 부티기를 하르 두 세번식 하고
년하야 삼 두음을 머겨 하리기로 혼을 사마하라.

이때 간혹 흰자위에 붉은 핏줄이 두루 퍼져있고 가운데에 튀어나온 것이 있는
경우는 두창이 돋으면서 그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예막(翳膜)이 되고 눈동자
까지 침범하여 흰 점이 생겼다가 기혈(氣血)이 회복된 뒤에는 약을 쓰지 않아

도 낮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찌 저절로 낮는 것만 믿고 급하게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방자(鼠粘子)를 곱게 가루내어 정화수(井華水)에 개서 떡처럼 만든 다음 솟구멍에 붙이고 하루에 두 번 바꿔준다. 이어서 삼두음(三豆飲)을 나올 때까지 꼭 쓴다.

此時, 有泄瀉者, 或赤白痢者, 皆瀉熱而發也. 果若瀉熱而發, 則數日之後, 自至差歇, 不必用藥也. 如其氣血俱虛, 熱乘其隙而發, 則日將加重, 終至難治. 急用保元湯〔方見上〕加入白芍藥〔微炒〕、白茯苓、白朮〔土炒〕各一錢, 肉豆蔻煨、肉桂、黃連〔酒炒〕、乾薑〔炒〕各七分.

입때에 설사하는 자도 있고 혹 적백니하는 자도 이시니 다 열을 사하노라 나시나 과연 열을 사하랴 나시면 약을 쓰디 아니하야도 요흐려니와 만일 기혈이 다 허한 때에 열이 그 소이를 타 나시면 날로 더 등하야 뭇춤내 구키 어려울 거시니 급히 보원탕의 백자약 약미초 백복령 백퉁 토초 각 한 돈 육두구외 육계 황련 주초 각 칠분 가입하야 쓰라.

이때 설사를 하거나 적백리(赤白痢)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모두 열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말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며칠 뒤에 저절로 나아질 것이니 반드시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기혈(氣血)이 모두 허한데 열이 그 틈을 타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끝내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다. 급히 보원탕(保元湯)(처방은 위에 나온다.)에 백작약(약간 볶은 것)、백복령、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각 1돈, 백두구(젓불에 묻어 구운 것)、육계、황련(술에 축여 볶은 것)、건강(볶은 것) 각 7푼을 넣은 약을 쓴다.

此時, 手足臂脚所出之痘, 方始肌脹充滿, 鍼刺出汁可也. 刺破之法, 詳見上貫膿條.

입때에 손과 발과 팔과 다리에 도든 역질이 비야흐로 비탕하야 즙이 7독하야서 이 알힐 거시니 침으로 주어 그 즙을 내는 거시 요하니라. 침 주는 법은 우관농 도를 보라.

이때 손발과 팔다리에 두창이 돋는 것은 이제 막 부어올라서 진물이 차려는 것이니 침으로 찔러 진물을 빼내는 것이 좋다. 찔러서 터뜨리는 방법은 위의 '고름이 잡히는 3일(貫膿三朝)' 부분에 자세히 나온다.

此時, 或有腹痛者, 用蟬退湯數貼〔方見上 出痘終日〕. 而不愈, 則用木香理中湯.

입때에 혹 복통이 잇거든 선퇴탕 두어 텃 쓰고 이를 써 흐리디 아니흐거든 목향니둥탕을 쓰라.

이때 배가 아픈 경우에는 선퇴탕(蟬退湯)을 여러첩 쓴다.(처방은 위의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出痘終日)'에 나온다.) 낫지 않으면 목향이중탕(木香理中湯)을 쓴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瘡諸證、護眼》"痘初出, 鼠粘子爲末, 水調, 貼額門上, 則痘不入眼. 《蕭氏》" ←

木香理中湯 목향니중탕 | 목향이중탕

木香、人參、白朮、乾薑(炮)、甘草炙 各五分. 加鼠粘子(炒研)、黃芩(酒炒) 各五分, 水八合, 煎至半.

목향 인삼 백출 건강포 감초 구각 오분 가입 셔점즈초연 황금 쥬초 각 오분을 팔홉의 너흠되게 달혀 쓰라.

목향、인삼、백출、건강(습지에 싸서 구운 것)、감초(구운 것) 각 5푼. 여기에 우방자(볶아서 간 것)、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 각 5푼을 넣고 물 8홉이 절반으로 줄 때까지 달인다.

此時, 或有胸脇之痛, 其痛在中腕近處者, 餘毒歸心而然也. 急用乳香散.

입때에 가슴과 옆피 알르니 이시되 등완 근처를 미이 알느니는 여독이 심경의 드러 그러흐니 급피 유향산을 써 누기라.¹

이때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통증이 중완(中腕) 부근까지 있는 경우는 남은 독기(毒氣)가 심(心)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급히 유향산(乳香散)을 쓴다.

¹. 원문은 이 문장이 아래의 처방 설명과 이어져 있고 언해 또한 이어져 있다.
편의상 구분하였다. <

乳香散 | 유향산은

乳香、沒藥 各五分, 木香 三分也. 水一盞, 煎至半服. 只有脇痛者, 由瘀血而作, 韭菜取汁, 服之可也.

유향 몰약 각 오분 목향 삼분을 물 한 잔의 반 되게 달혀 머기되 굴러 문도라 더운 물의 타 머기면 더 도흐니라. 다만 녀만 알르니는 어혈로 그리흐니 부체를 즈내여 머기면 도흐니라.

유향、몰약 각 5푼, 목향 3푼이다. 물 한 잔이 절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먹는다. 옆구리만 아픈 것은 어혈(瘀血)로 인한 것이니 부추의 즈를 내어 먹이면 좋다.

此時, 或觸風寒而胸腹急痛, 其候似霍亂, 若以霍亂治之, 則非徒無益, 必至大危, 急用消風散.¹

입때에 혹 풍한으로 흥복을 급히 알흐되 그 증이 마치 관란²이니 이시니 만일 곱간으로 다스리면 크게 위턱홀 거시니 급히 소풍산을 쓰라.

이때 간혹 풍한(風寒)에 맞아 흥복부(胸腹部)가 갑자기 아프면서 그 증상이 곱란(霍亂)과 비슷한데, 곱란으로 여기고 치료하면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크게 위태로울 것이니 급히 소풍산(消風散)을 쓴다.

¹. 《東醫寶鑑、雜病篇、小兒、痘後雜病》"愈後, 忽遍身青黑, 口噤搐搦, 此氣虛感風, 宜用消風散〔方見頭部〕." ←

消風散 소풍산 | 소풍산

荊芥穗、甘草 各一錢, 人參、白茯苓、白殭蠶(炒)、川芎、防風、藿香、蟬退去頭足翅、羌活 各五分, 陳皮、厚朴薑製 各三分. 加入柴胡 七分, 青皮 五分, 入細茶一撮, 煎服, 或末溫酒調下三四貼, 卽效.¹

형개수 감초 각 한 돈, 인삼 백복령 백강즙초 천궁 방풍곽향선퇴거두족시강활 각 오분 진피 후박 경계 각 삼문 가의 식호 칠분 청피 오분 작설 훈자 붓을 여허 달혀 머기 되 혹 그럭 몬드라 더온 술의 타 서너복을 머그면 즉시 효험 잇느니라.

형개수, 감초 각 1돈, 인삼, 백복령, 백강잠(볶은 것), 천궁, 방풍, 곽향, 선퇴(머리, 다리, 날개를 떼는 것), 강활 각 5푼, 진피, 후박(생강즙으로 법제한 것) 각 3푼. 여기에 식호 7푼, 청피 5푼을 더하고 작설차 한 줌을 넣어 달여 먹거나 이상의 약재를 가루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3-4첩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此時, 或有手足戰掉者, 氣虛致然也. 宜用保元湯, 加當歸、白芍藥(酒炒)、白茯苓 各一錢, 肉桂 七分.

입때에 혹 손과 발을 떠느니 이시니 기운이 허하야 그러흐니 맛당히 보원탕을 쓰되 당귀 백작약 주초 백복령 각 한 돈, 육계 칠분을 가입하야 쓰라.

이때 간혹 손발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기(氣)가 허하여 그런 것이다. 마땅히 보원탕(保元湯)에 당귀,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백복령 각 1돈, 육계 7푼을 더하여 쓴다.

此時, 或有顛戰者, 此亦氣虛之證也. 當用保元湯、獨蔘湯等藥, 以爲回元之地, 爲當然, 而若或氣促, 則難治, 急宜用藥.

입때에 혹 툅 떠나니도 이시니 이 또한 기운이 허하야 난 증이니 맛당히 보원탕 독삼탕 등 약을 써 원기를 도로허미 맛당흐니라. 그러흐나 기운이 천촉헝기에 나르면 다 스리기 어려오니 급히 약을 쓰라.

이때 턱을 떠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기(氣)가 허한 증상이다. 마땅히 보원탕、독삼탕 등의 약을 써서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 숨을 헐떡이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급히 약을 써야 한다.

此時, 或有瘡處濕爛不斂者, 亦當用保元湯, 而更加白朮(土炒) 一錢, 以差爲度.

입때에 혹 몸이 허러 습난하야 므디 아니하느니 이시니 또한 맛당히 보원탕을 쓰되
빅출토초하야 혼 돈을 가입하야 हर리기로 혼하야 만히 쓰라.

이때 두창 앓은 부위가 짓무르고 아물지 않는 경우도 보원탕(保元湯)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1돈을 더하여 나올 때까지 쓴다.

此時, 或有陰囊浮大之證, 而年長者, 大如匏瓜, 小兒則大如鵝卵者, 有之. 蓋緣痘毒與濕熱下流而然也, 宜用消毒湯.

입때에 혹 불이 부어 크는 증이 이시되 나히 만흔 사람은 두옹만이나하고 나 저근 아
히는 게유알만이나 하니 이시니 대개 역질독이 습열로 더브러 아래로 흘러 내려 그
러하니 맛당히 소독음을 쓰라.

이때 음낭이 크게 붓는 증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크기가 어른은 박 만하고
어린이는 거위알 만한 경우가 있다. 대개 두창독과 습열(濕熱)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서 그런 것이니 소독음(消毒飲)²을 써야 한다.

¹. 《東醫寶鑑、外形篇、頭、頭風證》"消風散 治諸風上攻, 頭目昏眩, 鼻塞, 耳鳴, 皮膚麻痒, 及婦人血風, 頭皮腫痒. 荊芥、甘草 各一錢, 人參、茯苓、白殭蠶、川芎、防風、藿香、蟬殼、羌活 各五分, 陳皮、厚朴 各三分. 右剉, 作一貼, 入細茶一撮同煎服. 或爲末, 每二錢. 以茶清或溫酒調下. 《入門》" ←

². 원문은 소독탕(消毒湯)이지만 뒤이어 나오는 처방이나 언해를 볼 때 소독음(消毒飲)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消毒飲 소독음 | 소독음

惡實(炒研) 二錢, 荊芥穗 一錢, 防風、甘草 各五分.¹ 加黃芩(酒炒)、乾地黃(酒洗)、青皮、草龍膽 各五分, 用數貼, 甚效.

악실 초연 두 돈, 형개수 한 돈, 방풍감초 각 오분, 가황금 주초 간디황주세청피초농담 각 오분 가입하야 두어 텃을 쓰면 심히 효험이 잇느니라.

우방자(볶아서 간 것) 2돈, 형개수 1돈, 방풍·감초 각 5푼. 여기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건지황(술로 씻은 것)·청피·초용담 각 5푼을 더하여 여러 첩을 쓰면 효과가 매우 좋다.

然余見此證多矣, 皆勿藥自愈, 而病家不知, 莫不驚懼, 盖惟疾之憂, 無所不至故也.

그러나 내 이런 증을 만히 보와시되 다 약 아여서 스스로 헉리는 증이로디 병개 아디 못하고 놀라고 두리디 아니리 업스니 님가 자식의 병 근심하기를 밋디 아닌는 배 업슨 연괴라.

하지만 내가 이런 증상을 많이 봤는데 모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았으나, 두창을 앓는 집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놀라서 두려워하기만 하니 대개 자식의 병을 근심하는 마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此時, 或有吐瀉並作者, 宜用定中湯(方見上貫膿條). 虛嘔者, 亦效.

입때예 혹 토하고 사하기 일시에 흙씩 나느니도 이시니 맛당히 텃등탕을 쓰라. 나느것 업시 헛구토하는 증도 다 뵈느니라. 방은 우희 관롱도를 보라.

이때 구토와 설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정중탕(定中湯)을 써야 한다.(처방은 위의 '고름이 잡히는 3일(貫膿三朝)' 부분에 나온다.)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此時, 或有耽睡, 呼之不應, 勸其乳食, 而亦不肯焉者, 此或病弛氣困而如此者, 亦有之. 氣困而耽睡者, 則宜用保元湯, 加入白芍〔酒炒〕、當歸身、白茯苓、鼠粘子〔炒研〕各一錢, 肉桂七分, 糯米百粒. 氣短而耽睡者, 亦用此藥, 而難救者居多. 蓋初不能審其虛實隨證用藥, 而轉至此境, 奄奄自盡, 惜哉.

입때에 혹 조오름을 계워 불러도 디답아니하고 젓과 음식을 권하야도 즐겨 먹디 아니하는 자도 이시니 이 혹 병이 노혀 기운이 곤하야 이러툃 혼 자도 이신지 기운이 곤하야 조오름 계워홀 작시면 맛당히 보원탕의 빅자약 주초 당귀 신빅복녕 셔점 조초연 각 혼 돈 육계 칠분 니미 빅닙을 가입하야 쓰고 기운이 부족하야 조오름 계워하는 자도 이 약을 쓰려니와 다만 이러툃하야 그티 못하느니라 만하니 대개 당초애 기운이 이러하며 실하를 슬퍼 증을 쏘와 약을 쓰디 못하야 댕댕하야 이 디경이 니르러 조연히 절로 진하느니 이시니 극키 앓가오니라.

이때 간혹 잠에 빠져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젓을 억지로 먹이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 풀리면서 기(氣)가 부족하여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가 부족하여 잠에 빠지는 경우는 보원탕(保元湯)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신、백복령、우방자(볶아서 간 것) 각 1돈, 육계 7푼, 찹쌀 100알을 넣어서 쓴다. 숨이 짧으면서 잠에 빠진 경우에도 이 약을 쓰는데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처음부터 그 허실을 살펴서 증후에 따라 약을 쓰지 못한 채 이 지경에 이르면 쇠약해져 저절로 죽게 되니 안타깝다.

此時, 譫語見鬼者, 熱也, 昏昏不省者, 亦熱也. 月經、豬尾膏等藥, 連用之可也. 若證勢危惡, 似不能救, 則治法同黑陷.

입때에 헛말하고 귀신이 눈의 보이는 거시 열이오 정신이 어둑어둑하야 씨티디 못하는 것도 열이니 월경과 데미고를 년하야 쓰미 가하니라. 만일 증세 위악하야 구티 못홀 듯한 자는 다스리는 법이 흑함과 혼가지니라.

이때 헛소리를 하고 귀신이 보이는 증상은 열(熱)로 인한 것이고 정신이 흐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증상도 열로 인한 것이다. 월경수(月經水)·저미고(豬尾膏) 등의 약을 연달아 쓰는 것이 좋다. 만약 증세가 매우 위중하여 구제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두창이 검게 폭 꺼질 때(黑陷)와 똑같이 한다.

此時, 或有難名之證, 若氣虛, 若氣短, 若嘔瀉, 若昏睡, 若不省, 若奄奄垂盡, 敗證俱見, 宜急用四聖回天湯.

입때에 혹 일흠짓디 못흘 고이흔 증이 혹 괴운이러흔 듯도 하고 혹 괴운이 진흔는 듯도하고 혹 구토설사도 하고 혹 정신이 아득하야 잠자는 누도 하고 혹 잠자는 듯하야 씨디 못흔는 듯하고 혹 괴운이 슬슬 진하야 가는 듯하고 온갖 위악한 증이 다 이셔 일흠 짓기 어리온 증은 다스성회턴탕을 뿌라.

이때 간혹 이름붙이기 어려운 병증이 나타나는데 기(氣)가 허한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짧은 것 같기도 하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흐려서 자는 것 같기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몹시 쇠약하여 다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 등 온갖 안 좋은 증후가 다 나타나면 급히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을 써야 한다.

1. 《東醫寶鑑·雜病篇·小兒·出痘三朝》"消毒飲 治痘不快出, 及胸前稠密, 急用三四服, 快透解毒, 神效. 鼠粘子 二錢, 荊芥穗 一錢, 生甘草、防風 各五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或加山楂子、酒芩、紫草服, 或和犀角磨汁服, 尤佳. 《醫鑑》" ←

四聖回天湯 스성회던탕 | 사성회천탕

人參、黃芪、當歸身 各二錢, 石雄黃(水飛)末 五分〔此雄黃末, 則臨服時, 調下〕.
如或黑陷, 則加白朮 二錢. 以差爲度, 極妙.

인삼 황기 당귀 신각 두돈 석웅황수비말 오분이니 (석웅황을란 약 머글제 탁 먹으
라) 만일 흑 흑함하느니어든 빅출 두돈을 가입하야 요키로 혼을 하야 만히 쓰미 요하
니라.

인삼、황기、당귀신 각 2돈, 석웅황〔수비(水飛)한 것〕가루 5푼(이 웅황가루
는 먹을 때 탁서 먹는다.). 검게 푹 꺼지는 경우에는 백출 2돈을 더한다. 호전될
때까지 쓰면 매우 효과가 좋다.

○ 此藥, 則全同知有馨之所製也. 其自跋有曰, 十全十百全百, 此則自多之辭也, 未¹
必其然. 而人家痘疾, 自初不用藥治, 而危證雜出然後, 始問於余. 故用他藥, 則別無
的知之證, 而形勢則極危, 始用此藥, 頗有回生者. 蓋人參、黃芪補氣, 當歸身補血,
石雄黃寧脾胃, 治瘡毒故也.

○ 이 약은 전동디유형의 지은 배니 그 서이 닐러시되 열히서 열히 살고 빅의서 빅이
다 산다 하야시니 이는 곳 넘우니른 말이니 반드시 밋디 못홀 말이어니와 사람의 집
이 역질홀 저기 처엄브터 약을 배 다스리디 아니하고 위터혼 증이 만히 안 후의 비로
소 내게 무로니 다른 약을 쓰고저 혼즉 각별히 지덕홀 증이 업고 형세가 극키 위태롭
거늘 시험하야 이 회턴탕을 쓰니 사라나는 사람이 만하더라. 대개 인삼 황기는 기운
을 보하고 당귀 신은 혈을 보하고 서유황은 비위를 편안히 하고 창독 다스리는 연괴
러라.

○ 이 약은 동지(同知) 전유형(全有亨)²이 지은 처방이다. 그가 발문(發文)을
지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많다고 한
말이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집안에 두창이 돌았는데 처음부터 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다가 위중한 증후가 많이 나타난 뒤에서야 나에게 물으러 왔

다. 그래서 다른 약을 쓰려고 해도 정확하게 아는 증후가 특별히 없었고 병세는 지극히 위중해졌는데, 비로소 이 약을 썼더니 살아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 대개 인삼·황기는 기(氣)를 보하고 당귀신은 혈(血)을 보하며 석유향은 비위(脾胃)을 편하게 하고 창독(瘡毒)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此時, 或眼有赤白翳膜者, 法當急治, 而氣血未復之前, 經用瀉藥, 非徒無益於眼患, 或有關於生死, 必須完復之後, 方可藥治, 而又或自愈者, 亦有之. 然此出於瘡毒上炎之致, 不可全然置之. 三豆飲, 加生桑白皮 三錢, 濃煎, 代茶連用, 且喫其滓. 以差爲度, 當清補而解毒去翳, 無有不效者矣.

입때에혹 눈의 적백예막이 나는 재 이서니 맛당히 급피 다스릴 거시여니와 기혈이 소복디 못헌 전의 가빅야이 사흔는 약을 브스면 안환의 유익함 업슬 뿐이 아니라 스싱의 해로움이 이실 거시니 반드시 기운이 채소 복기를 기둘러 다스리미 가하고 혹 스스로 흐리는 이도 잇느니라. 그러흐나 이 층의 창독과 열이 으흐로 올라 그러흐니 전연히 브리 두디 못홀 거시니 삼두음의 생상빅피 서돈을 가입흐야 므르게 녹게 달혀 차터도 임의로 먹이고 또 그 지를 먹이되 텃수를 헛티 몰고 흐리도록 만히 먹이면 청열흐고 기혈을 보흐고 창독을 다스리고 예막을 업시흐느니라.

이때 눈에 붉고 흰 예막(翳膜)이 끼는 경우에는 급히 치료해야 하는데, 기혈(氣血)이 아직 회복되기 전에 사(瀉)하는 약을 쓰면 눈의 질환에 이로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회복된 뒤에야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 간혹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창독(瘡毒)과 화기(火氣)가 위로 올라서 생긴 것이라 완전히 그대로 둘 수만은 없다. 삼두음(三豆飲)에 생상빅피 3돈을 넣어 진하게 달인 다음 차(茶)처럼 연달아 먹고 그 찌꺼기도 먹는다. 나을 때까지 꼭 먹으면 열을 식히고 기혈을 보하면서 창독(瘡毒)을 풀고 예막을 없애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全氏曰, 按錢氏潔古陳氏丹溪之說, 皆非也. 余嘗依古之方書, 試於人無慮千萬, 并無顯效. 潛心積慮十餘年, 而一日忽有所得. 謂痘瘡如癘疫, 則治癘疫當主於疏瀉, 而痘瘡疏瀉, 則反致內虛而死. 謂痘瘡如癰腫, 則治癰腫以不膿爲善, 而痘瘡不膿,

則反爲內吸而死. 盖痘瘡, 雖曰本五臟之毒, 而脾爲之主也. 足太陰脾經所司者, 肌肉也, 脾胃充實, 生氣滿盈, 痘瘡自順, 有何邪熱爲祟乎. 乃用四君子湯、保元湯等藥, 以補之, 則得效者, 什常七八, 痘瘡之出於脾明矣, 而似無百發百中萬舉萬全之奇效. 更爲研究, 非急補則難得急效, 遂用欲急補, 用五石之訓. 以人參安魂定魄, 以黃芪補氣, 以當歸身補血, 而以石雄黃專補脾土, 謂之四聖回天湯. 痘形已發, 辨其非他證然後, 人參、當歸身、黃芪 各二錢, 水一升三合, 煎至四五合, 石雄黃極細末五分, 和下. 熱極盛, 黑陷甚, 則加白朮 二錢, 而人參、黃芪、當歸身 各三錢, 雄黃末 用七分. 用此藥一貼, 則寒戰者, 咬牙者, 紫黑者, 目直視者, 氣將絕者, 卽刻起脹, 無不回生, 連用, 以永差爲度. 用此藥, 則什全十百全百千全千, 不用此藥, 則死, 此藥之功, 不亦大乎. 九原可作, 請與丹溪東垣, 較其是非而正之.

전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을(錢乙), 장원소(張元素), 진문중(陳文中), 주단계(朱丹溪)의 설을 살펴보니 모두 옳지 않다. 내가 일찍이 옛 방서(方書)에 따라 사람들에게 시험하기를 무려 수천, 수만 번 하였으나 모두 탁월한 효과가 없었다. 십여 년 동안 마음 깊숙이 생각에 잠겼다가 어느 날 문득 얻은 바가 있었다. 두창(痘瘡)은 여역(癘疫)과 같다고 하는데, 여역을 치료할 때에는 마땅히 소사(疏瀉)하는 법을 써야 하지만 두창에 소사하는 법을 쓰면 도리어 안이 허해져 죽게 된다. 두창이 웅종(癰腫)과 같다고 하는데, 웅종을 치료할 때 고름이 잡히지 않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두창에 고름이 잡히지 않으면 도리어 안으로 들어가 죽게 된다. 대개 두창은 본디 오장(五臟)의 독으로 인해 생겼다고 하지만 비(脾)가 주(主)가 된다.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이 담당하는 것이 기육(肌肉)인데 비위(脾胃)의 기가 충실하면 생기(生氣)도 가득하여 두창은 저절로 나을 것이니, 어떤 사열(邪熱)이 빌미가 되겠는가? 이에 사군자탕(四君子湯)과 보원탕(保元湯) 등의 약을 써서 보하면 효험이 있는 자가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이니 두창이 비(脾)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언제나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연구해 보건대 급히 보하지 않으면 그만한 효과를 보기 힘들니, 마침내 급히 보하고자 하면 석약(石藥)을 써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인삼(人參)으로 혼백(魂魄)을 안정시키고 황기(黃芪)로 기를

보하며 당귀신(當歸身)으로 혈을 보하고 석웅황(石雄黃)으로 비토(脾土)를 온전히 보하게 하여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이라 이름을 붙였다. 두창의 형증(形證)이 이미 나타나면 다른 병증이 아닌지 변별한 뒤에 인삼, 당귀신, 황기 각 두 돈에 물 1되 3홉을 넣고 4-5홉이 될 때까지 달인 다음 곱게 간 석웅황 가루를 5푼 타서 먹는다. 열이 매우 심하고 검게 폭 꺼진 것이 심한 경우에는 백출(白朮) 두 돈을 더하고, 인삼, 황기, 당귀신을 세 돈씩, 웅황 가루를 7푼으로 쓴다. 이 약 한 첩을 쓰면 추위에 떠는 자, 이를 가는 자, 두창의 색이 검붉은 자, 눈동자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쏘아보는 자, 기가 끊어지려는 자는 즉시 두창에 물이 차오르고 살아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연달아 쓴다. 이 약을 쓰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낫고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죽게 되니, 이 약의 효능이 또한 크지 아니한가?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단계(丹溪), 동원(東垣)과 함께 시비를 겨루어 바로잡고 싶다.

1. 末 : 문맥상 '未'가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언해에서도 '未'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

2. 원문에는 '全有馨'으로 되어 있는데, 실록에 '同知 全有亨'이 나오는 것 외에 '全有亨'과 '全有馨'을 같은 인물로 볼 만한 기록들이 다소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제 참고) ←

痘瘡經驗方跋 | 두창경험방발¹

凡人之病, 根於中者難治, 發於外者易治, 此醫家定論也. 然懸疣附贅, 若痔若瘍, 似乎一決而可去, 或終身僕於醫門而不見驗, 往往因以滅其生. 素問以下諸家雜方不翅盈車, 而書不可盡信, 有如此者, 吾獨於朴公經驗方一篇, 竊有取焉. 惟痘疹亦發於外者也, 得其方以治之, 易於消疽, 失其方以治之, 難於去贅. 蓋其 節有序成就有期, 發而脹, 膿而痂, 歷四三日而吉凶判. 救治之道, 亦自有漸, 察其形色, 審其氣候四序之用, 各異其方, 先三日而試之, 後三日而驗之. 雖燕北越南之人, 皆可以一法施之, 是書也, 約而易曉, 簡而易行. 五寸之矩, 足以盡天下之方, 則豈向所謂盈車者, 匹哉. 今之國師, 實祖是方, 屢試而不一失. 主上嘉之, 嘗欲博施而濟衆, 士大夫家, 無不傳, 本以刀閣之, 其慮之也, 深矣. 吾觀嶺俗最爲忌避聞風, 百里驚竄跳匿, 十家八空, 或夭昏札瘥, 相續於閭巷, 甚可惻也. 噫. 朴公之方, 行於京師, 不及於嶺南, 不得蒙其澤, 嶺民何負於朴公哉. 於是, 求取一本, 募工而剞劂之, 以廣其傳, 俾得家藏而戶有朴公之秘機. 妙權瞭然, 於一開卷, 人人皆可以自治, 則斯亦冥逕指南之一少助也. 歐陽子稱, 治民如治病, 治民非吾任, 醫民則有不敢讓焉爾.

무릇 사람의 병이 속에 뿌리를 둔 것은 치료하기 어렵고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것은 치료하기 쉽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가(醫家)의 정해진 논지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마치 치질이나 종기처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것 같다가도 평생 의문(醫門)을 따라 다녀 효험을 보이지 못한 채 종종 그로 인해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소문(素問)》 이하로 여러 의가들의 많은 방서(方書)들이 수레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을 뿐 아니라 그 책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데, 내가 유독 박공(朴公; 朴震禧)의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한 책에서 마음속으로 얻은 것이 있었다. 생각건대 두진(痘疹) 또한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것인지라 그 제대로 된 방법대로 치료하면 악성 종기(疽)를 치료하는 것보다 쉽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놓친 채로 치료하면 혹을 떼는 것보다 어렵다. 대개 그 병의 단계에 차례가 있고 이루어지는 데에 기한이 있어서 두

창이 돌아 나와서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잡혀서 딱지가 앉는데, 3-4일이 지나면 병의 예후가 판가름 난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 또한 점차 퍼져 나가니, 그 형색(形色)을 살피고 그 기후와 사시의 작용을 살펴서 각기 그 처방을 다르게 하면 3일 동안 시행하여 3일 후에 효험을 얻었다. 비록 연북(燕北)이나 월남(越南)의 사람이라도 모두 한 가지 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이 책은 중요한 것을 추리면서도 깨닫기 쉽고 간략하면서도 시행하기 쉽다. 다섯 치의 곱자(矩)로 족히 천하의 방형(方形)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하니, 어찌 수레에 가득 찬 많은 방서(方書)들이 필적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사(國師)께서 실로 이 방서(方書)를 조종(祖宗)으로 삼아 여러 번 시행하였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주상께서 기뻐하시고 일찍이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시어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에 모두 전하고 책을 서각(書閣)에 두도록 하시니, 그 생각하심이 깊도다. 내가 보건대 영남(嶺南) 사람의 습성이 소문 듣기를 가장 싫어하는데도 한 고을(百里)에서 두려워 도피한 탓에 열 집 중 여덟이 비어있거나 병들어 죽는 자들이 길거리에 서로 잇따르니 매우 측은하도다. 아아. 박공(朴公)의 방서(方書)가 서울(京師)에서 쓰이는데 영남 지방에는 미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보지 못하니 영남의 백성들이 어떻게 박공(朴公)의 덕을 볼 수 있겠는가. 이에 책 한 권을 구하여 각수들을 모아 판본을 깎게 하고 널리 전함으로써 집에 소장하여 집집마다 박공(朴公)의 비기(秘機)를 두게 하였다. 오묘한 방편이 매우 분명하여 한 번 책을 펴면 사람마다 모두 스스로 치료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어두운 길에 나침반과 같은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양수(歐陽修)가 '백성 다스리기를 병 치료하듯이 하라'고 하였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니지만 백성을 치료하는 것은 감히 사양하지 않을 따름이다.

辛卯十二月 日, 駒城 李世恒, 書于商山製錦軒.

신묘년(辛卯年) 12월 일, 구성(駒城)²의 이세항(李世恒)³이 상산(商山)의 제금헌(製錦軒)에서 쓰다.

1. 중간본에만 있음 ↩

2. 용인의 옛 이름. 이세항의 본관. ↩

3. [http : //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 :
EXM_SA_6JOb_1696_016585](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SA_6JOb_1696_016585) ↩

痘瘡經驗方:攷事撮要¹ | 두창경험방:고사찰 요본

¹. 攷事撮要 : 攷事撮要 3권 부록본에는 부록, 4권본에는 권4, 5권본에는 권5에 수록되어 있다. ↩

謹避風寒 | 삼가 찬바람을 피할 것

切禁生冷, 終始宜守此戒.

절대 날것과 찬 것을 금해야 하니, 이 경계를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禁忌食物 | 금해야 할 음식

生梨、紅柿、西瓜¹、臘雪水、棗、碎冰²、乾柿、沉水、柑子、橘、柚、一切酸醎、一切寒冷³等物、一切香臭惡臭⁴。凡燒煮⁵油炒臭, 切⁶不可近, 滅燭燈⁷之臭, 亦禁之。

생 배、홍시、수박、납설수(臘雪水)、대추、부순 얼음、꽃감、오래 담아둔 물、홍귤(柑子)、귤、유자、모든 신 것과 짠 것、모든 차가운 것들、모든 향기와 나쁜 냄새. 일반적으로 태우거나 굽거나 기름에 볶을 때 나는 연기의 냄새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촛불이나 등불이 꺼질 때 나는 냄새도 금한다.

○又忌房中淫⁸慾、家內燒頭髮毛羽、梳頭、去糞穢通溝渠惡臭。巫覡等, 勿入門庭, 外人僧尼, 切勿出入, 要令內外安靜。

○또한 음욕(淫慾)과 집안에서 머리카락、터럭、깃털을 태우는 것, 머리를 빗는 것, 더러운 똥을 치우고 도랑을 정비하면서 생기는 나쁜 냄새를 금한다. 무당 등을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고 외부인、승려를 절대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되며 내외를 안정토록 해야 한다.

⁹人家父母溺於慈愛, 任其所欲, 長厥嬌氣, 及患此疾, 飲食起居, 皆失調攝之宜. 又不能脅令服藥, 終至不救者有之¹⁰, 惜哉.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너무 과하여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하고 그 교만한 성질을 기르다가 이러한 역질(疫疾)을 알게 되면 음식과 기거가 모두 조리하는 원칙을 잃게 된다. 또한 능히 제어하여 약을 먹이지 못하는데, 끝내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안타깝도다.

○神之有無，雖不可知，蓋想心本虛靈今乃挾火，故見其所不見，聞其所不聞。女巫籍¹¹以爲言，國俗之信巫，實由於此苟。若有神，無論輕重，皆可明言外間事，而重者或不知，輕者或有知，何也。世有不設神床，而好經痘者，各設床卓，以至衣服錦繡絢絹寶貨¹²，無不畢陳，而終至不救者，有之，此亦痘家之不可不知者也。又有甚焉者，一聽巫說，冬月浴冷水，日夜祈禱，而不得神助，終失其兒。小則爲終身之疾，大則因疾喪身，惑之甚也。

○귀신의 있고 없음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대개 생각해보자면 사람의 마음이 본디 허령(虛靈)한데 이제 화를 끼게 되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 무녀들이 빙자하여 말하는데 세상이 무당을 믿는 것은 진실로 이런 말 때문이다. 만약 귀신이 있다면 병의 경중을 논할 것 없이 밖에서의 일을 다 알 것인데, 병이 중한 자는 혹 알지 못하고 가벼운 자는 혹 알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세상에는 신상(神床)을 세우지 않고도 두역(痘疫)을 잘 넘긴 사람이 있고, 상탁을 설치한 것부터 의복·비단·보화에 이르기까지 무궁히 벌여놓더라도 끝내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두창 환자가 있는 집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병이 심한 경우에 한 번 무당의 말을 듣고 겨울 철에 찬 물로 목욕시키고 밤낮으로 기도하였으나 귀신의 도움을 얻지 못해 끝내 아이를 죽게 하였다. 무당의 말을 믿다가 작게는 종신토록 병이 들고 크게는 그로 인해 죽게 되니 미혹됨의 폐해가 심하다.

○凡痘熱¹³盛，故自不思魚肉，而女巫以爲僧尼之神，舉家素飡，至於老病父母，皆廢滋味。而甚者，病兒雖索魚肉，輒問於女巫，則必曰痘神故欲戲之，與喫則必危矣。舉家惶恐¹⁴，不敢與小許魚肉，使氣血益虛，而變症雜出，以至難救¹⁵，習俗之誤人也，如是。夫余觀一人，有獨子患痘，初不至危險。而其家適有饌生肉者，不敢自喫，禱薦于神床之下，日久溫房，易致腐敗¹⁶，臭惡不可近。余謂主人曰，君家信巫俗忌，雖不得不從，而舉家行素，尙或可也，但乳母素食，則病兒必傷矣。主人¹⁷微笑曰，非不知君言之爲是，而家婦人輩論議太峻，何哉。請姑徐請姑徐。果於落痂之後，血氣逾益虛耗，似睡非睡，不省吮乳，數日自盡，惜哉。此特舉¹⁸一人而言，痘家所宜深戒¹⁹也。

○무릇 두창(痘瘡)은 열이 성하므로 자연스레 생선, 고기를 찾지 않는데, 무녀가 이를 중귀신(僧尼之神)이라 여겨 온 집안이 채소류만 먹고 늙고 병든 어버이마저 모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병든 아이가 생선이나 고기를 찾아도 무녀에게 물어보는데, 오로지 두창신이 놀리려는 것이므로 먹이면 위험하다고만 얘기한다. 온 집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생선이나 고기를 조금도 주지 않아서 기혈(氣血)을 더욱 허하게 하고 전변(轉變)된 증상이 뒤섞여 나오게 하여 구제하기 어렵게 되는데, 세속의 관습이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이와 같다. 무릇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독자(獨子)가 두창을 앓았는데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았다. 마침 그 집에 생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히 먹지 못한 채 신상(神床)에 놓고 제사만 지냈더니, 따뜻한 방에 오래 두었기에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썩어서 악취가 났다. 내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대의 집안이 무당을 믿어서 세속의 금기를 비록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온 집안이 채식을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모(乳母)가 채식을 하면 병든 아이가 반드시 상할 것입니다." 주인이 약간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집안의 부인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어찌 하리오? 청컨대 좀 천천히 합시다." 과연 딱지가 떨어진 뒤에 혈기가 더욱 허해져서 자는 듯 안자는 듯 하다가 젖을 빨지 못하고 며칠 뒤에 죽었으니, 안타깝도다. 이는 특별히 한 사람을 들어 말한 것인데, 두창 환자가 있는 집안이라면 마땅히 깊게 경계해야 할 바이다.

1. 西瓜：西薤 ※오사카본、대계본 ←
2. 冰：氷 ※오사카본、대계본 ←
3. 一切寒冷：寒冷 ※오사카본、대계본 ←
4. 一切香臭惡臭：香臭惡臭 ※오사카본、대계본 ←
5. 煮：煎 ※오사카본、대계본 ←

- 6. 臭, 切 : 烟臭 ※오사카본、대계본 <↩
- 7. 燭燈 : 燈燭 ※오사카본、대계본 <↩
- 8. 淫 : 淫 ※오사카본、대계본 <↩
- 9. 글자없음 : *○ ※오사카본、대계본 <↩
- 10. 有之 : 多有之 ※오사카본、대계본 <↩
- 11. 籍 : 藉 ※오사카본、대계본 <↩
- 12. 紬絹寶貨 : 寶貨 ※오사카본、대계본 <↩
- 13. 熱 : 熟 ※오사카본、대계본 <↩
- 14. 恐 : 悚 ※오사카본、대계본 <↩
- 15. 難救 : 救難 ※오사카본、대계본 <↩
- 16. 腐敗 : 腐傷 ※오사카본、대계본 <↩
- 17. 主人 : 生人 ※오사카본、대계본 <↩
- 18. 特舉 : 特 ※오사카본、대계본 <↩
- 19. 所宜深戒 : 深戒 ※오사카본、대계본 <↩

初熱三日 | 처음 열이 나는 3일

初覺有痛, 勿論感冒、傷寒、痘疾、紅疫, 急用升麻葛根湯.

처음 통증을 느낄 때 감기、상한、두창、홍역에 관계없이 급히 승마갈근탕
(升麻葛根湯)을 쓴다.

升麻葛根湯 | 승마갈근탕

葛根 二錢, 白芍藥 一錢, 升麻 一錢, 甘草 一錢. 加入荊芥穗 七分, 鼠粘子炒研 七分, 山查肉 七分.

갈근 2돈, 백작약 1돈, 승마 1돈, 감초 1돈. 여기에 형개수 7푼, 우방자(볶아서 간 것) 7푼, 산사육 7푼을 더한다.

○小兒不肯服藥, 用金銀花或忍冬茶, 以發汗爲度, 而終不如湯藥之爲愈也.

○어린 아이가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 금은화나 인동 차를 땀이 날 정도로 쓰는데, 결국 탕약으로 치유하느니만 못하다.

○此時, 或發驚搐, 窒塞目竇, 切不把持, 任其搐搦, 使血氣流通可也.

○이때, 놀라고 경련이 일어나서 숨이 막히고 눈을 치켜뜨게 되더라도 절대 붙잡지 말고 경련하는 대로 뒀서 혈기가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좋다.

○藥則急用¹牛黃抱龍丸, 或抱龍丸². 甘草、朴荷 等分, 煎水, 調下瀉青丸, 亦妙.

○약은 급히 우황포롱환(牛黃抱龍丸)이나 포롱환(抱龍丸)을 쓴다. 감초·박하 같은 양을 물에 달여 그 물에 사청환(瀉青丸)을 타서 먹어도 효과가 좋다.

○此時, 或吐, 或瀉, 或吐瀉并作, 自此至出痘終日, 症雖苦劇, 皆不妨.

○이때,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번갈아 한다면, 이때부터 두창(痘瘡)이 돋는 마지막까지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모두 해가 되지 않는다.

○此時, 若腰痛, 將必黑陷, 急急用神解湯, 不然幸而免焉. 然年壯者, 多腰痛³.

○이때, 만약 허리가 아프다면 반드시 환부가 검게 폭 꺼질 것이니, 급히 신해탕(神解湯)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요행히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른의 경우는 대부분 허리가 아픈 증상이 있다.

1. 急用：用 ※오사카본、대계본 ↩

2. 或抱龍丸：而或以 ※오사카본、대계본 ↩

3. 神解湯, 不然幸而免焉. 然年壯者, 多腰痛：神解湯 ※오사카본、대계본 ↩

神解湯 | 신해탕

紫胡 一錢半, 乾葛 一錢, 麻黃 八分, 升麻 八分, 防風 一錢, 白茯苓 八分, 甘草 五分.
煎服後, 溫覆出汗, 而不汗再服, 以痛止爲度.

시호 1돈 반, 건갈 1돈, 마황 8푼, 승마 8푼, 방풍 1돈, 백복령 8푼, 감초 5푼. 달
여 먹은 뒤 따뜻하게 옷가거나 이불을 덮어 땀을 내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 통
증이 멎을 때까지 다시 먹는다.

若遐方無藥, 只宜多汗, 而能食者, 免黑陷¹.

만약 먼 지방에서 약이 없을 경우는 땀이라도 많이 나게 하면 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검게 푹 꺼지는 상황은 면할 것이다.

○此時, 或發渴, 切勿與冷水, 或金銀花茶, 或糯米煎水, 或三豆飲, 皆可飲. 又紅花
子煎水, 亦妙. 糯卽粘.

○이때, 갈증이 나더라도 절대 찬물을 주면 안 되는데, 금은화차나 찹쌀 끓인
물이나 삼두음(三豆飲)은 모두 먹일 수 있다. 또 홍화자 달인 물도 효과가 매우
좋다. 찹쌀의 '나(糯)'는 끈적인다는 뜻이다.

¹. 글자없음 : 且幸而免焉. 然年壯者, 多腰痛, 痛止多汗能食, 則可無慮焉 ※
오사카본 · 대계본 ↩

出痘三日 | 두창이 돋는 3일

始痛, 一日即發者極重, 二日發者亦重, 三日而出者¹例也. 或有似痛不痛時, 或遊戲而四五日六七日乃出者, 是勿藥之類也.

알기 시작하여 하루 만에 돋아나는 경우는 극히 위중하고 이틀 만에 돋아나는 경우도 위중하며 사흘 만에 돋아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간혹 앓는 듯 하다가 앓지 않는 때가 있거나 혹은 잘 놀다가 4-5일, 6-7일 만에 돋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此時, 吐瀉, 皆不足憂也.

○이때,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모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初見紅點, 急用化毒湯.

○붉은 점이 처음 드러나면 급히 화독탕(化毒湯)을 쓴다.

¹. 三日而出者 : 三日發者 ※오사카본、대계본 ←

化毒湯 | 화독탕

紫草茸 一錢, 甘草 一錢, 升麻 一錢. 加山查肉 七分, 蟬殼去頭足翅 五分, 白芍藥 一錢, 糯米 百粒. 同煎, 服限三日, 連用五六貼, 日再服, 則非但能令稀痘, 且無痘後諸症, 眞所謂痘疫初程之聖藥也.

자초용 1돈, 감초 1돈, 승마 1돈. 여기에 산사육 7푼, 설향(머리, 다리, 날개를 떼는 것) 5푼, 백작약 1돈, 찹쌀 100알을 더한다. 이상을 함께 달여서 3일 동안 먹는데 연달아 5-6첩을 쓰고 하루에 2번씩 먹으면 두창이 드물게 돋도록 할 뿐만 아니라 두창을 앓은 뒤에 여러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니 이 약은 정말로 두창 초기에 쓰는 성약(聖藥)이라 일컫는 것이다.

○此時, 又急用乾臙脂, 調於白蜜, 塗兩眼眶口唇鼻孔耳中, 以防痘出, 而必須頻頻塗之, 要令留着, 方可得效. 俗用砂鉢臙脂, 和朱砂¹, 亦有少效.

○이때, 또 급히 건연지를 꿀에 개어 양 눈가, 입술, 콧구멍, 귓속에 발라 두창이 돋는 것을 막는데, 반드시 자주 발라서 항상 묻어있게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사발연지에 주사를 섞어 쓰는데 이 또한 약간 효과가 있다.

○此時, 痘出太多毒盛, 急用連翹升麻湯, 以化毒湯材, 加入用之, 可也. 連翹升麻湯², 卽升麻葛根湯, 加連翹一錢, 是也.

○이때, 두창이 아주 많이 돋아 독기가 치성하거든 급히 연교승마탕(連翹升麻湯)을 쓰는데, 화독탕(化毒湯)의 구성 약재를 더하여 쓰면 좋다. 연교승마탕은 승마갈근탕에 연교 1돈을 더한 것이다.

○此時, 急用鼠粘子, 作末, 井水調, 付病兒額門, 以防眼患.

○이때, 급히 우방자를 가루내어 우물물에 개어 두창을 앓는 아이의 콧구멍에 붙여 눈에 병이 드는 것을 예방한다.

○此時, 或發驚搐窒塞, 此則逆症也. 急用加減紅錦散數貼, 以救之.

○이때, 간혹 경련을 일으키며 숨이 막히는데 이는 역증(逆證)이다. 급히 가감홍면산(加減紅綿散)을 여러 첩 써서 구제한다.

1. 用 : 塗之 ※오사카본、대계본 ←

2. 連翹升麻湯, 以化毒湯材, 加入用之, 可也. 連翹升麻湯 : 連翹升麻湯 ※오사카본、대계본 ←

加減紅綿散 | 가감홍면산

麻黃去節 五分, 全蝎去毒 五分, 荊芥穗、紫草茸 各五分, 蟬殼 五分, 葱白 一莖. 同煎服之.

마황(마디를 제거한 것) 5푼, 전갈(독을 제거한 것) 5푼, 형개수·자초용 각 5푼, 선퇴 5푼, 총백 1줄기를 함께 달여서 먹는다.

○此時, 腹痛者, 痘自腸胃出故也. 用蟬退湯.

○이때, 배가 아픈 것은 두창이 장위(腸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선퇴탕(蟬退湯)을 쓴다.

蟬退湯 | 선훈탕

蟬殼 一箇, 甘草 一錢半. 煎服, 或爲末, 白湯調下, 卽效.

선훈 10개, 감초 1돈 반. 달여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끓인 물에 타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此時, 或大渴求飲不已, 紅花子 一合, 水煎服之, 或用菉豆、赤豆、黑小豆 各一合, 烏梅 三介, 水煎服之, 渴自止. 月經亦宜用, 自此糯米煎水, 濃洗月經, 連續用之¹.

○이때, 갈증이 심하여 물을 끊임없이 찾는다면 홍화자 1홉을 물에 달여 먹거나 녹두、적소두、흑두 각 1홉, 오매 3개를 물에 달여 먹으면 갈증이 저절로 멎는다. 월경(月經)도 쓰는 것이 좋은데, 이때부터는 찹쌀 달인 물에 월경혈을 진하게 우려내어 연달아 쓴다.

○鼠粘子, 卽惡實也².

○우방자(牛蒡子)(鼠粘子)는 우엉씨(惡實)를 일컫는다.

¹. 月經, 連續用之 : 連續用之 ※오사카본、대계본 ←

². ○鼠粘子, 卽惡實也 : 오사카본、대계본에는 없다. ←

取月經法. | 월경을 쓰는 법.

糯米 一握¹, 井水 四大碗², 煎至半, 候冷, 濃洗月經, 渴時飲之, 熱時飲之, 連續用之可也. 盖糯米, 治痘毒, 養胃氣, 止泄瀉, 故雖用十盆之多, 終無泄瀉之憂, 勿疑多用.

찹쌀 1줌에 큰 사발로 우물물 4사발을 부어 절반이 될 때까지 달인 다음 식으면 월경을 진하게 우려내어 갈증이 날 때 마시고 열이 오를 때 마시며 연달아 쓰는 것이 좋다. 대개 찹쌀은 두창의 독기를 치료하고 위기(胃氣)를 기르며 설사를 멎게 하기 때문에 10동이나 쓰더라도 결코 설사할 걱정이 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많이 써야 한다.

○此時, 可以觀形色, 卞³虛實, 用藥也⁴. 遐方藥物⁵未易劑用, 故姑不論之.

○이때, 형색(形色)을 살피고 허실(虛實)을 가려서 약을 쓸 수 있다. 먼 지방에서 약물을 쉽게 만들어 쓰지 못하므로 우선 논하지 않는다.

○此時, 或有四支⁶百節皆痛者, 或由痘未快出, 或由未盡和解, 而然勿藥自愈.

○이때, 간혹 팔다리의 마디가 모두 아픈 경우는 두창이 잘 돋지 않기 때문이거나 두창을 다 앓지 않았는데 풀리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1. 一握：一合炒 ※오사카본、대계본 ←

2. 井水 四大碗：黃水四升 ※오사카본、대계본 ←

3. 卞：辨 ※오사카본、대계본 ←

4. 也：而 ※오사카본、대계본 ←

5. 藥物：則藥物 ※오사카본、대계본 ←

6. 四支 : 四肢 ※오사카본、대계본 ←

出痘終日 |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

此時, 或有痒症, 以木麥末, 糝¹於痒處, 以手揩摩²即止. 若木麥末不效³, 用敗草散.

이때, 가려운 증상이 있거든 메밀가루를 가려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문지르면 가려움이 멎는다. 만약 메밀가루가 효과가 없으면 패초산(敗草散)을 쓴다.

1. 糝 : 塗 ※오사카본、대계본 ←

2. 揩摩 : 摩之 ※오사카본、대계본 ←

3. 若木麥末不效 : 又 ※오사카본、대계본 ←

敗草散 | 패초산

多年蓋屋¹, 勿論郊草穀草, 受日月²霜露風雨而極其腐爛者, 取以爲末, 糝於痒處, 以手揩摩即效³.

오래 묵은 초가집 지붕이 들풀이든 짚풀이든 관계없이 오랫동안 이슬·서리·비바람을 맞아 심하게 썩어 문드러진 것을 가루내어 가려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문지르면 바로 효과가 있다.

○凡痘, 或爪破, 或潰爛流血流汁處, 皆可糝之, 因以作痂差愈. 盖此敗草感天地陰陽之氣, 故善解瘡毒, 亦易收斂矣.

○대체로 두창을 앓으면서 손톱으로 터뜨리거나 문드러져서 피와 진물이 흐르는 부위에 모두 뿌릴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딱지가 지면 낫는다. 대개 이 패초는 천지음양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창독(瘡毒)을 잘 풀고 쉽게 수렴시키기도 한다.

○止痒, 莫如水楊湯之奇功.

○가려움을 멎게 하는 데에는 수양탕(水楊湯)만큼 효능이 뛰어난 것이 없다.

1. 蓋屋：蓋屋草 ※오사카본、대계본 ←

2. 受日月：日月受 ※대계본 ←

3. 糝於痒處, 以手揩摩即效：如上則即止 ※오사카본、대계본 ←

水楊湯 | 수양탕

取溪邊大葉赤枝之楊剉之, 仍汲大旱不斷之長流水, 猛煮¹, 六七沸然後, 乘其水氣極熱²之時, 紬³巾頻頻淋洗面部⁴, 而或添湯, 久洗之, 方有效矣. 故必以兩器遞易, 溫之火上, 日夜數十次, 多多益好耳. 此藥⁵能引出毒氣, 故頂陷者皆起, 如或黑陷處, 則綿絮量其大小廣狹而裁之, 漬以此水, 乘熱遞付, 則焦黑者, 皆濕爛, 毒不入裏. 且速成就, 如其倒靨⁶之類, 尤見奇效, 勿論輕重, 皆可用之. 春夏用葉, 秋冬用枝. 陷者自⁷起, 痒者自止, 外治之藥, 無過於此. 但冬月浴之, 恐觸風寒, 只洗面上可也.

시냇가의 잎이 크고 가지가 붉은 버드나무를 꺾어두고 심한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늘 흐르는 물을 길러 강한 불에 예닐곱 번 끓인 뒤에 그 물을 뜨거운 채로 명주 수건에 적서 얼굴을 자주 씻어주는데 달인 물을 더 부어가며 오랫동안 씻어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릇 두 개를 바꿔가며 불 위에서 데워두면서 씻기를 밤낮으로 수십 번씩 하는데 자주 할수록 좋을 따름이다. 이 약은 독기(毒氣)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창의 고트머리가 폭 꺼진 것도 다 부풀어 오르고, 혹시 검게 폭 꺼진 부위라도 솜 적당량을 잘라서 이 물을 적서 뜨거운 채로 붙여두면 검게 말라붙은 것이 모두 축축하게 헐어서 독기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효과가 빨라서 딱지가 지지 않는 부류에는 더욱 효과가 좋으니, 병세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쓸 수 있다. 봄·여름에는 잎을 쓰고 가을·겨울에는 가지를 쓴다. 폭 꺼진 것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증상이 저절로 멎으니, 외용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단 겨울에 목욕을 하면 찬바람에 맞을까 우려되므로 얼굴만 씻는 것이 좋다.

○自此以後, 至落痂, 連續日夜洗之⁸.

○이때부터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연달아 밤낮으로 씻어준다.

○此時, 必有咽痛, 連用猪尾膏、如聖飲等藥⁹. 如其毒盛, 用加味犀角消毒飲四貼, 日再服.

○이때, 반드시 목구멍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저미고(猪尾膏)·여성음(如聖飲) 등의 약을 연달아 쓴다. 만약 독기가 성하면 가미서각소독음(加味犀角消毒飲) 4첩을 써서 하루에 2번 먹는다.

○出痘終日, 自初出第三日.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은 두창이 처음 돋은 날로부터 3일째이다.

1. 猛煮: 猛煮 ※오사카본、대계본 ←

2. 極熱: 溫熱 ※오사카본、대계본 ←

3. 紬: 細 ※오사카본、대계본 ←

4. 淋洗面部: 淋洗 ※오사카본、대계본 ←

5. 藥: 乃 ※오사카본、대계본 ←

6. 倒靨: 例靨 ※오사카본、대계본 ←

7. 自: 皆 ※오사카본、대계본 ←

8. 日夜洗之: 洗之可也 ※오사카본、대계본 ←

9. 猪尾膏、如聖飲等藥: 猪尾膏 ※오사카본、대계본 ←

起脹三日 | 부풀어 오르는 3일

症¹順者, 已自昨始有脹意, 先出者先起, 以次漸起, 凡痘之虛實, 毒之淺深, 全在此關. 若痘密勢重, 急用神功散數貼, 以救之. 方見回春². 若症險, 用神功散數貼後, 連用內托散. 方見回春. 若淡白灰黑陷伏, 更加丁香五粒用之.

증상이 순한 경우에는 이미 전 날부터 부풀어 오르는 기미가 있는데 먼저 돌아난 것은 먼저 부풀고 차례대로 점차 부풀어 오르니, 두창의 허실과 독기(毒氣)의 깊고 얕음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만약 두창이 뻥뻥하게 돌아서 증세가 위중한 경우라면 급히 신공산(神功散)을 여러 첩 써서 구제한다. 처방은 만병회춘에 나온다. 만약 증상이 위태로운 경우라면 신공산을 여러 첩 쓴 뒤에 이어서 내탁산을 쓴다. 처방은 만병회춘에 나온다. 만약 희멀겑고 잿빛처럼 거무스름하며 폭 꺼진 경우에는 여기에 정향 5알을 더한다.

○此時, 困頓委憊, 啼號不安者, 例症也.

○이때, 정신이 곤핍하고 몸이 고달프며 울면서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증상이다.

○此時, 若煩渴, 用紅花子湯, 或烏梅湯. 方見上出痘³. 若咽痛不可忍, 口舌生瘡, 不能吮乳, 用加味犀角消毒飲.

○만약 번열이 오르고 갈증이 있으면 홍화자탕(紅花子湯)이나 오매탕(烏梅湯)을 쓴다. 처방은 위의 '두창이 돋는 3일(出痘三朝)'에 나온다. 만약 목구멍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입과 혀가 헐어서 젖을 빨지 못하면 가미서각소독음(加味犀角消毒飲)을 쓴다.

1. 症 : 痘 ※오사카본·대계본 ←

2. 方見回春 : 오사카본·대계본에 없음 ←

3. 条：條 ※오사카본、대계본 ←

加味犀角消毒飲 | 가미서각소독음

鼠粘子炒研 二錢, 防風、升麻 各七分, 荊芥穗、麥門冬、桔梗 各五分. 犀角屑 五分, 臨服時調下, 或同煎服之亦得. 若加芩連並酒炒、連翹 各七分, 極妙極妙¹.

우방자(볶아서 간 것) 2돈, 방풍、승마 각 7푼, 형개수、맥문동、길경 각 5푼.
서각 가루 5푼을 먹을 때 타서 먹거나 함께 달여 먹어도 좋다. 만약 황금、황련
(모두 술에 축여 볶은 것)、연교 각 7푼을 더하면 효과가 매우 좋다.

若不起脹虛者, 用保元湯.

만약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허한 경우에는 보원탕(保元湯)을 쓴다.

¹. 極妙極妙：極妙 ※오사카본、대계본 ←

保元湯 | 보원탕

人參 二錢, 黃耆、甘草 各一錢.

인삼 2돈, 황기、감초 각 1돈.

加當歸、白茯苓、白芍藥微炒 各一錢, 肉桂 五分, 生姜 一片, 糯米 百粒.

여기에 당귀、백복령、백작약(약간 볶은 것) 각 1돈, 육계 5푼,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넣는다.

○此時, 若泄瀉則大危, 急用¹保元湯, 加白芍藥酒炒、白茯苓、白朮、乾姜炒黑、肉桂 各七分, 犀角屑 五分.

○이때, 설사를 하면 매우 위험하니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백복령、백출、건강(거무스름하게 볶은 것)、육계 각 7푼, 서각 가루 5푼 더한 것을 쓴다.

○此時, 水楊湯, 日夜頻頻淋洗面部可也.

○이 때 수양탕(水楊湯)을 가지고 밤낮으로 얼굴을 자주 씻어주면 좋다.

○此時, 痘色全白者, 由氣虛也. 用保元湯數貼, 以紅活爲度. 加當歸、白茯苓、白芍藥酒炒 各一錢², 官桂 七分, 姜 一片, 糯米 百粒.

○이 때 두창의 색이 완전히 흰 것은 기(氣)가 허하기 때문이다. 보원탕(保元湯) 여러 첩을 두창의 색이 붉고 생기가 돌 때까지 쓴다. 보원탕에 당귀、백복령、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각 1돈, 관계 7푼,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더한다.

○此時, 痘色³紅紫者, 用保元湯, 加木香、當歸、川芎 各七分.

○이 때 두창의 색이 자줏빛을 띠면 보원탕(保元湯)에 목향、당귀、천궁 각 7
푼씩을 더하여 쓴다.

○此時, 痘色⁴太紅近紫者, 由血熱也. 用四物湯, 生乾地黃酒炒⁵、白芍藥酒炒、當
歸、川芎 各一錢, 加黃芩酒炒、紫草、紅花 各七分.

○이 때 두창의 색이 너무 붉어 자색(紫色)에 가까운 것은 혈분(血分)의 열 때
문이다. 사물탕(四物湯)인 생견지황、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천
궁 각 1돈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자초、홍화 각 7푼을 더하여 쓴다.

○此時, 發痒, 考諸上出痘終日⁶用藥.

○이 때 가려움증이 있으면 위의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出痘終日〕'을 참고하
여 약을 쓴다.

○此時, 若痛甚不可忍, 則白芍藥細末 每一錢, 淡酒調下, 以黃土細末, 糝於痛處.

○이 때 만약 통증이 심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백작약을 곱게 가루내어 약
한 술에 1돈씩 타서 먹고 황토를 곱게 가루내어 아픈 부위에 뿌린다.

○自出痘, 第四日.

○'부풀어 오르는 날(起脹)'은 두창이 처음 돋은 날로부터 4일째(부터)이다.

1. 用：急用 ※오사카본、대계본 ←

2. 鍼：錢 ※오사카본、대계본 ←

3. 痘色：色 ※오사카본、대계본 ←

4. 痘色：色 ※오사카본、대계본 ←

5. 乾地黃酒炒：乾地黃 ※오사카본、대계본 ←

6. 条：條 ※오사카본、대계본 ←

貫膿三日 | 고름이 잡히는 3일

自出痘至六七日, 乃貫膿之初, 而凡痘順者, 必先期一日而成就, 故第六日¹則痘顆色²白, 已有向膿之漸. 蓋貫膿之時³, 脾胃主之, 土色發於外而黃也.

두창이 돋은 지 6-7일째면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때인데, 두창의 증세가 가벼운 경우는 반드시 하루 먼저 이루어지므로 6일째에 두창의 색이 하얗게 되어 이미 끓으려 하는 중이다. 대개 고름이 잡히는 때에는 비위(脾胃)가 주관을 하므로 토(土)의 색이 나타나서 누렇게 된다.

○七日則面部浮氣益加, 此例症也⁴.

○두창이 돋은 지 7일째가 되면 얼굴의 부기가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八日⁵浮氣稍減, 亦能開眼, 喉痛亦少愈.

○8일째에 부기가 점차 줄어들면 눈을 뜰 수도 있고 목구멍이 아픈 증상 또한 조금 줄어든다.

○此時, 或吐, 或瀉, 或吐瀉⁶, 大危也. 急用定中湯. 方見寶鑑.

○이 때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함께 하거나 할 경우는 매우 위험하니 급히 정중탕(定中湯)을 쓴다. 처방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나온다.

○此時, 宜以銀針刺之, 橫貫痘顆, 則汁自流出極妙. 無銀針則代以竹針亦好.

○이때에는 은침(銀鍼)으로 찔러서 두창을 옆으로 꿰뚫으면 진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니 효과가 매우 좋다. 은침이 없으면 대나무침(竹針)을 써도 좋다.

○此時, 必發痒, 頻以水楊湯點之可也. 或有痒甚不可忍, 一一爪破者, 後必癍痕⁷, 以紬巾裹手指, 就其痒處⁸按之, 甚緊則或有顆粒自破⁹汁出者, 亦¹⁰不妨矣.

○이때는 반드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수양탕(水楊湯)으로 가려운 곳에 자주 찍어주면 좋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가려워 하나하나 손톱으로 뜯은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흉이 지는데, 고운 수건으로 손가락을 감싸서 그 가려운 곳을 눌러준다. 매우 부풀면 두창 돋은 것이 저절로 터져 진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또한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此時, 熱候必盛, 連用月經, 間以猪尾膏, 以降熱¹¹可也.

○이때는 열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월경수(月經水)를 연달아 쓰고 중간 중간에 저미고(猪尾膏)를 써서 열을 내리는 것이 좋다.

○此時, 熱極者, 連用月經、猪尾膏¹²等藥, 必以胸中爽然爲度. 不然則熱自入¹³內, 終至不救, 慎之慎之¹⁴.

○이때 열이 극심한 경우라면 월경수·저미고 등의 약을 연달아 쓰되 반드시 가슴 속이 상쾌해질 정도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이 속으로 들어가 끝내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이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

1. 六日：五六日 ※오사카본、대계본 ←

2. 痘顆色：痘色 ※오사카본、대계본 ←

3. 貫膿之時：當是時 ※오사카본、대계본 ←

4. 七日則面部浮氣益加, 此例症也：오사카본、대계본에 없음 ←

5. 八日：오사카본、대계본에 없음 ←

6. 或吐, 或瀉, 或吐瀉：或吐瀉 ※오사카본、대계본 ←

7. 癍痕：有斑痕 ※오사카본、대계본 ←

8. 以紬巾裹手指, 就其痒處：以細巾就其處 ※오사카본、대계본 ←

9. 顆粒自破 : 自破 ※오사카본、대계본 ↩

10. 亦 : 是亦 ※오사카본、대계본 ↩

11. 以降熱 : 用之爲 ※오사카본、대계본 ↩

12. 月經、猪尾膏 : 月經 ※오사카본、대계본 ↩

13. 自入 : 入 ※오사카본、대계본 ↩

14. 慎之慎之 : 慎之 ※오사카본、대계본 ↩

收靨三日 | 딱지가 앉는 3일

自出痘至第九日十日，而稍稍焦黑成痂時也.

두창이 돋은 지 9일, 10일째는 두창이 점점 마르고 검어져 딱지가 생기는 시기이다.

○此時，必有大熱，或引飲異常，隨其輕重遲速，而火熱內熾，則一也. 必須預備糯米飲¹、月經、猪尾膏等藥，隨量痛²飲，惟以胸中爽然爲度可也. 若不降，此熱則輾轉生別症，不可不慎也. 或有症勢輕者，不必生熱，雖然，發熱者，十常八九，其不發幸矣. 此時，必有臂脚手足³之痛，蓋面部既已成靨⁴，故手足方欲肥脹成膿，而浮氣益加之致. 元非別症，其勢則然，而人家多不知此以爲⁵憂，此則不必憂也. 但於此時，或有白睛之上紅絲散漫，中有凸出之狀者，痘出而然也. 仍爲翳膜，犯於黑睛而成白點，氣血既復之後，雖有勿藥之喜，而豈可信其自愈而不急治乎. 惡實作細末，和井華水，作餅，貼付額門上，日再易，極妙.

○이때 반드시 열이 심하게 나는데 간혹 평소와 다르게 물을 많이 마시되 열의 경중(輕重)에 따라 증상이 느리거나 빠르게 나타나지만 화열(火熱)이 속에서 치성하기는 매 한 가지이다. 반드시 찹쌀미음·월경수(月經水)·저미고(猪尾膏) 등의 약을 미리 갖추어서 증세에 따라 먹이되 가슴 속이 상쾌해질 때까지 먹이는 것이 좋다. 만약 열을 내리지 않으면 이 열이 변해 다른 병증(病證)이 생기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반드시 열이 나지 않기도 하는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열이 나는 경우가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이고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다행일 것이다. 이때 반드시 팔다리와 손발이 아픈 증상이 있는데, 대개 얼굴에는 이미 딱지가 앉았기 때문에 손발은 이제 막 부어오르고 굵으려 해서 붓기가 더 심해진 것이다. 원래 특별한 증상이 아닌데도 그 증세가 그림적 하여 두창을 앓는 환자의 집안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근심하는데 이는 반드시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때 간혹 흰자위에 붉은 핏줄이 두루 퍼져있고 가운데에 튀어나온 것이 있는 경우는 두창이 돋으면서

그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예막(翳膜)이 되고 눈동자까지 침범하여 흰 점이 생겼다가 기혈(氣血)이 회복된 뒤에는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찌 저절로 낫는 것만 믿고 급하게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방자(惡實)를 곱게 가루내어 정화수(井華水)에 개서 떡처럼 만든 다음 숯구멍에 붙이고 하루에 두 번 바꿔주면 효과가 매우 좋다.

○此時, 有泄瀉者, 或赤白痢者, 皆瀉熱而發也. 果若瀉熱而發, 則數日後, 自至差⁶歇, 不必用藥也. 如其氣血俱虛, 熱乘其隙而發者, 日將加重, 終至難治. 急用保元湯, 加白芍微炒、白茯苓、白朮土炒 各一錢, 肉荳蔻、肉桂、黃連酒炒、乾薑炒黑 各七分, 連用數貼.

○이때 설사를 하거나 적백리(赤白痢)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모두 열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말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며칠 뒤에 저절로 나아질 것이니 반드시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기혈(氣血)이 모두 허한데 열이 그 틈을 타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끝내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다.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백작약(약간 볶은 것)、백복령、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각 1돈, 육두구、육계、황련(술에 축여 볶은 것)、건강(거무스름하게 볶은 것) 각 7푼 더한 약을 연달아 여러 첩 쓴다.

○此時, 手足臂脚⁷所出之痘, 方始肥脹充滿, 鍼刺出汁可也. 刺破之法, 見上貫膿條⁸.

○이때 손발과 팔다리에 두창이 돋는 것은 이제 막 부어올라서 진물이 차려는 것이니 침으로 찔러 진물을 빼내는 것이 좋다. 찔러서 터뜨리는 방법은 위의 '고름이 잡히는 3일〔貫膿三朝〕' 부분에 자세히 나온다.

○此時, 或有腹痛者, 用蟬退湯. 方見上. 此而不效, 用木香理中湯.

○이때 배가 아픈 경우에는 선퇴탕(蟬退湯)을 여러첩 쓴다. 처방은 위에 나온다. 이것으로 낫지 않으면 목향이중탕(木香理中湯)을 쓴다. 목향、인삼、백출、건강(습지에 싸서 구운 것)、감초(구운 것) 각 5푼. 여기에 우방자(볶아서 간 것)、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 각 5푼을 더한다.

1. 糯米飲：粘米 ※오사카본、대계본 ←

2. 量痛：量洞 ※오사카본、대계본 ←

3. 臂脚手足：四肢 ※오사카본、대계본 ←

4. 成靨：收靨 ※오사카본、대계본 ←

5. 爲：爲之 ※오사카본、대계본 ←

6. 差：虛 ※대계본 ←

7. 手足臂脚：四肢 ※오사카본、대계본 ←

8. 条：條 ※오사카본、대계본 ←

木香理中湯 | 목향이중탕

木香、人參、白朮、乾薑炮、甘草炙 各五分. 加鼠粘子炒研、黃連酒炒 各五分.

목향、인삼、백출、건강(습지에 싸서 구운 것)、감초(구운 것) 각 5푼. 여기에 우방자(볶아서 간 것)、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 각 5푼을 더한다.

○此時, 或有胸脅之痛, 在中脘近處者, 餘毒歸心而然也. 急用乳香散.

○이때 가슴과 옆구리가 아픈 것이 중완(中脘) 부근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남은 독기(毒氣)가 심(心)으로 들어가 그런 것이다. 급히 유향산(乳香散)을 쓴다.

乳香散 | 유향산

乳香 二錢, 水一盞, 煎服.

유향 2돈을 물 1잔으로 달여 먹는다.

○只有脅痛者, 由瘀血而作, 韭菜取汁用之可也. 此時, 或觸風寒而胸腹急痛者, 候似霍亂, 若以霍亂治之, 則非徒無益, 必至大危, 急用消風散.

○단지 옆구리만 아픈 것은 어혈(瘀血)로 인한 것이니 부추의 즙을 내어 먹이면 좋다. 이때 간혹 풍한(風寒)에 맞아 흉복부(胸腹部)가 갑자기 아프면서 그 증상이 객란(癰亂)과 비슷한데, 객란으로 여기고 치료하면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크게 위태로울 것이니 급히 소풍산(消風散)을 쓴다.

消風散 | 소풍산

荊芥穗、甘草 各一錢, 人參、白茯苓、白殭蠶、川芎、防風、藿香、蟬退去頭足翅、**姜活**¹ 各五分, 陳皮、厚朴薑製 各三分. 加柴胡 七分, 青皮 五分, 入細茶 一撮, 煎服, 或作末溫酒調下三四貼, 卽效.

형개수、감초 각 1돈, 인삼、백복령、백강잠、천궁、방풍、곽향、선향(머리, 다리, 날개를 떼는 것)、강활 각 5푼, 진피、후박(생강즙으로 법제한 것) 각 3푼. 여기에 시호 7푼, 청피 5푼을 더하고 작설차 한 줌을 넣어 달여 먹거나 이상의 약재를 가루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3-4첩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此時, 或有手足戰掉者, 氣虛致然也. 宜用保元湯, 加當歸、白芍酒炒、白茯苓 各一錢, 肉桂 七分.

○이때 간혹 손발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기(氣)가 허하여 그런 것이다. 마땅히 보원탕(保元湯)에 당귀、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백복령 각 1돈, 육계 7푼을 더하여 쓴다.

○此時, 或有顙戰者, 治法上同². 若或氣促, 則難治, 宜急用藥³.

○이때 간혹 턱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방법은 위와 같다. 만약 숨을 헐떡이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급히 약을 써야 한다.

○此時, 或瘡處濕爛不斂, 治法上同⁴, 而更⁵加白朮土炒 一錢, 以差爲度.

○이때 두창 앓은 부위가 짓무르고 아물지 않더라도 치료 방법이 위와 같은데, 위의 처방에 다시 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1돈을 더하여 나올 때까지 쓴다.

○此時, 或有陰囊浮大, 而年長者, 大如瓠瓜, 小兒則大如鵝卵. 盖綠⁶痘毒與濕熱下注而然也, 宜急用消毒飲.

○이때 음낭이 크게 붓는 증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크기가 어른은 박 만하고 어린이는 거위알 만한 경우가 있다. 대개 두창독과 습열(濕熱)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그런 것이니 급히 소독음(消毒飲)을 써야 한다.

1. 姜活：羌活 ※오사카본、대계본 ←
2. 上同：如上 ※오사카본、대계본 ←
3. 宜急用藥：오사카본、대계본에 없음 ←
4. 上同：如上 ※오사카본、대계본 ←
5. 更：又 ※오사카본、대계본 ←
6. 綠：緣 ※문맥상 ←

消毒飲 | 소독음

鼠粘子炒研 二錢, 荊芥穗 一錢, 防風、甘草 各五分. 加黃芩酒炒、生地黃酒洗、知母、草龍膽 各五分, 數貼, 甚效.

우방자(볶아서 간 것) 2돈, 형개수 1돈, 방풍·감초 각 5푼. 여기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생지황(술로 씻은 것)·지모·초용담 각 5푼을 더하여 여러 첩을 쓰면 효과가 매우 좋다.

然余見此症多矣, 皆勿藥自愈, 而人家不知, 莫不驚懼, 盖惟疾之憂, 無所不至故也.

하지만 내가 이런 증상을 많이 봤는데 모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았으나, 두창을 앓는 집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놀라서 두려워하기만 하니 대개 병을 근심하는 마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此時, 或有吐瀉並作者, 宜用定中湯. 方見上. 虛嘔者, 亦效.

○이때 구토와 설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정중탕(定中湯)을 써야 한다. 처방은 위에 나온다.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此時, 或有耽睡, 呼之不應, 勸其乳食¹, 而合眼搶頭, 亦不肯喫, 病弛氣困而然也. 氣困耽睡者, 宜用保元湯, 加白芍酒炒、當歸身、白茯苓、鼠粘子炒研 各一錢, 肉桂 七分, 薑一片, 糯米 百粒, 同煎服之.

○이때 간혹 잠에 빠져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젖을 억지로 먹이려 해도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면서 먹으려 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 풀리면서 기(氣)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다. 기가 부족하여 잠에 빠지는 경우는 보원탕(保元湯)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신·백복령·우방자(볶아서 간 것) 각 1돈, 육계 7푼,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더하여 함께 달여 먹는다.

○氣短而耽睡者, 亦用右藥², 而難救者居多. 盖初不能審其虛實隨症用藥, 而及至此境, 奄奄自盡, 慎之.

○숨이 짧으면서 잠에 빠진 경우에도 이 약을 쓰는데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처음부터 그 허실을 살펴서 증후에 따라 약을 쓰지 못한 채 이 지경에 이르면 쇠약해져 저절로 죽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此時, 譫語見鬼者, 熱也, 昏昏不省者, 亦熱也. 月經・猪尾膏等藥³, 連續用之可也. 若或症⁴危惡, 似不能救者, 則治法同黑陷.

○이때 헛소리를 하고 귀신이 보이는 증상은 열(熱)로 인한 것이고 정신이 흐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증상도 열로 인한 것이다. 월경수(月經水)·저미고(猪尾膏) 등의 약을 연달아 쓰는 것이 좋다. 만약 증세가 매우 위중하여 구제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두창이 검게 폭 꺼질 때(黑陷)와 똑같이 한다.

○此時, 或有諸症難名, 若氣短, 若氣虛, 若嘔泄, 若昏睡, 若不省, 若奄奄垂盡, 敗症俱見者, 宜用⁵四聖回天湯.

○이때 간혹 이름붙이기 어려운 병증이 나타나는데 기(氣)가 허한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짧은 것 같기도 하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흐려서 자는 것 같기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몹시 쇠약하여 다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 등 온갖 안 좋은 증후가 다 나타나면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을 써야 한다.

1. 乳食：食乳 ※오사카본、대계본 ←

2. 右藥：上方 ※오사카본、대계본 ←

3. 藥：劑 ※오사카본、대계본 ←

4. 症：有 ※오사카본、대계본 ←

5. 宜用：急用 ※오사카본、대계본 ←

四聖回天湯 | 사성회천탕

人參、黃耆、當歸身 各一¹錢, 石雄黃水飛末 二錢, 臨服時調下. 如或黑陷, 加白朮 二錢. 以差爲度, 極妙.

인삼·황기·당귀신 각 1돈, 수비(水飛)한 석웅황 가루 2돈(약을 먹을 때 타서 먹는다). 검게 폭 꺼지는 경우에는 백출 2돈을 더한다. 호전될 때까지 쓰면 매우 효과가 좋다.

○此藥², 卽全有馨之所製也. 其自跋有曰, 十全十百全百, 此則自多之辭也, 未必其然. 而人家痘疾, 自初不用藥³治, 危症雜出然後, 始問於余. 欲用他藥, 則別無的指之症, 而形勢則極危, 試用此藥⁴, 頗有回生者⁵. 盖人參、黃耆補氣, 當歸身補血, 石雄黃寧脾胃, 治瘡毒故也.

○이 약은 전유형(全有亨)⁶이 지은 처방이다. 그가 발문(發文)을 지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많다고 한 말이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집안에 두창이 돌았는데 처음부터 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다가 위중한 증후가 많이 나타난 뒤에서야 나에게 물으러 왔다. 다른 약을 쓰고자 해도 정확하게 꼬집을 증후가 특별히 없었고 병세는 지극히 위중해졌는데, 시험삼아 이 약을 썼더니 살아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 대개 인삼·황기는 기(氣)를 보하고 당귀신은 혈(血)을 보하며 석웅황은 비위(脾胃)을 편하게 하고 창독(瘡毒)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此時, 或眼有赤白翳膜者, 可以急治, 而氣血未復之前, 輕用瀉藥, 非徒無益於眼患, 或有關於死生, 必須完復之後, 方可藥⁷治, 而又或自愈者, 亦有之.

○이때 눈에 붉고 흰 예막(翳膜)이 끼는 경우에는 급히 치료할 수 있는데, 기혈(氣血)이 아직 회복되기 전에 경솔히 사(瀉)하는 약을 쓰면 눈의 질환에 이로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회복된 뒤에야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 간혹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다.

1. 一：二 ※규장각본 ↩

2. 藥：方 ※오사카본、대계본 ↩

3. 藥：醫 ※오사카본、대계본 ↩

4. 藥：劑 ※오사카본、대계본 ↩

5. 回生者：回生之者多 ※오사카본、대계본 ↩

6. 원문에는 '全有馨'으로 되어 있는데, 실록에 '同知 全有亨'이 나오는 것 외에 '全有亨'과 '全有馨'을 같은 인물로 볼 만한 기록들이 다소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제 참고) ↩

7. 藥：醫 ※오사카본、대계본 ↩

反眼之症 |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

必出於收靨之時, 而其爲形也, 上睫之毛, 必倒豎, 或直豎向前所見異常, 或上睫之內, 有紅肉垂下. 有此症者, 惛慌不省, 或狂言見鬼. 盖此形症, 古方之所不論, 故傍人但見其危篤, 而不知所以救之方. 余雖素昧醫術, 經驗痘瘡, 不啻數千人, 遇此症, 不能救者, 凡五人. 不勝其慨然, 訪問於業醫者曰, 眼胞屬脾胃, 而有此症者, 想必餘熱入脾胃故也, 請教, 以只除脾胃熱之藥¹, 則皆曰不可知也. 莫有議定者, 故余亦自以爲若遇此症決不可救矣. 適有一冠者患痘, 自初極其危險, 渾家無望回生, 族人隣里聞之者, 皆謂必死. 余又決意難救, 而隨症用藥, 僅得生道矣. 收靨之時, 此症忽出, 余意立而視其死, 不若試用方藥, 以僥萬一之幸. 遂按古書, 自作方文, 名之曰連翹石膏湯. 急劑用之二貼, 而反眼即差, 終至生全. 自得此藥用輒神效, 而但症勢重者, 三四貼必愈, 十無一失, 痘家亦可審察²矣.

이 증상은 반드시 딱지가 앉는 시기에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윗 속눈썹이 반드시 거꾸로 뻗치거나 앞으로 곧게 뻗쳐 생김새가 평상시와 다르거나 윗 속눈썹 안에 붉은 살이 늘어져 있다. 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황이 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미친 소리를 하고 귀신을 본다. 대개 이런 형증은 옛 방서(方書)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독함만 알 뿐 구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비록 의술에 어둡지만 두창(痘瘡) 환자를 경험한 것이 비단 수천 명뿐이 아닌데, 이 증상을 보고 구제하지 못한 경우가 전부 5명이었다. 그 개탄스러움을 참지 못하여 의원을 찾아가 물어보기를 "눈꺼풀은 비위(脾胃)에 속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남은 열이 비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위의 열을 없애는 약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논의하여 정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 또한 스스로 이런 증상을 만난다면 결코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마침 약관의 한 사람이 두창을 앓아 처음부터 그 증세가 매우 위험하였는데 온 집안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여겼고 소식을 들은 이웃 마

을의 친족들도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다. 나 또한 결코 구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증상에 따라 약을 썼다. 딱지가 앓을 때 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그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시험삼아 약을 써서 만에 하나 있는 행운을 바라는 것만 못하다 생각하였다. 마침내 옛 서적을 찾아보고 스스로 방문(方文)을 지어 연교석고탕(連翹石膏湯)이라 명명하였다. 급히 약을 지어 2첩을 썼더니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이 나았고 끝내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스스로 터득하기에 이 약은 쓰자마자 좋은 효과를 보이며 증세가 위중할 경우라도 3-4첩이면 바로 낫고 열에 하나라도 실패가 없었으니, 두창을 앓는 환자의 집안도 이를 살피야 할 것이다.

1. 藥：劑 ※오사카본、대계본 ←

2. 審察：深察 ※오사카본、대계본 ←

連翹石膏湯方文 | 연교석고탕(連翹石膏湯)의 방문(方文)

連翹、石膏研甘草煎水水飛¹ 各一錢半, 葛根、生地黃、大黃、山梔子² 各七分, 升麻、赤茯苓、赤芍藥³ 各五分, 甘草 三分. 加黃芩酒炒、黃連酒炒 各七分.

연교、석고(갈아서 감초 달인 물로 수비(水飛)한 것) 각 1돈 반, 갈근、생지황、대황、산치자 각 7푼, 승마、적복령、적작약 각 5푼, 감초 3푼. 여기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황련(술에 축여 볶은 것) 각 7푼을 더한다.

○此後諸症, 或泄瀉嘔吐, 或眼患, 皆已略論於上, 各以其藥治之可也.

○이후의 여러 증상은 설사나 구토를 하기도 하고 눈병을 앓기도 하는데 모두 위에서 대략적으로 논해뒀으니 각각 그에 맞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1. 水水飛 : 水飛 ※오사카본、대계본 ←

2. 山梔子 : 山梔 ※오사카본、대계본 ←

3. 赤芍藥 : 赤芍 ※오사카본、대계본 ←

痘瘡經驗方:攷事新書¹ | 두창경험방:고사신 서본

¹. 攷事新書：攷事新書卷之十五 醫藥門에 있음 ←

삼가 찬바람을 피하고 절대 날것과 찬 것을 금해야 하니, 이 경계를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謹避風寒, 切禁生冷, 終始宜守此戒.

謹避風寒, 切禁生冷, 終始宜守此戒. | 삼가 찬바람을 피하고 절대 날것과 찬 것을 금해야 하니, 이 경계를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忌一切香臭、惡臭, 凡燒煮油炒煙臭, 滅燈燭臭, 燒髮毛羽, 去糞穢通溝渠惡臭. 又忌房中淫慾、梳頭, 巫覡僧尼外人, 切勿出入, 要令內外安靜.

○모든 향기, 나쁜 냄새와 일반적으로 태우거나 굽거나 기름에 볶을 때 나는 연기의 냄새, 촛불이나 등불이 꺼질 때 나는 냄새, 머리카락, 터럭, 깃털이 타는 냄새, 더러운 똥을 치우고 도량을 정비하면서 생기는 나쁜 냄새를 금한다. 또한 음욕(淫慾)과 머리 빚는 것을 금하고, 무당, 승려, 외부인을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내외를 안정토록 해야 한다.

○禁忌食物. 生梨、紅柿、西瓜、大棗、乾柿、沉柿、柑子、橘、柚, 一切酸醎寒冷等物.

○금해야 할 음식. 생 배, 수박, 대추, 꽃감, 오래 담아둔 물, 홍굴(柑子), 굴, 유자와 모든 신 것, 짠 것, 차가운 것 등.

○凡痘熱盛, 故自不思魚肉, 而巫以爲僧神, 舉家素飡. 甚者病兒雖索魚肉, 巫曰神故欲戲之, 惶恐不敢與喫, 使氣血益虛而變症雜出, 以至難救. 痘家所宜深戒也.

○무릇 두창(痘瘡)은 열이 성하므로 자연스레 생선, 고기를 찾지 않는데, 무녀가 이를 중귀신(僧尼之神)이라 여겨 온 집안이 채소류만 먹는다. 심한 경우는 병든 아이가 생선이나 고기를 찾아도 무녀가 귀신이 놀리려는 것 때문이라 하여 두려워서 감히 먹이지 못하는데, 기혈(氣血)을 더욱 허하게 하고 전변(轉變)된 증상이 뒤섞여 나오게 하여 구제하기 어렵게 된다. 두창 환자가 있는 집 안이라면 마땅히 깊게 경계해야 할 바이다.

삼가 찬바람을 피하고 절대 날것과 찬 것을 금해야 하니, 이 경계를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謹避風寒, 切禁生冷, 終始宜守此戒.

初熱三日 | 처음 열이 나는 3일

初覺有痛, 勿論傷寒、痘疾, 急用升麻葛根湯.

처음 통증을 느낄 때 상한、두창에 관계없이 급히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쓴다.

升麻葛根湯 | 승마갈근탕

葛根 二錢, 白芍藥、升麻、甘草 各一錢. 加入荊芥穗、鼠粘子炒、山楂肉 各七分.

갈근 2돈, 백작약·승마·감초 각 1돈. (여기에) 형개수·우방자(볶은 것)·산사육 각 7푼을 더한다.

○小兒不肯服藥, 用金銀花或忍冬茶, 以發汗爲度, 而終不如湯藥也.

○어린 아이가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 금은화나 인동 차를 따미 날 정도로 쓰는데, 결국 탕약만 못하다.

○此時, 或發驚搐, 窒塞目竅, 切不把持, 任其搐搦, 急用牛黃抱龍丸, 或抱龍丸. 甘草、薄荷 等分, 煎水, 調下瀉青丸, 亦妙.

○이때, 놀라고 경련이 일어나서 숨이 막히고 눈을 치켜뜨게 되더라도 절대 붙잡지 말고 경련하는 대로 두며, 급히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이나 포룡환(抱龍丸)을 쓴다. 감초·박하 같은 양을 물에 달여 그 물에 사청환(瀉青丸)을 타서 먹어도 효과가 좋다.

○此時, 或吐, 或瀉, 或吐瀉并作, 自此至出痘終日, 症雖苦劇, 皆不妨.

○이때,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번갈아 한다면, 이때부터 두창(痘瘡)이 돋는 마지막까지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모두 해가 되지 않는다.

○此時, 若腰痛, 將必黑陷, 急急用神解湯.

○이때, 만약 허리가 아프다면 반드시 환부가 검게 폭 꺼질 것이니, 급히 신해탕(神解湯)을 쓴다.

神解湯 | 신해탕

柴胡 一錢半, 乾葛、防風 各一錢, 麻黃、升麻、白茯苓 各八分, 甘草 五分. 煎服後, 溫覆出汗, 而不汗再服, 以痛止爲度. 若無藥, 則只宜多汗, 而能食者, 免黑陷.

시호 1돈 반, 건갈·방풍 각 1돈, 마황·승마·백복령 각 8푼, 감초 5푼. 달여 먹은 뒤 따뜻하게 옷가지나 이불을 덮어 땀을 내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 통증이 멎을 때까지 다시 먹는다. 만약 약이 없으면 땀이라도 많이 나게 하면 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검게 푹 꺼지는 상황은 면할 것이다.

○此時, 或發渴, 切勿與冷水, 或金銀花茶, 或糯米煎水, 或三豆飲, 皆可飲. 又紅花子煎水, 亦妙.

○이때, 갈증이 나더라도 절대 찬물을 주면 안 되는데, 금은화차나 찹쌀 끓인 물이나 삼두음(三豆飲)은 모두 먹일 수 있다. 또 홍화자 달인 물도 효과가 매우 좋다.

出痘三日 | 두창이 돋는 3일

始痛, 一日即發者極重, 二日發者亦重, 三日發者例也. 或游戲, 四五六七日乃出者, 勿藥之類也.

알기 시작하여 하루 만에 돋아나는 경우는 극히 위중하고 이틀 만에 돋아나는 경우도 위중하며 사흘 만에 돋아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간혹 잘 놀다가 4-5일, 6-7일 만에 돋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此時, 吐瀉, 不足憂也.

○이때,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初見紅點, 急用化毒湯.

○붉은 점이 처음 드러나면 급히 화독탕(化毒湯)을 쓴다.

化毒湯 | 화독탕

紫草茸、升麻、甘草 各一錢. 加白芍藥 一錢, 山楂肉 七分, 蟬殼去頭足翅 五分, 糯米 百粒. 煎服限三日, 日再服, 則能令痘稀, 且無痘後諸症, 痘疫初程之聖藥也.

자초용、승마、감초 각 1돈. 여기에 백작약 1돈, 산사육 7푼, 설퇴(머리, 다리, 날개를 뗀 것) 5푼, 찹쌀 100알을 더한다. 달여서 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먹으면 두창이 드물게 돋도록 하고 또 두창을 앓은 뒤에 여러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니 두창 초기에 쓰는 성약(聖藥)이다.

○此時, 又急用乾臙脂, 調於白蜜, 頻頻塗眼眶口唇鼻孔耳中, 以防痘出. 砂鉢臙脂, 和朱砂用, 亦有少效.

○이때, 또 급히 건연지를 꿀에 개어 양 눈가, 입술, 콧구멍, 귓속에 발라 두창이 돋는 것을 막는다. 사발연지에 주사를 섞어서 써도 약간 효과가 있다.

○此時, 痘出太多毒盛, 急用連翹升麻湯.〔即升麻葛根湯, 加連翹一錢者也.〕

○이때, 두창이 아주 많이 돋아 독기가 치성하거든 급히 연교승마탕(連翹升麻湯)을 쓴다.〔연교승마탕은 승마갈근탕에 연교 1돈을 더한 것이다.〕

○此時, 急用鼠粘子, 作末, 井水調, 付兒額門, 以防眼患.

○이때, 급히 우방자를 가루내어 우물물에 개어 두창을 앓는 아이의 콧구멍에 붙여 눈에 병이 드는 것을 예방한다.

○此時, 或發驚搐窒塞, 此則逆症也. 急用加減紅綿湯.

○이때, 간혹 경련을 일으키며 숨이 막히는데 이는 역증(逆證)이다. 급히 가감홍면탕(加減紅綿湯)을 쓴다.

加減紅綿湯 | 가감홍면탕

麻黃去節、全蝎去毒、荊芥穗、紫草茸、蟬殼 各五分, 蔥白 一莖, 煎服.

마황(마디를 제거한 것)、전갈(독을 제거한 것)、형개수、자초용、선퇴 각 5
푼, 총백 1줄기를 달여서 먹는다.

○此時, 腹痛者, 痘自腸胃出故也. 用蟬退湯.

○이때, 배가 아픈 것은 두창이 장위(腸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선퇴탕을 쓴
다.

蟬退湯 | 설퇴탕

蟬殼 十箇, 甘草 一錢半. 煎服, 或爲末, 白湯調下, 卽效.

설퇴 10개, 감초 1돈 반. 달여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끓인 물에 타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此時, 或大渴求飲不已, 紅花子 一合, 水煎服, 或菉豆、赤豆、黑小豆 各一合, 烏梅 三箇, 水煎服, 渴自止. 月經亦宜用.

○이때, 갈증이 심하여 물을 끊임없이 찾는다면 홍화자 1홉을 물에 달여 먹거나 녹두、적소두、흑두 각 1홉, 오매 3개를 물에 달여 먹으면 갈증이 저절로 멎는다. 월경(月經)도 쓰는 것이 좋다.

○取月經法. | ○월경을 쓰는 법.

糯米一握, 井水四大碗, 煎至半, 候冷, 濃洗月經, 渴時連續用之. 盖糯米, 治痘毒, 養胃氣, 止泄瀉, 雖用十盆, 終無泄瀉之憂.

찹쌀 1줌에 큰 사발로 우물물 4사발을 부어 절반이 될 때까지 달인 다음 식으면 월경을 진하게 우려내어 갈증이 날 때 연달아 쓴다. 대개 찹쌀은 두창의 독기를 치료하고 위기(胃氣)를 기르며 설사를 멎게 하는데, 10동이를 쓰더라도 결코 설사할 걱정이 없다.

○此時, 或有四肢百節皆痛者, 此由痘未快出, 或由未盡和解. 而然勿藥自愈.

○이때, 간혹 팔다리의 마디가 모두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는 두창이 잘 돋지 않기 때문이거나 두창을 다 앓지 않았는데 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此時, 可以觀形色, 卞虛實用藥.

○이때, 형색(形色)을 살피고 허실(虛實)을 가려서 약을 쓸 수 있다.

○出痘終日.(自初出第三日.) 此時, 或有痒症, 以木麥末, 糝於痒處, 以手揩摩卽止. 若木麥末不效, 用敗草散(勿論郊草穀草, 多年盖屋, 受日月霜露風雨, 極腐爛者也.) 末糝之, 以手揩摩卽效. 凡痘, 或爪破, 或潰爛流血流汁處, 皆可糝之.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두창이 처음 돋은 날로부터 3일째.) 이때, 가려운 증상이 있거든 메밀가루를 가려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문지르면 가려움이 멎는다. 만약 메밀가루가 효과가 없으면 패초산(敗草散)(들풀이든 짚풀이든 관계없이 오랫동안 이슬·서리·비바람을 맞아 심하게 썩어 문드러진 것이다.) 가루를 뿌려서,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바로 효과가 있다. 대체로 두창을 앓으면서 손톱으로 터뜨리거나 문드러져서 피와 진물이 흐르는 부위에 모두 뿌릴 수 있다.

○월경을 쓰는 법. ○取月經法.

○止痒, 莫如水楊.

○가려움을 멎게 하는 데에는 수양(水楊)만한 것이 없다.

水楊湯 | 수양탕

取溪邊大葉赤枝之楊剉之, 大旱不斷之長流水, 猛煮六七沸, 乘其水極熱, 以絢巾頻頻淋洗面部, 而久洗方有效. 故必以兩器遞易, 溫之, 日夜數十次, 多多益好. 此藥能引出毒氣, 故頂陷者皆起, 如或黑陷處, 則綿絮量其大小廣狹而裁之, 漬此水, 乘熱遞付, 焦黑者, 皆濕爛, 毒不入裏. 如倒靨之類, 尤見奇效, 外治之藥, 無過於此. 自此, 至落痂, 連日夜洗之. 但冬月浴之, 恐觸風寒, 只洗面上可也. 春夏用葉, 秋冬用枝. (寶鑑曰, 春冬用枝, 夏秋用葉, 水一釜, 入楊五斤.)

시냇가의 잎이 크고 가지가 붉은 버드나무를 꺾어두고 심한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늘 흐르는 물을 길러 강한 불에 예닐곱 번 끓인 뒤에 그 물을 뜨거운 채로 명주 수건에 적서 얼굴을 자주 씻어주는데 오래 씻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릇 두 개를 바뀔가며 데워서 밤낮으로 수십 번씩 씻는데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이 약은 독기(毒氣)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창의 고트머리가 폭 꺼진 것도 다 부풀어 오르고, 혹시 검게 폭 꺼진 부위라도 숨 적당량을 잘라서 이 물을 적서 뜨거운 채로 붙여두면 모두 축축하게 헐어서 독기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딱지가 지지 않는 부류일 경우 더욱 효과가 좋은데, 외용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때부터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연달아 밤낮으로 씻어준다. 단 겨울에 목욕을 하면 찬바람에 맞을까 우려되므로 얼굴만 씻는 것이 좋다. 봄·여름에는 잎을 쓰고 가을·겨울에는 가지를 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봄·겨울에는 가지를 쓰고 여름·가을에는 잎을 쓰는데, 물 1술에 버드나무 5근을 넣는다."라고 하였다.)

○此時, 必有咽痛, 連用猪尾膏〔未泄精小雄猪尾尖, 以利刀裂, 取血, 和龍腦, 作丸小豆大, 溫淡湯下, 或紫草煎水下.〕、如聖飲.

○이때, 반드시 목구멍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저미고(猪尾膏)(아직 정액을 배설하지 않은 새끼 수돼지의 꼬리 끝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 피를 받은 다음 용뇌와 섞어 팔알 크기로 환약을 만들어 온담탕(溫膽湯)(溫淡湯)으로 먹거나

자초 달인 물로 먹는다.)、여성음(如聖飲) 등의 약을 연달아 쓴다.

如聖飲 | 여성음

麥門冬、桔梗 各一錢, 鼠粘子、甘草 各五分, 竹葉 三片.

맥문동、길경 각 1돈, 우방자、감초 각 5푼, 죽엽 3조각.

如其毒盛, 用加味犀角消毒飲.

만약 독기가 성하면 가미서각소독음(加味犀角消毒飲)을 쓴다.

加味犀角消毒飲 | 가미서각소독음

鼠粘子炒研 二錢, 防風、升麻 各七分, 荊芥穗、麥門冬、桔梗 各五分. 犀角屑 五分, 臨服調下, 或煎服之. 亦得四貼, 日再服.

우방자(볶아서 간 것) 2돈, 방풍、승마 각 7푼, 형개수、맥문동、길경 각 5푼.
서각 가루 5푼은 약을 먹을 때 타서 먹거나 달여서 먹는다. 또한 4첩을 준비하여 하루에 2번 먹는다.

起脹三日〔自出痘第四日.〕| 부풀어 오르는 3일〔두창이 돋은 때부터 4일째.〕

痘順者, 已自昨始有脹意, 先出者先起, 以次漸起, 凡痘之虛實, 毒之淺深, 全在此間. 若痘密勢重, 急用神功散數貼, 以救之.

두창의 증후가 순한 경우에는 이미 전 날부터 부풀어 오르는 기미가 있는데 먼저 돋아난 것은 먼저 부풀고 차례대로 점차 부풀어 오르니, 두창의 허실과 독기(毒氣)의 깊고 얇음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만약 두창이 뻣뻣하게 들어서 증세가 위중한 경우라면 급히 신공산(神功散)을 여러 첩 써서 구제한다.

神功散 | 신공산

黃芪、人蔘、白芍藥、紫草、生地黃、牛蒡子、紅花 各等分, 前胡、甘草 減半.

황기、인삼、백작약、자초、생지황、우방자、홍화 각기 같은 양, 전호、감초 절반 분량.

若症險, 用神功散數貼, 連用內托散.

만약 증상이 위태로운 경우라면 신공산을 여러 첩 쓴 뒤에 이어서 내탁산(內托散)을 쓴다.

內托散 | 내탁산

黃芪蜜炙、人蔘、當歸、川芎、厚朴薑炒、防風、桔梗、白芷、甘草 各一錢, 木香、官桂 各三分. 若淡白灰黑陷伏, 更加丁香五粒.

황기(꿀물에 축여 구운 것)、인삼、당귀、천궁、후박(생강 즙에 축여 볶은 것)、방풍、길경、백지、감초 각 1돈, 목향、관계 각 3푼. 만약 희멀겑고 잿빛처럼 거무스름하며 폭 꺼진 경우에는 여기에 정향 5알을 더한다.

○此時, 困頓委憊, 啼號不安者, 例也.

○이때, 정신이 곤핍하고 몸이 고달프며 울면서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此時, 若煩渴, 用紅花子湯, 或烏梅湯.〔方見上出痘條.〕若咽痛不可忍, 口舌生瘡, 不能吮乳, 用加味犀角消毒飲.〔方見上.〕加芩連並炒、連翹 各七分, 極妙.

○만약 번열이 오르고 갈증이 있으면 홍화자탕(紅花子湯)이나 오매탕(烏梅湯)을 쓴다.〔처방은 위의 '두창이 돋는 3일(出痘三朝)'에 나온다.〕만약 목구멍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입과 혀가 헐어서 젖을 빨지 못하면 가미서각소독음(加味犀角消毒飲)을 쓴다.〔처방은 위에 나온다.〕

若不起脹虛者, 用保元湯.

만약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허한 경우에는 보원탕(保元湯)을 쓴다.

保元湯 | 보원탕

人蔘 二錢, 黃芪、甘草 各一錢. 加當歸、白茯苓、白芍藥微炒 各一錢, 肉桂 五分, 生薑 一片, 糯米 百粒.

인삼 2돈, 황기、감초 각 1돈. 여기에 당귀、백복령、백작약(약간 볶은 것) 각 1돈, 육계 5푼,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넣는다.

○此時, 若泄瀉則大危, 急用保元湯, 加白芍藥微炒、白茯苓、白朮、乾薑炒黑、肉桂 各七分, 犀角屑 五分.

○이때, 설사를 하면 매우 위험하니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백복령、백출、건강(거무스름하게 볶은 것)、육계 각 7푼, 서각 가루 5푼 더한 것을 쓴다.

○此時, 痘全白者, 由氣虛也. 用保元湯, 加當歸、白茯苓、白芍藥酒炒 各一錢, 官桂 七分, 生薑 一片, 糯米 百粒, 數貼, 以紅活爲度. 痘色紅紫者, 用保元湯, 加木香、當歸、川芎 各七分. 痘色太紅近紫者, 由血虛也. 用四物湯, 生乾地黃酒炒、白芍藥炒、當歸、川芎 各一錢, 加黃芩酒炒、紫草、紅花 各七分.

○이 때 두창의 색이 완전히 흰 것은 기(氣)가 허하기 때문이다. 보원탕(保元湯)에 당귀、백복령、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각 1돈, 관계 7푼,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더한 것 여러첩을 두창의 색이 붉고 생기가 돌 때까지 쓴다. 이 때 두창의 색이 자줏빛을 띠면 보원탕(保元湯)에 목향、당귀、천궁 각 7푼씩을 더하여 쓴다. 두창의 색이 너무 붉어 자색(紫色)에 가까운 것은 혈(血)이 허하기 때문이다. 사물탕(四物湯)인 생견지황、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천궁 각 1돈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자초、홍화 각 7푼을 더하여 쓴다.

○此時, 若痛甚不可忍, 則白芍藥細末 每一錢, 淡酒調下, 以黃土細末, 糝於痛處.

○이 때 만약 통증이 심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백작약을 곱게 가루내어 약한 술에 1돈씩 타서 먹고 황토를 곱게 가루내어 아픈 부위에 뿌린다.

○此時, 發痒, 考上出痘終日條用藥.

○이 때 가려움증이 있으면 위의 '두창이 돋는 마지막 날〔出痘終日〕'을 참고하여 약을 쓴다.

○此時, 水楊湯, 日夜頻頻淋洗面部可也.

○이 때 수양탕(水楊湯)을 가지고 밤낮으로 얼굴을 자주 씻어주면 좋다.

貫膿三日 | 고름이 잡히는 3일

〔自出痘至六七日.〕

〔두창이 돋은 지 6-7일째.〕

凡痘順者, 第六日, 顆色白, 已有向膿之漸. 七日則面部浮氣益加, 此例症也. 八日浮氣稍減, 亦能開眼, 咽痛亦少愈.

두창의 증세가 가벼운 경우는 6일째에 두창의 색이 하얗게 되어 이미 끓으려 한다. 7일째가 되면 얼굴의 부기가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8일째에 부기가 점차 줄어들면 눈을 뜰 수도 있고 목구멍이 아픈 증상 또한 조금 줄어든다.

○此時, 或吐, 或瀉, 或吐瀉, 大危也. 急用定中湯.

○이 때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함께 하거나 할 경우는 매우 위험하니 급히 정중탕(定中湯)을 쓴다.

定中湯 | 정중탕

取眞正黃土一塊, 置碗內, 以百沸湯泡之, 以蓋合, 候冷, 右用兩酒盞, 和水飛朱砂末五分, 水飛雄黃末一錢, 少加砂糖, 溫服.

셋노란 흙 한 덩어리를 사발 안에 넣고 끓는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다가 식으면 술잔으로 두 잔을 떠서 거기에 수비(水飛)한 주사 가루 5푼과 수비한 석웅황 가루 1돈을 섞고 설탕을 약간 넣어 따뜻하게 먹는다.

○此時, 宜以銀鍼刺之, 橫貫痘顆, 則汁自流出極妙. 無銀鍼則竹鍼亦好.

○이때에는 은침(銀鍼)으로 찔러서 두창을 옆으로 꿰뚫으면 진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니 효과가 매우 좋다. 은침이 없으면 대나무침(竹鍼)을 써도 좋다.

○此時, 必發痒, 頻以水楊湯點之, 或有痒甚爪破者, 後必癍痕, 以紬巾裹手指, 就其痒處按之. 甚緊則或有顆粒自破汁出, 亦不妨.

○이때는 반드시 가려움증이 생기니 수양탕(水楊湯)으로 가려운 곳에 자주 찍어주고, 가려움이 심해 손톱으로 뜯은 경우 나중에 반드시 흉이 지는데 이때는 고운 수건으로 손가락을 감싸서 그 가려운 곳을 눌러준다. 매우 부풀면 두창 돛은 것이 저절로 터져 진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또한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此時, 熱候必盛, 連用月經, 間以猪尾膏, 以降熱. 熱極者, 多用, 以胸中爽然爲度, 不然熱自入內, 終至危境, 慎之慎之.

○이때는 열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월경수(月經水)를 연달아 쓰고 중간 중간에 저미고(猪尾膏)를 써서 열을 내린다. 열이 극심할 경우 가슴 속이 상쾌해질 정도로 월경수·저미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이 속으로 들어가 끝내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이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

收靨三日 | 딱지가 앉는 3일

〔自出痘至九日十日，而稍稍焦黑成痂時也。〕

〔두창이 돋은 지 9일, 10일째는 두창이 점점 마르고 검어져 딱지가 생기는 시기이다.〕

此時，必有大熱，或引飲異常，預備糯米飲、月經、猪尾膏藥，隨量痛飲，以胸中爽然爲度。症輕者，或不生熱，然發熱者，十常八九矣。

이때 반드시 열이 심하게 나고 간혹 평소와 다르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 찹쌀미음、월경수(月經水)、저미고(猪尾膏) 등의 약을 미리 갖추어서 증세에 따라 먹이되 가슴 속이 상쾌해질 때까지 먹인다. 증세가 가벼운 경우 간혹 열이 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열이 나는 경우가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이다.

○此時，必有臂脚手足之痛，盖面部既已成靨，故手足方欲脹膿，浮氣益加之致。元非別症，此則不必憂也。

○이때 반드시 팔다리와 손발이 아픈 증상이 있는데, 대개 얼굴에는 이미 딱지가 앉았기 때문에 손발은 이제 막 부어오르고 끓으려 해서 붓기가 더 심해진 것이다. 원래 특별한 증상이 아니기에 이것은 반드시 걱정할 일은 아니다.

○此時，或有白睛上紅絲散漫，中有凸出之狀者，痘出而然也。仍爲翳目，犯黑睛而成白點，氣血既復之後，雖有勿藥之喜，而豈可信其自愈而不急治乎。惡實作細末，和井華水，作餅，貼付額門上，日再易，妙。

○이때 간혹 흰자위에 붉은 핏줄이 두루 퍼져있고 가운데에 튀어나온 것이 있는 경우는 두창이 돋으면서 그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예막(翳膜)이 되고 눈동자까지 침범하여 흰 점이 생겼다가 기혈(氣血)이 회복된 뒤에는 약을 쓰지 않

아도 낫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찌 저절로 낫는 것만 믿고 급하게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방자(惡實)를 곱게 가루내어 정화수(井華水)에 개서 떡처럼 만든 다음 솥구멍에 붙이고 하루에 두 번 바꿔주면 효과가 좋다.

○此時, 有泄瀉, 或赤白痢者, 皆瀉熱而發也. 數日後, 自差, 不必用藥. 如氣血俱虛, 熱乘其隙而發者, 日將加重, 終至難治. 急用保元湯, 加白芍藥微炒、白茯苓、白朮土炒 各一錢, 肉豆蔻、肉桂、黃連酒炒、乾薑炒黑 各七分, 連用數貼.

○이때 설사를 하거나 적백리(赤白痢)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모두 열이 빠져 나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며칠 뒤에 저절로 나아질 것이니 반드시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기혈(氣血)이 모두 허한데 열이 그 틈을 타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끝내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다.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백작약(약간 볶은 것)、백복령、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각 1돈, 육두구、육계、황련(술에 축여 볶은 것)、건강(거무스름하게 볶은 것) 각 7푼 더한 약을 연달아 여러 첩 쓴다.

○此時, 手足臂脚所出之痘, 方始肥脹, 鍼刺出汁可也. 法見貫膿條.

○이때 손발과 팔다리에 두창이 돋는 것은 이제 막 부어올라서 진물이 차려는 것이니 침으로 찔러 진물을 빼내는 것이 좋다. 방법은 위의 '고름이 잡히는 3일〔貫膿三朝〕' 부분에 자세히 나온다.

○此時, 有腹痛者, 用蟬退湯.〔方見上.〕而此不效, 用木香理中湯.

○이때 배가 아픈 경우에는 선퇴탕(蟬退湯)을 여러첩 쓴다.〔처방은 위에 나온다.〕이것으로 낫지 않으면 목향이중탕(木香理中湯)을 쓴다.

木香理中湯 | 목향이중탕

木香、人蔘、白朮、乾薑炮、甘草炙 各五分. 加鼠粘子炒研、黃連酒炒 各五分.

목향、인삼、백출、건강(습지에 싸서 구운 것)、감초(구운 것) 각 5푼. 여기에 우방자(볶아서 간 것)、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 각 5푼을 더한다.

○此時, 胸膈之痛, 在中脘近處者, 餘毒歸心然也. 急用乳香 二錢, 水一盞, 煎服. 只有脅痛者, 由瘀血而作, 韭菜取汁用之可也.

○이때 흉격(胸膈)의 통증이 중완(中脘) 부근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남은 독기(毒氣)가 심(心)으로 들어가 그런 것이다. 급히 유향 2돈을 물 1잔으로 달여 먹는다. 단지 옆구리만 아픈 것은 어혈(瘀血)로 인한 것이니 부추의 즙을 내어 먹으면 좋다.

○此時, 觸風寒而胸腹急痛者, 候似癰亂, 若以癰亂治之, 則必致大危, 急用消風散.

○이때 간혹 풍한(風寒)에 맞아 흉복부(胸腹部)가 갑자기 아프면서 그 증상이 객란(癰亂)과 비슷한데, 객란으로 여기고 치료하면 반드시 크게 위태로울 것이니 급히 소풍산(消風散)을 쓴다.

消風散 | 소풍산

荊芥穗、甘草 各一錢, 人蔘、白茯苓、白殭蠶、川芎、防風、藿香、蟬退去頭足翅、活 各五分, 陳皮、厚朴製 各三分. 加柴胡 七分, 青皮 各五分, 入細茶一撮, 煎服, 三四貼卽效.

형개수, 감초 각 1돈, 인삼, 백복령, 백강잠, 천궁, 방풍, 곽향, 선퇴(머리, 다리, 날개를 떼 쓴 것), 강활 각 5푼, 진피, 후박(생강즙으로 법제한 것) 각 3푼. 여기에 시호 7푼, 청피 5푼을 더하고 작설차 한 줌을 넣어 달여 먹는데 3-4첩이면 효과가 있다.

○此時, 有手足戰掉, 或顛戰, 氣虛致然也. 宜用保元湯, 加當歸、白芍藥酒炒、白茯苓 各一錢, 肉桂 七分.

○이때 손발을 떨거나 턱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기(氣)가 허하여 그런 것이다. 마땅히 보원탕(保元湯)에 당귀,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백복령 각 1돈, 육계 7푼을 더하여 쓴다.

○此時, 瘡處濕爛不斂, 治法上同, 而更加白朮土炒 一錢, 以差爲度.

○이때 두창 앓은 부위가 짓무르고 아물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위와 같은데, 위의 처방에 다시 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1돈을 더하여 나올 때까지 쓴다.

○此時, 有陰囊浮大, 年長者, 大如瓠瓜, 小兒則大如鵝卵. 痘毒與濕熱下注而然也, 急用消毒飲.

○이때 음낭이 크게 붓는 증후가 나타나면서 그 크기가 어른은 박 만하고 어린이는 거위알 만한 경우가 있다. 두창독과 습열(濕熱)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그런 것이니 급히 소독음(消毒飲)을 쓴다.

消毒飲 | 소독음

鼠粘子炒研 二錢, 荊芥 一錢, 防風、甘草 各五分. 加黃芩酒炒、生地黃酒洗、知母、草龍膽 各五分, 數貼, 甚效. 然此症勿藥自愈者多.

우방자(볶아서 간 것) 2돈, 형개 1돈, 방풍、감초 각 5푼. 여기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생지황(술로 씻은 것)、지모、초용담 각 5푼을 더하여 여러 첩을 쓰면 효과가 매우 좋다. 하지만 이 증상은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

○此時, 有吐瀉并作者, 宜用定中湯.(方見上,) 虛嘔者, 亦效.

○이때 구토와 설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정중탕(定中湯)을 써야 한다.(처방은 위에 나온다.)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此時, 耽睡呼之不應, 勸其乳食, 甚不肯喫, 病弛氣困而然也. 宜用保元湯, 加白芍藥酒炒、當歸身、白茯苓、鼠粘子炒研 各一錢, 肉桂 七分, 薑 一片, 糯米 百粒, 同煎服之. 氣短耽睡者, 亦用右藥, 而難救者甚多.

○이때 잠에 빠져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젖을 억지로 먹이려 해도 극도로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는 병이 풀리면서 기(氣)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다. 보원탕(保元湯)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당귀신、백복령、우방자(볶아서 간 것) 각 1돈, 육계 7푼, 생강 1조각, 찹쌀 100알을 더하여 함께 달여 먹는다. 숨이 짧으면서 잠에 빠진 경우에도 이 약을 쓰는데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此時, 諸症難名, 若氣短氣虛, 若嘔泄, 若昏睡, 若不省, 若奄奄垂盡, 敗症俱見者, 宜用四聖回天湯.

○이때 이름붙이기 어려운 병증이 나타나서 숨이 짧고 기(氣)가 허한 것 같기도 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며 정신이 흐려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며 몹시 쇠약하여 다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 등 온갖 안 좋은 증후가 다 나타나면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을 써야 한다.

四聖回天湯 | 사성회천탕

人蔘、黃芪、當歸身 各二錢, 石雄黃水飛末 二錢, 臨服時調下. 如或黑陷, 加白朮 二錢. 以差爲度, 極妙.

인삼、황기、당귀신 각 2돈, 수비(水飛)한 석웅황 가루 2돈(약을 먹을 때 타서 먹는다). 검게 푹 꺼지는 경우에는 백출 2돈을 더한다. 호전될 때까지 쓰면 매우 효과가 좋다.

此藥, 卽全有亨之所製也. 別無的指之症, 而形勢則極危, 試用此藥, 頗有回生者. 蓋蔘芪補氣, 當歸補血, 雄黃寧脾胃, 治瘡毒故也.

이 약은 전유형(全有亨)이 지은 처방이다. 정확하게 꼬집을 만한 증후가 특별히 없고 병세가 지극히 위중할 때 시험삼아 이 약을 썼더니 살아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 대개 인삼、황기는 기(氣)를 보하고 당귀는 혈(血)을 보하며 웅황은 비위(脾胃)을 편하게 하고 창독(瘡毒)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此時, 譫語見鬼者, 熱也, 昏昏不省者, 亦熱也. 月經、猪尾膏等藥, 連續用之可也. 若症危惡, 似不能救者, 則治法同黑陷.

○이때 헛소리를 하고 귀신이 보이는 증상은 열(熱)로 인한 것이고 정신이 흐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증상도 열로 인한 것이다. 월경수(月經水)、저미고(猪尾膏) 등의 약을 연달아 쓰는 것이 좋다. 만약 증세가 매우 위중하여 구제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두창이 검게 푹 꺼질 때(黑陷)와 똑같이 한다.

○此時, 眼有赤白翳者, 可以急治, 而氣血未復之前, 輕用泄藥, 非徒無益於眼患, 或有關於死生, 必須完復之後, 方可藥治, 而又或自愈者, 有之.

○이때 눈에 붉고 흰 예막(翳膜)이 끼는 경우에는 급히 치료할 수 있는데, 기혈(氣血)이 아직 회복되기 전에 경솔히 사(瀉)하는 약을 쓰면 눈의 질환에 이로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회복된 뒤에

야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 간혹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다.

○反眼之症, 必多於收靨之時, 而其爲形也, 上睫之毛, 必倒豎, 或直豎向前所見異常, 或上睫之內, 有紅肉垂下. 有此症者, 惛愾不省, 或狂言見鬼. 盖形症, 古方之所不論, 而眼胞屬脾胃, 想必餘熱入脾胃故也. 自作方文, 名之曰連翹石膏湯.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은 반드시 딱지가 앉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윗 속눈썹이 반드시 거꾸로 뻗치거나 앞으로 곧게 뻗쳐 생김새가 평상시와 다르거나 윗 속눈썹 안에 붉은 살이 늘어져 있다. 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황이 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미친 소리를 하고 귀신을 본다. 대개 이런 형증은 옛 방서(方書)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인데, 눈꺼풀은 비위(脾胃)에 속하는 터라 반드시 남은 열이 비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방문(方文)을 지어 연교석고탕(連翹石膏湯)이라 명명하였다.

連翹石膏湯 | 연교석고탕

連翹、石膏研甘草煎水水飛 各一錢半, 葛根、生地黃、山梔 各七分, 升麻、赤茯苓、赤芍藥 各五分, 甘草 三分. 加黃芩酒炒、黃連酒炒 各七分. 急用之, 輕者二貼, 重者三四貼, 用輒神效, 十無一失.

연교、석고(갈아서 감초 달인 물로 수비(水飛)한 것) 각 1돈 반, 갈근、생지황、산치자 각 7푼, 승마、적복령、적작약 각 5푼, 감초 3푼. 여기에 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황련(술에 축여 볶은 것) 각 7푼을 더한다. 약을 급히 쓰되 증세가 가벼운 경우는 2첩, 위중한 경우는 3-4첩이면 쓰자마자 좋은 효과를 보는데 열에 하나라도 실패가 없다.

○此後諸症, 或泄瀉嘔吐, 或眼患, 皆已略論於上, 各以其藥治之可也.

○이후의 여러 증상은 설사나 구토를 하기도 하고 눈병을 앓기도 하는데 모두 위에서 대략적으로 논해뒀으니 각각 그에 맞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두창경험방 해제¹

1. 저자 박진희(朴震禧)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의 원간본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따로 없어서 저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모든 해제에서 박진희가 저자라고 하거나 저자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연유를 찾아보면, 『두창경험방』의 중간본(重刊本; 상주 판본)의 말미에 이세항(李世恒)의 발문(跋文)이 있는데 거기서 본서(本書)를 ‘박공(朴公)의 경험방(經驗方){朴公經驗方一篇}’이라고 언급하였고,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수록된 『두창경험방』 요약 내용에 ‘박진희가 저술한 것{朴震禧所著}’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박진희라는 저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진희와 관련된 사료가 문집이나 실록에 보이지 않아서 그의 행적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김두중은 박진희가 두의(痘醫)로서 공로가 많아 여러 번 재화나 상을 받았다고 하였고,² 김남일도 박진희가 어의(御醫)를 지냈으며 두창 치료에 뛰어났다고 언급하였는데,³ 그에 대한 원출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미키사카에(三木榮)는 박진희의 전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인조(仁祖) 후반부터 그의 서적이 서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현종대(顯宗代)에 영남 지역에 보급되었다고 하였으니,⁴ 이는 중각(重刻)된 『두창경험방』의 발문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결국 박진희에 대한 가장 상세한 사료가 『두창경험방』이라서 이 서적을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⁵ 그나마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을 꼽자면, 『두창경험방』 원간본의 간행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동의보감(東醫寶鑑)』의 간행 시기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의보감』이라는 방대한 서적이 배포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두창경험방』의 내용은 분명 『동의보감』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박진희가 『두창경험방』을 저술하던 시점에 간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동의보감』을 접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에 그가 국가 간행물인 『동의보감』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간행내력

『두창경험방』의 판본은 간기(刊記)가 없지만 원간본으로 추정되는 판본과 18세기 초에 경남 상주에서 중간(重刊)된 판본, 그리고 몇몇 필사본이 존재한다.⁶

이본 종류	간행연 도	소장처
원간본 추정	1649- 1672 추정	서울대 규장각, 영남대 도서관
중간본 (상주 판)	1711 (숙종 37)	서울대 규장각, 경북대 도서관, 계명대 동산도서관, 미 국 버클리대 도서관, 일본 동양문고
필사본	18c 이 후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 도서관, 국민대 도서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중간본에 있는 이세항의 발문에 따르면 『두창경험방』이 서울에서는 쓰이는데 영남(嶺南) 지방에 혜택이 미치지 못하였기에 책을 찍어내어 널리 전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사촬요부록(攷事撮要附錄)』, 『용산요두편(龍山療痘篇)』, 『산림경제』, 『고사신서(攷事新書)』와 같은 책에 『두창경험방』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후기에 『두창경험방』의 내용이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구성의 특징

『두창경험방』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두창의 원인, 예방, 변별, 일반적 증상, 치법, 음식, 금기 등 총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후반부에서는 두창의 전주기에 따른 치법을 다루고 있다. 편제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동의보감·잡병편·소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의 내용은 거의 『동의보감』의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후반부의 내용은 유사한 편제 속에서도 차별점을 지니고 있기에 그 독창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전주기(全週期)에 따른 수반증상 및 치법 정리

조선시대에 두창에 대해 다룬 의서는 『두창경험방』 간행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세조대(世祖代)의 『창진집(瘡疹集)』과 중종대(中宗代)의 『창진방촬요(瘡疹方撮要)』가 있으며 그 이후에 허준의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가 있다.⁷ 그 편제를 놓고 보자면 『창진집』과 『창진방촬요』의 양식이 유사하고, 『언해두창집요』와 『두창경험방』의 양식이 유사하다. 전자는 예방(豫防)-발출(發出)-화해(和解)-구함(救陷)-소독(消毒)-호안(護眼)-최건(催乾)-멸반(滅瘢)-통치(通治)에 해당하는 처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후자는 발열(發熱)-출두(出痘)-기창(起脹)-관농(貫膿)-수엽(收靨)과 같이 두창이라는 질환의 진행단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그 치법을 제시하였다.⁸ 두창의 전주기를 3일씩 구분지어 기술한 방식은 명대(明代) 의서 『고금의방(古今醫方)』에서 볼 수 있으며, 조선 의서로는 『언해두창집요』부터 해당 방식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결국 『두창경험방』의 주요 편제는 『언해두창집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의보감·잡병편·소아』의 편제와 유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⁹ 『두창경험방』의 총론 부분에서 『언해두창집요』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에는 실려 있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두창경험방』은 『동의보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같은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도 큰 틀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동의보감』의 경우 질환의 진행단계별 치법 외에도 인후통(咽喉痛), 요복통(腰腹痛), 구토(嘔吐) 등과 같은 수반 증후와 관련된 치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창경험방』의 경우에는 그러한 편제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두창의 전주기에 따라 치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의

학지식을 총 망라하여 정리하는 종합의서와 질병의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한 경험방이 각각 다른 간행 배경을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종합의서와 경험방의 성격 차이라고 보기에 그 실질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출두(出痘) 시기에 언급된 『동의보감』과 『두창경험방』의 처방(治方)을 비교해 보았더니, 출두와 관련된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처방은 3개에 불과했다.¹⁰ 대신 『동의보감·잡병편·소아』에서 두창의 수반 증후에 수록된 처방이 『두창경험방』의 출두시 치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의보감·잡병편·소아』의 「경축(驚搐)」에서 언급된 가감홍면산(加減紅錦散), 「요복통」에서 언급된 선퇴탕(蟬退湯) 등이 『두창경험방』의 「출두삼조(出痘三朝)」, 「출두종일(出痘終日)」, 「출두시변증경험(出痘時變證經驗)」에 포함된 것이다.¹¹ 물론 이러한 점에서 『동의보감·잡병편·소아』에 흩어진 두창 관련 치법을 발열·출두·기창·관농·수엽의 편제로 정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각 편제에 수록된 단방이나 가감방은 분명 『두창경험방』의 독창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각종 의안(醫案) 수록

『두창경험방』에는 총 5개의 의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출두(出痘) 시기에 3건, 기창(起脹) 시기에 1건, 관농(貫膿) 시기에 1건이다. 그 중 한 건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두창을 앓는 17세 남자에게 애초에 땀을 너무 많이 내어서 그가 허한 줄을 충분히 알 만 한데,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이르러 설사를 하는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곱 번을 났다. 그 집안의 숙부가 이를 두창 독이 매우 심한 것으로 여겨서 이때에 이르러 소독음(消毒飲)을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 뜻은 비록 독이 심하다고 여겼지라도 기(氣)가 허하면 두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하물며 방서(方書)에서조차 두창에 수반되는 설사를 멎게 하는 약이 보원탕(保元湯)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집안에서 이 아이의 병이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하니 결국 제 운명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아이가 장차 죽을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한 뒤, 보원탕에 백복령(白茯苓)·백작약(白芍藥)(볶은 것)·백출(白朮)(흙에 볶은 것) 각 한 돈, 육계(肉桂) 7푼, 서각(犀角) 가루 5푼을 더하여 두 첵을 썼더니 설사가 곧 멈추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 고름이 생기는 시기에 심한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후부터는 추위에 떨어 옷과 이불을 두껍게 덮어줘도 그칠 줄 몰랐다. 잠깐 뒤에 스스로 열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면서 햇볕이 창을 비추는데도 오히려 어둡다며 촛불을 켜라 하더니 3-4경(更)(새벽)이 지난 즈음에야 열기가 점차 내려서 비로소 죽을 먹었다. 이러하기를 여러 날이 지나니 날 수로 세어보면 이미 딱지가 지는 시기가 지났어야 하는데, 속에 차 있는 물의 빛이 옅고 돌아 오른 곳의 껍질이 얇아서 옷에 붙고 온 몸에 진물이 흐르며 혹여나 움직이기라도 하면 아파하는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불을 들쳐보니 온 몸이 벌겋고 문드러지며 진물이 흐른 것이 마치 노루의 껍질을 벗긴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두역(痘疫)을 피해 멀리 나가있던 그 형이 본가에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만약 소독(消毒)하는 약을 썼다면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설사할 때 보원탕을 썼으니 인삼(人參)이 주된 약재가 되어 반드시 열을 조장하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술을 감히 행할 수 없어 이때부터 손을 놓고 물러나 십 수 일이 지났다. 그 집에서 병을 구제하던 형이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약을 쓴 것을 보니 가히 두창에 대해 잘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든 아우는 지금 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멀리 나가있는 만형이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니 어찌 마음에 둘만한 말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미 죽은 몸이라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두질(痘疾)을 앓는 자가 있다면 어떤 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답하기를, 보건대 보원탕을 더 쓰고자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전에 썼던 보원탕을 달이고 남은 약재 찌꺼기가 있으니 그것을 합하여 달여 먹이면 어떠합니까?” 내가 답하여 말하기를, 그대 집안의 병은 내가 감히 맡아서 약을 쓸 수 없지만 그렇게 쓴다면 다른 증상들은 저절로 치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 또 감창(疔瘡)을 앓아서 윗입술이 이미 문드러져 이와 잇몸이 드러나는 데에 이르니 급히 찰아산(擦牙散)에 용석산(龍石散)을 합하여 바르고,

몸에 상처나고 문드러진 곳은 패초산(敗草散) 십 수 말로써 온 몸을 문어두니 하룻밤 사이에 모두 딱지가 졌고, 입술이 문드러진 곳 또한 저절로 살이 돋았다. 보원탕 두 첩의 약 찌꺼기를 합쳐 달여서 쓰니 증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음날 환자의 형이 또 와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와 온전한 약(보원탕) 한 첩을 먹게 하였으니, 전에 앓던 병이 모두 사라져서 살아나게 되었다.

해당 의안이 수록된 의안 중 가장 긴 것인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를 치료하는 정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병기(病機)를 해설하고 그에 마땅한 치법을 제시한 것이 의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의안에서 활용된 보원탕 가미방과 찰아산합용석산(擦牙散合龍石散)은 본문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다.¹² 이는 『두창경험방』 본문에 기록된 처방들이 실제 경험에서 검증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3)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언해

『두창경험방』 본문의 대부분은 언해가 달려있다. 조선시대에 언해가 달리는 의서는 구급방(救急方), 벽온방(辟瘟方)과 같이 널리 보급될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고, 『두창경험방』 또한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보급의 대상이 되는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두창경험방』의 언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독자로 상정한 대상에게 긴요한 내용이 아니면 굳이 언해를 하지 않았다. 『두창경험방』 전반부에 『동의보감·잡병편·소아』의 「두창제증(痘瘡諸證)」, 「두창치법(痘瘡治法)」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단락은 병증(病證)의 정황을 논했을 뿐이라 특별히 대단한 내용이 없으니 언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¹³ 의서에서 질병의 증(證)에 대한 내용이나 치법에 대한 원칙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이 서적의 독자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준다. 이 외에도 맨 마지막에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을 창방(創方)한 의가의 의론(醫論)과 관련된 내용 또한 언해하지 않았다. 또 다른 특징으로 언해에 의역이 군데 군데 보인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又不能盡令服藥, 終至不救者有之, 惜哉. 능히 제어하야 약을 머기디 못하야
 못춤내 구티 못하느 니가 만하니 브디 아히를 상시에 잘 달래여 잘 그르쳐 약
 을 먹게 할 서시니라. 審察則此果眞痘也. 蓋世或有再行大痘者, 而形色及證
 候決非他病. 故欲只用化毒湯, 則腰痛極凶, 必當用神解湯, 以汗洽爲度, 方可
 全生, 而欲用神解湯, 以解腰痛, 則汗亦痘出後大忌也. 그 증을 보니 과연 진깃
 역질이러라. 다만 화독탕을 뜯 거시로디 허리 알는 증이 극키 흥하니 브디 신
 히탕을 써 썸을 헹흠피 내어야 가히 살 거시로디 썸 만히 내는 거시 또흔 역질
 도든 후의는 극흔 금긔매

두 예를 살펴보면 전자는 원문을 그대로 풀지 않고 없는 내용을 덧붙이되 대체적인
 의미가 통하게 하였고, 후자는 원문을 생략하면서 주요한 용약 정보를 중심으로 풀
 이하고 있다. 따라서 언해의 목적은 이 서적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
 로 전달하는 데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언해의 성격은 향후에 필사본에도
 이어지는데, 기존 목판본 언해의 어휘를 다르게 바꾸거나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번
 역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¹⁴ 즉 필사자가 기존 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언해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을 가한 것이다. 이 또한 서적 내용의 쉬운 전달을
 위한 것이며 널리 보급될 필요가 있는 이 서적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4. 주요 학술 사상

『두창경험방』은 그 구성의 특징 때문에 『언해두창집요』나 『동의보감』에 비해 그 분
 량이 적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 속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
 기에 그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두창에서 비위기(脾胃氣)의 중요성 강조

『두창경험방』에서는 이전의 두창 관련 의서에서와 같이 비위(脾胃)를 중시하여 음
 식을 통한 섭생을 중시하였다.¹⁵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관습을
 비판하며 경험을 토대로 한 논설을 첨부하였으니, 아래와 같다.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너무 과하여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하고 교만하게 기르다가 이러한 역질(疫疾)을 앓게 되면 음식과 기거가 모두 절도에 맞지 않게 되고 능히 제어하여 약을 먹이지 못하는데, 끝내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안타깝구나. 귀신의 있고 없음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대개 생각해보자면 사람의 마음이 본디 허령(虛靈)한데 이제 화를 끼게 되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 무녀들이 빙자하여 말하는데 세상이 무당을 믿는 것은 진실로 이렇게 늘어놓는 말 때문이라. 만약 귀신이 있다면 (병의) 경중을 논할 것 없이 밖에서의 일을 다 알 것인데, 병이 중한 자는 혹 알지 못하고 가벼운 자는 혹 알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세상에는 신상(神床)을 세우지 않고도 두역(痘疫)을 잘 넘긴 사람이 있고, 방 안에 상탁을 설치한 것부터 의복·비단·보화에 이르기까지 무궁히 벌여놓더라도 끝내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또 병이 심한 자가 무당의 말을 듣고 겨울철에 찬 물로 목욕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였으나 귀신의 도움을 얻지 못해 끝내 조섭하지 못하니, 작게는 종신토록 병이 들고 크게는 그로인해 죽게 된다. 지금도 두역(痘疫)을 앓는 아이는 고기나 생선이 없이 밥을 먹고 온 집안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 끝내 병든 아이가 위(胃)가 허하여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두창(痘瘡)은 열이 성하므로 자연스레 생선, 고기를 찾지 않는데, 무녀가 이를 중귀신(僧尼之神)이라 여겨 온 집안이 채소류만 먹고 눕고 병든 어버이마저 모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병든 아이가 생선이나 고기를 찾아도 무녀에게 물어보는데, 오로지 두창신이 놀리려는 것이므로 먹이면 위험하다고만 얘기한다. 두창 환자가 있는 집은 두려워하며 감히 생선이나 고기를 조금도 주지 않아서 기혈(氣血)을 더욱 허하게 하고 전변(轉變)된 증상이 뒤섞여 나오게 하여 구제하기 어렵게 되는데, 세속의 관습이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이와 같다. 무릇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독자(獨子)가 두창을 앓았는데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았다. 그 집에 생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히 먹지 못한 채 신상(神床)에 놓고 제사만 지냈더니, 따뜻한 방에 오래 두었기에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썩어서 악취가 났다. 내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대의 집안이 무당을 믿어서 세속의 금기를 비록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온 집안이 채

식을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모(乳母)가 채식을 하면 병든 아이가 반드시 상할 것입니다.” 주인이 약간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인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어찌 하리오? 청컨대 좀 천천히 합시다.” 과연 딱지가 떨어진 뒤에 혈기가 더욱 허해져서 자는 듯 안자는 듯 하다가 젖을 빨지 못하고 며칠 뒤에 죽었으니, 안타깝지 아니한가? 이는 특별히 한 사람을 들어 말한 것인데, 두창 환자가 있는 집 안이라면 마땅히 깊게 경계해야 할 바이다.

요컨대 당시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 두창을 앓는 도중에 더욱 허증(虛證)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으로 자주 활용한 처방이 있으니 바로 보원탕(保元湯)이다. 보원탕은 『동의보감』에도 두창의 통치방(通治方)으로 언급된 처방이지만, 『두창경험방』에서는 이 처방을 그보다 더 다방면으로 활용하였다.¹⁶ 물론 『두창경험방』에는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은 가미례(加味例)도 보이지만, 분명 더욱 다양한 임상례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두창 증의 설사에 사용한 가미방은 앞서 언급했듯이 의안에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니 만큼, 다른 가미방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원탕 외에 비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시한 처방이 있으니, 바로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이다. 이 처방은 전유형이라는 사람이 창했다고 되어 있는데,¹⁷ 그의 설을 책 말미에 수록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전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을(錢乙), 장원소(張元素), 진문중(陳文中), 주단계(朱丹溪)의 설을 살펴보니 모두 옳지 않다. 내가 일찍이 옛 방서(方書)에 따라 사람들에게 시험하기를 무려 수천, 수만 번 하였으나 모두 탁월한 효과가 없었다. 십여 년 동안 마음 깊숙이 생각에 잠겼다가 어느 날 문득 얻은 바가 있었다. 두창(痘瘡)은 여역(癘疫)과 같다고 하는데, 여역을 치료할 때에는 마땅히 소사(疏瀉)하는 법을 써야 하지만 두창에 소사하는 법을 쓰면 도리어 안이 허해져 죽게 된다. 두창이 웅종(癰腫)과 같다고 하는데, 웅종을 치료할 때 고름이 잡히지 않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두창에 고름이 잡히지 않으면 도리어 안으로 들어가 죽게 된다. 대개 두창은 본디 오장(五臟)의 독으로 인해 생겼다고 하지만 비(脾)가 주(主)가 된다.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이 담당하는 것

이 기육(肌肉)인데 비위(脾胃)의 기가 충실하면 생기(生氣)도 가득하여 두창은 저절로 나을 것이니, 어떤 사열(邪熱)이 빌미가 되겠는가? 이에 사군자탕(四君子湯)과 보원탕(保元湯) 등의 약을 써서 보하면 효험이 있는 자가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이니 두창이 비(脾)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언제나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연구해 보건대 급히 보하지 않으면 그만한 효과를 보기 힘들니, 마침내 급히 보하고자 하면 석약(石藥)을 써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인삼(人參)으로 혼백(魂魄)을 안정시키고 황기(黃芪)로 기를 보하며 당귀신(當歸身)으로 혈을 보하고 석웅황(石雄黃)으로 비토(脾土)를 온전히 보하게 하여 사성회천탕(四聖回天湯)이라 이름을 붙였다. 두창의 형증(形證)이 이미 나타나면 다른 병증이 아닌지 변별한 뒤에 인삼, 당귀신, 황기 각 두 돈에 물 1되 3홉을 넣고 4~5홉이 될 때까지 달인 다음 곱게 간 석웅황 가루를 5푼 타서 먹는다. 열이 매우 심하고 검게 폭 꺼진 것이 심한 경우에는 백출(白朮) 두 돈을 더하고, 인삼, 황기, 당귀신을 세 돈씩, 웅황 가루를 7푼으로 쓴다. 이 약 한 첩을 쓰면 추위에 떠는 자, 이를 가는 자, 두창의 색이 검붉은 자, 눈동자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쏘아보는 자, 기가 끊어지려는 자는 즉시 두창에 물이 차오르고 살아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연달아 쓴다. 이 약을 쓰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낫고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죽게 되니, 이 약의 효능이 또한 크지 아니한가?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단계(丹溪), 동원(東垣)과 함께 시비를 겨루어 바로잡고 싶다.

다소 과장이 보이긴 하지만 처방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확신에 가까운 전씨의 의견에 박진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러나 분명 이 약을 활용하여 위급한 증세에서 살아난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 요컨대 당시 사람들이 두창을 앓는 과정에서 기존 관습으로 인해 비위를 허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런 상황이 두창의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피력하면서²⁰ 기존에 알려진 보원탕이라는 처방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덧붙여 비슷한 맥락으로 활용된 다른 의가의 처방과 방의(方義)를 책 말미에 기록하고 있다.

2) 한량(寒凉)한 약의 활용

앞서 설명했듯이 『두창경험방』에서는 두창을 앓는 과정에서 비위가 허한 경우에 보원탕, 사성회천탕과 같이 온보(溫補)하는 약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모든 치법이 꼭 그와 같은 방향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었다. 두창의 진행 과정 중에 열성 증후를 띄는 경우에 대해 기록하였고, 그에 따른 치법을 제시하였다. 그와 관련한 논설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옛 방서(方書)에서 ‘이때에는(고름이 잡힐 때에는) 구구(九竅)를 잘 틀어막고 음식과 약을 쓸 때 한량(寒凉)하고 담백한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데, 만약 비위(脾胃)를 상하면 맑은 기운이 아래로 꺼져서 고름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진실로 옳다.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두창 환자를 많이 보아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반드시 이때가 되면 열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월경수(月經水)를 간간히 쓰고 저미고(猪尾膏)를 적절히 이어서 쓰니 항상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병정(病情)이 옛날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말을 고수하여 한량한 약을 쓰지 않으면 열을 어떻게 내리고 병을 어떻게 낮게 하겠는가? 다만 열이 심하여 병증(病證)이 변하여 나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니, 병증이 변하여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에는 창공(倉公)과 편작(扁鵲)이 백 명 있다한들 어떻게 약을 써서 효과를 보겠는가? 진실로 애처로우니 또한 자세히 살펴서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다.

박진희는 기존의 의학지식을 수용하고 있지만 실제 경험과 괴리된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보다 같은 병이라도 시대에 따라 드러나는 정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두창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열성 증후가 있을 때 치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비록 활용된 한량한 약의 종류가 나미전수(糯米煎水), 월경(月經), 저미고(猪尾膏) 정도로 단순하지만, 병의 진행 과정에서 열과 관련된 증후가 있으면 시기에 관계없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두창경험방』에 활용된 치법 중 가장 극단적인 두 예를 든 것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용약의 범주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²¹ 그리고 이는 두창과 같이 위급한 전염병에 대해 접근하던 박진희라는 의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두창에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두창에 한량한 약을 쓰면 안 된다’ 등의 기존 금기에서 벗어나 그 병의 진행과정과 수반되는 증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치료한 것이다. 따라서 두창이라는 질병이 보편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원인을 따져보되 그 판단에는 전적으로 수반 증후만을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기존의 금기와 실제 임상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치료까지 이어진 임상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금기가 진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판단 과정에서 단순히 현재의 경험으로 기존의 이론을 뒤엎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되 적용되지 않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전유형의 처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되 그의 경험이 전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니, 의론의 수용과 비판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학술적 의의

『두창경험방』은 서문이나 간기가 없어서 그 간행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각본, 필사본과 같이 다양한 이본이 발견된 것이나 『용산요두편』, 『고사촬요』 등의 책에 꾸준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 파급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²² 게다가 본 서적의 간행 이후에 있었던 왕실의 두창 치료 의안을 살펴보면 『두창경험방』에 기록된 내용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²³ 당시 두창은 민간 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였는데, 그러한 두창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시 조선 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용하였고, 저자인 박진희가 실제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단순히 조문 형태로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의안을 수록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높여주었고, 높

은 수준의 의학지식을 민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언해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점은 당시 지식인의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 의론의 우수성도 찾아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된 바로는 수천 번의 두창 치료 경험이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치료와 관련된 기록을 두창의 전주기 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활용된 치법을 살펴보면 온보하는 약부터 한량한 약까지 그 범주가 다양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량한 약으로 활용한 나미전수, 월경 등은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이기도 하다. 다만 월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세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²⁴ 16-17세기경에 간행된 각종 경험방이나 벽온방에 월경수를 활용한 기록이 있기도 하고 박진희도 실제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의 관습이나 금기처럼 두창이라는 질병의 성격을 정의하지 않고, 그 병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징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증후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치법을 결정하였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다른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 그대로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과 사회적 공포감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전염병 관리 분야에서 현대 한의학이 나아갈 길은 새로운 질병의 발현 양상을 뼈대로 삼고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증후들을 조사하여 병기를 분석하고 치법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백년 전에 『두창 경험방』을 간행한 박진희가 그랬듯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고 발현된 질병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한의학적 치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1. 본 해제는 다음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p.37-52. <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01. <

3.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253-254. ↩
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府 堺市.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209. ↩
5. 박진희에 대한 김남일의 연구(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253-254.)도 대부분 두창경험방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
6. 본 표는〔디지털한글박물관 포털〕(<http://archives.hangeul.go.kr/scholarship/totalArchives/view/12703>)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하고, 기존 해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7. 창진집과 창진방찰요의 간행연도는 각각 김의 연구(김성수. 조선전기 두창 유행과 창진집.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 16(1). p.36.)와 성의 연구(성환갑. 창진방찰요 해제. 국어사연구. 2005. 5. pp.175-180.)를 참조하였다. ↩
8. 이는 조선초기 송대의학(宋代醫學)의 영향을 받아 방약(方藥) 정보 위주로 의학지식을 정리하다가 임상경험을 토대로 점차 증치(證治) 정보 위주로 발전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
9. 언해두창집요의 내용은 동의보감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목차 또한 비슷하다. (김중권. 언해두창집요의 서지학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994. 5(1). pp.143-146.) ↩
10.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6. 29(4). pp.40-41. ↩
11. 두창경험방에서 출두 시기와 관련된 편제는 ‘출두삼조(出痘三朝)’, ‘출두종일(出痘終日)’, ‘출두시변증경험(出痘時變證經驗)’이다. 참고로 동의보감의 경우는 ‘출두삼조(出痘三朝)’, ‘출두시길흉증(出痘時吉凶證)’이다. ↩

12. “此時, 若泄瀉則大危, 急用保元湯. 方見上出痘條. 加白芍藥〔酒炒〕、白茯苓、白朮、乾薑炒黑、肉桂 各七分, 臨服犀角屑 五分, 調下.”

“擦牙散合龍石散. 白梅肉燒存性、白礬枯 各二錢半, 人中白煨 五錢, 寒水石三兩, 朱砂 二錢半, 龍腦 二分. 右爲末, 先以韭菜根與雀舌濃煎水, 洗淨出血後, 糝付日三四五次. 爛至喉中者, 以竹筒吹入. 雖牙齒爛落, 口舌穿破, 付藥則皆愈. 但鼻梁發紅點者, 不可治. 此方乃大劑, 當其病急之時, 卒難劑, 用或三分之一, 五分之一, 分作用之宜當.” ←

13. “此以上二節, 論其證情而已, 別無大段緊關之事, 故不爲諺解.” ←

14. 이은규. 두창경험방 이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000. 18. pp.229-231. ←

15. “痘以脾胃爲主, 自始至終, 以能食爲順, 而淡食爲佳.” ←

16.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6. 29(4). p.46. ←

17. 朴震禧는 四聖回天湯이 全同知有馨이 지은 처방이라고 하였다.(“此藥, 則全同知有馨之所製也.”) 실록에서 全有馨보다 全有亨이 더 자주 등장하는데 조선시대의 유의 중 해부학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全有亨이 같은 인물인지 확정할 수 없으나,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 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125-127.) (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wpa_10110018_002)에 ‘同知 全有亨’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今者李有林乃承服逆賊, 同知全有亨, 敢於登對之時, 至請加爵於亂領, 以爲援引同黨之地, 其反常悖理大矣”)

다소 오류가 있지만 全有亨과 全有馨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문집([頤齋亂藁])(<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

mode=&page=1&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55001_000&aa10no=kh2_je_a_vsu_55001_042&aa15no=042&aa20no=55001_042_0006

[&gnd1=&gnd2=&keywords=&rowcount=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書全有亨鶴松集後 全氏即金時讓荷潭日記所云 全同年也 許任痘疫經驗方所云 全同知也(주:誤以亨爲馨 其四聖回天湯 是全氏所勅云)”)

고대원의 연구에서도 全有亨을 고증하였는데 廣濟秘笈, 宜彙, 增補山林經濟에는 全有馨으로, 山林經濟에는 全有亨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다.(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48.) [↩](#)

18. “此藥, 則全同知有馨之所製也. 其自跋有曰, 十全十百全百, 此則自多之辭也, 未必其然.”

김남일의 연구에서 박진희가 錢乙, 張元素, 朱丹溪 등의 두창에 대한 주장을 비판했다고 하였는데,(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254.) 그것은 분명 전유형의 말이며 박진희는 전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 잘못된 내용이다. [↩](#)

19. “人家痘疾, 自初不用藥治, 而危證雜出然後, 始問於余. 故用他藥, 則別無的知之證, 而形勢則極危, 始用此藥, 頗有回生者.” [↩](#)

20. 발열(發熱) 시기를 제외한 모든 진행과정에서 보원탕이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

21. 김호의 [해제](<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서 간행된 저서(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실용서로 읽는 조선. 경기도 파주. 글항아리. 2013. p.119, 120.)의 내용에 따르면 朴震禧가 東醫寶鑑에서 痘瘡의 원인이 五臟의 태독에 있다는 설을 비판하고 脾胃와 연관지어 생각하여 치료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해석이다. 東醫寶鑑에서 설명한 痘瘡 관련 내용(五臟說 포함)을 痘瘡經驗方의 전반부에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脾胃를 중시한 것이 朴震禧 醫論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痘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22. 김중권의 〈해제〉(http://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1149724&colltype=DAN_OL_D&place_code_info=002&place_name_info=%EB%94%94%EC%A7%80%ED%84%B8%EC%97%B4%EB%9E%8C%EC%8B%A4&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null&category=&srchFlag=Y&h_kwd=%EB%91%90%EC%B0%BD%EA%B2%BD%ED%97%98%EB%B0%A9&lic_yn=N&mat_code=RB#none)에 따르면 이 책은 李蕃의 龍山療痘編(1672), 柳相의 古今經驗活幼方(숙종), 丁若鏞의 經驗痘方(1809), 李鍾仁의 時種通編(1817)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

23. 고대원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痘瘡經驗方에만 기록된 四聖回天湯의 가감법을 활용한 것이나 保元湯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그 의안의 특징이다. 痘瘡經驗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서적에 기록된 의학지식이 왕실에서 활용되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4. 〈廣濟秘笈〉(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DataID=KIOM_A015_Z_001&DataName=%E7%94%A8%E6%9C%88%E7%B6%93%E8%BE%A8&id=KIOM_A015_4_006_0012)에서는 痘瘡에 月經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用月經辨 人間腥穢 未有甚於月經 痘瘡之最惡者也 若起脹貫膿之時觸之 必有陷伏之患 而東人經驗方率多用之 何哉 愚謂收靨時餘熱 及服蓼附干桂之毒最宜云”) ←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본 국역본의 텍스트는 선본을 선정하여 모본으로 삼고 대교본으로 교감기를 다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서적의 모본과 대교본은 다음과 같다.

1. 痘瘡經驗方

- 모본(원간본 추정)
 - * 규장각본
 - * 한국의학대계본
- 대교본(상주 중간본)
 - * 규장각본
 - * 동양문고본

2. 攷事撮要

- 모본

* 국중본(3권부록본/현종15;1674)

- 대교본

* 규장각본(3권부록본/현종15;1674)

* 오사카본(4권본/영조6;1730)

* 대계본(5권본/영조19;1743)

3. 攷事新書

- 모본

* 장서각본

- 대교본

* 규장각본

* 국중갑본

* 국중을본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두창경험방 痘瘡經驗方

원저자 : 박진희 朴震禧

국역 : 김상현

해제 : 김상현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9년 12월 13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김상현이고 판본을 조사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김상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19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한의 고문헌 지식 분석 시스템 개발(KSN1812200)



[EPUB] 978-89-5970-439-2

[PDF] 978-89-5970-444-6